

博物館紀要

22

2007. 12.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목 차

❖ 기조강연

統一新羅와 高麗時代의 佛像	鄭永鎬	5
----------------------	-----------	---

❖ 논 문

韓國의 鐵佛	최인선	33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정은우	73
총평과 질문	김리나	107

❖ 휘 보

❖ 구입 및 기증 받은 도서 목록

統一新羅와 高麗時代의 佛像

- 石造佛像을 中心으로 -

鄭 永 鎬*

목
차

I. 統一新羅時代의 佛像

II. 高麗時代의 佛像

I. 統一新羅時代의 佛像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 佛教는 더욱 융성하여 高僧大德의 배출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教化를 주었으며 佛教的인 美術文化는 드디어 최고도로 발달하여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다.

즉 이 時代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극히 안정된 全盛時代를 이루고 있었으니 정

★ 檀國大 碩座教授・石宙善紀念博物館長

치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획득 확장하여 韓半島를 지배하고 統一國體를 이루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더욱 富強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三國時代의 素朴하고 雄健하였던 美術에 대하여 이때는 화려하고도 섬세한 美의 극치를 이루어서 韓國美術의 黃金時代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각처에 건립된 大·小의 寺院에서는 佛像 造成의 最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佛教美術文化의 遺産은 단지 개인의 재질에만 의존되는 것은 아니다. 즉 全國民의 건전하고 패기 있는 정신력과 평소에 연마를 거듭한 彫刻技術과 美에 대한 투철한 審美眼등이 한 덩어리로 융화되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하는 富強한 國力을 이룩하였을 때 비로소 영원한 彫刻美가 솟아나는 걸작품이 造成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이 佛教文化의 所産일 때에는 맑고 높은 信仰心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佛像을 彫刻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 聖寶를 완성했을 때 往生할 수 있는 極樂世界만을 생각하였을 뿐 다른 잡념은 없었을 것이다.

時代 개념에서 통일신라는 古新羅가 百濟와 高句麗를 滅하여 領土를 차지한 때부터 이후 高麗王朝에 병합된 935년까지 약 270년간을 말한다. 그런데 통일시대의 시발을 백제를 滅한 660년경부터 볼 것인지, 혹은 唐나라 세력까지를 완전히 韓半島에서 몰아낸 677년을 기점으로 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된 일이다. 그러나 美術史의 입장에서는 新羅의 세력이 國外로 뻗고 對外정책이 확고해져서 百濟領土를 차지하여 對外的으로 文化가 크게 접촉하기 시작한 660년을 통일신라의 시발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일반적으로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기인 7세기 후반부터 쇠망기인 10세기 초반에 이르는 약 270년간 신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美術文化는 多樣한 것이었으니 이것은 國力의 충실과 문화의 창달로서 신라 전성기를 맞은 데에 의한 것이며 이렇듯 文化의 黃金期에서 폭 넓고 깊이 있는 美術文化가 이룩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신라시대의 佛像彫刻은 三國時代의 樣式과 手法을 충분히 소화하였으며 그 동안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새로이 전래된 唐나라 樣式을 수용하면서 원숙한 彫刻術과 깊은 신앙으로 新羅 佛像彫刻의 黃金期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즉 이 時代에 있어 中國에서는 唐帝國이, 印度에서는 굽타王朝가 각각 번영하고 있어 당시 新羅로서는 이들의 문화와 예술을 흡수하여 이렇듯 內·外の 與件이 한곳에 뭉쳐져서 통

일신라의 佛像彫刻이 크게 발달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어느 時代든지 寺院의 창건과 佛像彫刻은 밀접한 관계로 寺院의 건립은 곧 佛像造成을 말한다. 新羅는 統一직후부터 7세기후반에 이르기까지 四天王寺, 望德寺, 感恩寺, 浮石寺 등 護國大刹의 창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8세기에 들면서 聖德王代(702~736)를 맞이하여 절정을 向하게 되었고 景德王代(742~764)에 이르러 마침내 新羅 예술의 黃金期를 이룩하였으니 경주 吐含山の 佛國寺와 石窟庵이 모두 이때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듯 聖德王과 景德王의 兩代를 頂點으로 최대의 걸작품을 남겼던 신라의 佛像彫刻은 이후 9세기에 들면서 점차 쇠퇴의 길로 들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천은 中央의 支配力이 弱化됨에 따라 地方豪族들이 등장하여 國力이 쇠퇴해진 것에 基因된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9세기에 들면서 뚜렷해 졌으니 이 무렵에 造成된 佛像들은 통일초기에 볼 수 있었던 대담하고 기백 있는 힘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편 禪宗이 들어오면서 地方으로 佛教가 보급되어 王都중심이었던 모든 佛教文化, 佛教美術이 地方으로 擴散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며 이 시기의 佛像은 中央보다 地方에서 그 造成의 例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은 어느 곳에서나 花崗巖이 많음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도처에서 생산되는 良質의 화강암은 新羅의 각처에서 佛徒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石材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게 하여 三國時代 이래 가장 뛰어난 石造彫刻을 남기어 특히 石佛은 웅장하고 정교한 作風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山野에는 이르는 곳마다 많은 石佛이 있으니 佛像 造成에 적합한 岩石을 만나면 바로 그 岩面에 佛・菩薩像을 彫刻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나름대로의 발달된 석불조각을 보이고 있었으나 통일기인 7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통일신라 석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양식에 종합됨으로써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신라의 석불조각은 삼국시대 이래 축적된 전통을 밑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7세기 중엽부터 후반에 이르는 시기는 太宗武烈王이래 文武王(661~680), 神文王(681~691), 孝昭王(692~701)代에 걸쳐 唐과의 교섭이 빈번하였으므로 唐으로부터의 새로운 양식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제1기라고 지칭하는 7세기 말까지의 신라석불은 아직 삼국시대 양식을 계승하고 있어 古式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대외적 추세에서 새 양식을 수용하면서 점

차 새로운 양식전통을 세우려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石佛에 있어서는 圓刻佛像과 磨崖佛, 線彫佛, 碑像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 시기에 조성된 圓刻佛像으로는 慶州 拜里石佛立像 三體와 軍威三尊石窟內的 三尊像, 그리고 奉化北枝里石造半跏像을 대표로 들 수 있다.

慶州拜里石佛立像의 本尊如來立像은 머리위에 높은 肉髻를 갖추었고 相好 각 부는 두툼하게 무게 있는 표현이며 通肩한 法衣 역시 두꺼운 표현이다. 手印은 施無畏 與願印을 짓고 있는데 이 양쪽 팔과 손목에 걸쳐 양옆으로 주름지며 펼쳐진 衣褶은 手印과 더불어 三國期佛像에서 볼 수 있는 바라 하겠다. 좌·우 脇侍菩薩은 共히 圓形頭光을 구비하였는데 좌측 협시보살은 頭光이나 胴體에 별다른 장식이 없으나 우측 협시보살은 화려한 장엄으로 대조적이다. 즉 頭光에는 五軀의 化佛이 배치되고 胴體에는 瓔珞이 곱게 늘어졌다. 이 三尊은 부분적으로 三國期の 양식을 보이고 있어 相好에 나타난 古拙의 微笑와 특히 本尊의 手印과 衣褶 등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三國期 특유의 소박하고 간결한 技法은 아니 보인다. 그리고 像高 3.5m 內외의 巨軀는 統一王國의 신흥기상으로 보아 통일직후의 조성으로 추정되는데 이렇듯 巨作의 時代的 背景은 곧 통일직후로써 이해되는 바라 하겠다.

다음으로 軍威石窟의 三尊像은 地上에서 약 20m 높이의 岩壁에 四角形石室을 마련하고 봉안하였는데 중앙에 本尊으로 阿彌陀如來坐像을 모시고 좌·우 협시로 觀音菩薩과 大勢至菩薩立像을 배치하여 이른바 阿彌陀三尊像이다. 여기의 三尊은 石佛彫刻으로서도 주목되려니와 우선 石窟에 있어서 慶州 吐含山の 石窟庵石窟보다 半世紀이상 앞서 經營되었고 또 地理的으로 北쪽에 위치하고 있어 石窟寺院의 전래과정과 경로를 고증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石窟자체의 作窟手法이 印度나 中國石窟의 정통을 계승하여 자연 암벽을 꿰뚫고 石窟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또한 주목된다. 三尊像에 있어서 특히 本尊은 四角形臺座위에 結跏趺坐하였는데 臺座에 彫刻된 本尊의 衣紋이 古式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通肩한 法衣는 얇아져서 三國期石佛에서 볼 수 있었던 두툼하고 소박한 作風을 보이지 않는다. 좌·우협시보살상에서도 또한 그러하여 이 三尊石佛은 古式에서는 벗어나 統一期の 新樣式으로 넘어가는 7세기말의 과도기적인 양식을 잘 보이고 있어 통일신라 石佛研究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사진 1〉 軍威石窟內 三尊石佛

다음으로 奉化北枝里石造半跏像은 1965년 11월에 발견수습된 것으로 上半身이 파손되었으나 臺座와 양쪽 다리, 衣紋 등이 명확하여 彫刻의 양식 수법은 살필 수 있다. 彌勒신앙에서 나타나는 半跏像의 造成은 일찍이 三國에서 다 같이 활발하여서 오늘에 그 우수한 作例를 남기고 있으며 통일 후에도 당시 미륵신앙의 상징으로 半跏像이 造成되곤 하였다. 이 奉化半跏像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系譜를 정립시켜 주는데 더욱 중요할 것이다. 현재 腰部까지만도 1.75m로 웅장하거나와 특히 강하게 조각된 양쪽무릎과 臺座를 돌아서 깊이 새겨진 衣褶이나 좌·우 허리로부터 내려진 띠의 모습 등은 대단히 우수하며 특히 全面的 衣褶은 古式을 갖추고 있으면서 강한 힘을 보이고 있어 역시 통일의 기상이 잘 나타나 있는 직후 조성으로 추정케 한다.

제1기의 7세기를 지나 8세기에 들어 제2기의 石佛彫刻을 보면 이 시기는 聖德王과 景德王의 兩代를 정점으로 黃金時代를 이루게 된다. 즉 이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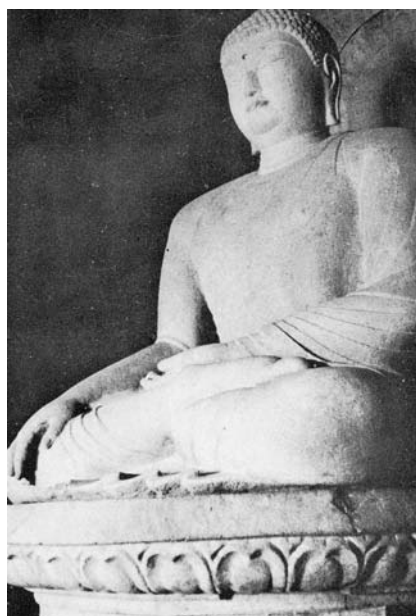


〈사진 2〉 甘山寺 石造阿彌陀佛立像

말로 원숙한 技法과 세련된 作風이 그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몇 가지의 遺蹟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우선 聖德王 18년(719)에 造成한 甘山寺의 石造阿彌陀佛立像과 石造彌勒菩薩立像은 絶代年代를 가지고 있는 石佛로 중요시 되는데 豐滿한 相好와 균정한 胴體는 익숙한 조각수법과 아울러 뛰어난 作品이다. 당당한 양 어깨와 정제된 衣紋 등은 신라적인 양식의 정립을 향하고 있음이 완연하다. 이 兩軀가 聖德王代의 대표작이라 할 때 다음 王代인 景德王代의 대표작으로는 吐含山의 石窟庵이라 하겠다.

石窟庵은 다 잘 알고 있는바 한국 최고의 石造彫刻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作品으로 최고 최대의 걸작품인 것이다. 石窟庵의 本尊如來坐像을 비롯하여 주위 벽면의 여러 보살은 곧 신라미술의 精華인 것으로 당시 신라의 國力과 예술을 이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石窟庵은 한국 石窟寺院의 完成品이며 佛・菩薩像들의 조각은 신라彫刻의 절정인 것이다.

石窟庵의 彫刻을 8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신라식의 정점으로 볼 때 이후 8세기 후반은 이 절정의 기운이 그대로 계속되어 석굴암 석불의 유형이 계속 나타났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慶州南山의 彌勒谷如來坐像, 三陵溪如來坐像 등은 역시 石窟庵의 여운을 지키고 있는 石佛들로서 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것이다.



〈사진 3〉 石窟庵 本尊如來坐像

신라의 石佛彫刻은 石窟庵의 諸石像을 頂點으로 하여 이후 점차 퇴화의 현상이 나타난다. 즉 8세기 후반까지는 그래도 盛代의 技法을 따르고 있더니 9세기에 들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달라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신라 下代라 일컫는 바로 9세기는 王權을 둘러싼 골육상쟁으로 國力이 쇠퇴해지는 증세가 보이는 시기였다.

한편 이때 새로이 들어온 禪宗이 유행하여 많은 寺刹이 地方에 건립되어 이른바 九山

禪門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石佛도 자연이 地方 山間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寺刹의 主尊佛은 智拳印을結한 毘盧舍那佛을 봉안하는 새로운 流行을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제까지 7~8세기의 彌勒, 阿彌陀, 藥師 등의 信仰에 따른 造形과는 다른 時代相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造成된 것으로 추정되는 石佛로 絶代年代 推定이 가능한 數例를 들면 桐華寺 毘盧庵石造毘盧舍那佛坐像(景文王3年頃, 863) 鷲棲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景文王7年頃, 867) 英陽蓮塘洞石造藥師如來坐像(眞聖女王 3年頃, 889) 등이라 하겠다.

이 佛像들은 9세기에 성행한 전형적인 毘盧舍那佛로 대개는 上·中·下臺로 이루어진 臺座와 光背를 구비하고 있다. 相好는 豐滿하나 耳目口鼻가 매우 작아지고 生動感이 없어 보인다. 法衣의 衣紋에 있어서도 알게 조각하고 섬약에 흘렸다. 光背에 있어서는 頭身光의 좌·우 周緣部에 많은 化佛을 배치하고 火焰紋을 장식하였으며 臺座에 있어서도 蓮花紋內를 다시 花紋으로 장식한다던가 특히 中臺石에는 雲紋속에 獅子를 彫飾하는 등 화려한 作風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浮石寺慈仁堂石佛坐像들과 醴泉靑龍寺石佛坐像들, 그리고 法住寺水晶庵石佛坐像, 昌原佛谷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등 많은 石佛이 이때를 전·후하여 造成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上·中·下臺로 구성된 臺座와 舟形擘身光背를 구비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왜소해져서 이것이 곧 당시의 전형적인 양식이고 추세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磨崖佛에 있어서도 圓刻佛에서와 같이 통일직후의 당당한 기상에서의 양식 수법이 8세기의 신라양식, 9세기의 섬약한 형식으로 변해간다.

三國期 磨崖佛은 충청남도 瑞山郡의 泰安磨崖三尊像과 雲山磨崖三尊佛像이 百濟의 秀作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新羅領域에서도 斷石山神仙寺石窟磨崖造像群과 같은 우수한 作品이 이미 造成되어 있어서 통일 직후에 있어서도 이러한 前代의 전통을 밀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새로운 外來양식을 수용하면서 서서히 신라적인 양식과 수법을 연마하기에 이르렀으니 역시 제1기에 속하는 7세기 造成의 磨崖佛에서는 古新羅의 양식이 간혹 보이면서 한편 새로운 형태가 가미되고 있는 현상이 여실히 느끼게 한다.

이 시기의 造成으로 추정되는 磨崖佛로는 경주의 西岳인 仙桃山 頂上에 있는 西岳里磨崖石佛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의 奉化郡 物野面 北枝里 磨崖如來坐像과 榮州市 可興里 磨



〈사진 4〉 慶州 西岳里磨崖石佛



〈사진 5〉 奉化 北枝里磨崖如來坐像

崖三尊佛像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렇듯 7세기의 三尊佛로 阿彌陀三尊은 이미 圓角佛에서 軍威三尊石窟內的 阿彌陀三尊의 예를 보았다. 可興里의 本尊은 큼직한 相好의 各部와 施無畏 與願印을 결한 手印과 通肩한 法衣의 두툼한 衣紋이 양쪽 팔에 걸쳐진 모습은 三國期佛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 石佛의 造成年代를 추정케 한다. 本尊의 장중한 胴體와 굵은 衣紋의 처리는 古式의 여운이 짙으나 양쪽 협시보살에서는 相好와 立像의 胴體彫刻에서 경직된 과거의 作風으로부터 벗어나 약간 부드러운 面을 보이는바 이것은 새로운 양식수용의 일면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造成年代가 다소 뒤진 것으로 추정되는 磨崖佛로 경상북도 星州郡老石洞磨崖佛이 있으며 이로부터 8세기로 향하게 되는데 이 石佛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양식을 보이며 특히 주목된다.

이와 같이 제1기인 통일직후 7세기로부터 8세기에 들어서면 聖德王과 景德王代로 신라 石佛의 원숙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기의 磨崖佛로는 吐含山 石窟庵 주위 벽의 諸像外에 慶州의 掘佛寺址 石佛像 즉 四面石佛을 그 代表로 들 수 있겠다. 이 石佛에 대해서는 三國遺事에도 기록되어 있는바 신라 全盛期의 國王인 景德王이 하루는 北嶽 山기슭의 栢栗

寺를 찾았는데 이때 땅속에서 엿볼하는 소리가 들려서 파 보니 바로 이 四面石佛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 四方佛이 이때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거니와 磨崖佛에 圓刻菩薩을 脇侍로 배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 6〉 慶州 掘佛寺址石佛像 (四面石佛)

이 石佛은 石柱形 岩石四面에 四方佛을 새겨 모두 9軀인데 7軀의 佛・菩薩像 外에 2軀의 菩薩은 圓刻像을 배치한 것이다. 이들은 磨崖佛이라 하더라도 모두 陽刻과 線刻으로 彫刻하였는데 이들의 彫刻手法 또한 다양하여 다른 遺例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적인 불상이라 하겠다. 이 石佛에서는 신라적인 것, 外來적인 것 등 실로 다양한 양식과 技法을 볼 수 있으니 역시 盛代의 폭넓은 예술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한다. 이렇듯 다양한 양식계열을 따르고 있는 磨崖佛이 바로 慶州南山의 七佛庵磨崖石佛이라 하겠으며 이때를 전・후하여 南山의 여러 골짜기에 많은 磨崖佛이 造成되어 三陵溪磨崖坐像, 神仙庵磨崖菩薩半跏像 등이 그 좋은 예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中央에서의 磨崖佛의 造成은 이후 王都 주변과 地方으로도 모범이 되어 많은 磨崖佛이 나타났으니 慶州斗垈里磨崖佛像과 桐華寺入口의 磨崖如來坐像, 八公山磨崖藥師如來坐像, 漆谷仁同磨崖如來立像, 陝川緇仁里磨崖佛立像, 南原新溪里磨崖如來坐像 등은 各地域에서의 代表作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盛代의 기풍에서는 다소 벗어나거나 혹은 벗어나려 하고 있는 이른바 8세기 후반으로부터 말기에 이르는 作風을 보이고 있어 다음 世紀의 作例를 연상케 하는 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陽刻이 弱해져서 평판적인 경향에 흘렀고 相好와 胴體의 各部가 위축되고 있으며 巨作에서 점차 왜소해지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

제3기라 일컫는 9세기에 들면서 모든 佛像은 점차 규모가 작아지고 조각 技法도 세련되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섬약에 흐르게 되는데 磨崖佛에 있어서도 통일 초기의 磨崖佛들이 모두 圓刻에 가까울 정도로 陽刻이 強하고 8세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두드러진 磨崖佛을 보이며 8세기 후반에 이르러도 다소의 低彫는 있으나 전혀 陽刻에서 벗어난 線刻은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8세기 말부터 9세기에 들면서 마침내 線彫佛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경상남도 咸安郡 郡北面의 防禦山磨崖三尊佛像은 그 초기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 磨崖佛은 造像銘文에 의하여 哀莊王 2年(801)에 造成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듯 年代가 확실하여 絶代年代를 가진 佛像으로 주목되거니와 신라의 磨崖佛이 下代에 이르러는 陽刻(혹은 浮彫)이 線刻(線彫)으로 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점에서도 또한 중요하게 고찰되는 磨崖佛이라 하겠다. 현재 慶州南山에서 三陵溪磨崖線彫佛을 비롯한 많은 線刻佛像을 볼 수 있으며 各地域에서도 적지 않은 磨崖線彫佛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新羅下代에 이르러 나타난 위와 같은 양식에 속하는 佛像들인 것이다. 近年에 새로이 조사된 충청북도 鎭川郡의 太和4年銘磨崖佛立像은 銘文에 의하여 興德王5年(830)에 造成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磨崖佛도 龕形內의 立佛로 상당한 陽刻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衣文의 표현에서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線刻을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현상은 대체적으로 통일신라의 기상과 사회적인 뒷받침이 사라지고 마침내 기력이 弱해지고 造形意志가 후퇴한 下代의 시대적 소산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사진 7〉 防禦山 磨崖佛(線彫三尊佛)

碑像에 있어서는 곧 石碑形 佛像 즉 碑形 石像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石像의 양식은 中國에서의 石像 특히 東魏와 西魏에서 비롯하여 齊나라와 周代에서 隋, 唐에 걸쳐 유행 하던 在銘石像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小形으로서 彫刻內容은 三尊 혹은 群像彫刻石과 系脈을 이을 수 있는 것이다.

韓國에서의 碑像의 調査는 그동안 전혀 없었으나 1960년 충청남도 燕岐郡 全東面多方里의 碑巖寺에서 3점의 碑像조사를 필두로 鳥致院의 瑞光庵三尊千佛碑像, 燕岐郡 西面 月河里 蓮花寺의 碑像, 公州郡 正安面 東幕洞의 三尊石像 등 모두 7점의 碑像이 조사 연구되었다.

이 가운데서 銘文이 음각되어 있어 그의 造成年代를 알 수 있는 것이 4점이 있으니 碑巖寺의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은 文武王 13年(673) 造成으로 추정하고 乙丑銘阿彌陀佛 및 諸佛菩薩石像은 神文王 9年(689)으로 추정하며 瑞光庵三尊千佛碑像은 文武王 13年(673), 蓮花寺戊寅銘四面石像은 文武王 18年(678)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3점도 이들과 같은 때로 추정되는바 그렇다면 이들 碑像은 모두 文武王 13年(673)부터 神文王 9年(689) 즉 통일직후 20年間에 걸쳐 造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들 碑像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位置가 모두 충청남도 燕岐郡

을 중심한 百濟故土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의 造成年代로 보나 그 出世의 위치로 보아 百濟 멸망후 百濟 遺民의 一群에 의하여 造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前記 4점의 碑像에는 銘文이 있어 여기에 造成年代는 물론이려니와 造像과 관계된 人物名과 官等까지 있어 樣式的으로 百濟石佛의 造成 및 통일 직후에 이르러 前代 樣式의 수용을 아울러 알 수 있는 귀중한 石佛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의 碑像은 아직까지는 이 지역에서만, 그것도 7점에서만 그쳤으므로 이들을 시발로 한 이후 碑像양식의 계승문제를 연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다른 類例가 새로이 발견·조사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사진 8〉 碑巖寺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통일신라시대의 造像中 중요한 특징은 鐵佛의 造成이다. 대체로 下代인 9세기에 이르러 鐵의 生産地와 地方豪族들을 中心으로한 九山禪門 地域에서 鐵佛을 鑄成하여 고려시대에 그 盛行을 보이게 되어 그 實例를 남기고 있거니와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발표에 기대하는 바이다.

II. 高麗時代의 佛像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도 前代와 같이 역시 佛敎가 국가적 종교, 혹은 王室佛敎로 크게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護國佛敎의인 성격은 先代에서 이 시대로 이어지면서 그대로 정착되어 國初부터 많은 국가적 사원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開京에 法王寺, 王輪

寺, 慈雲寺, 內帝釋寺, 舍那寺, 天禪寺, 新興寺, 文殊寺, 圓通寺, 地藏寺 등의 10大寺刹을 창건하였었다던가 또는 都城 안에 70구의 佛寺가 있었다는 기록은 고려가 佛敎國이었음을 연상케 하며 또한 佛寺建立의 정도도 아울러서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高麗 一代를 통하여 국가적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불교적인 모든 造營이 활발하게 성행 하였으며 이러한 성향 속에서도 그 중심을 이루는 佛像 역시 많이 造成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 많은 高麗佛像의 遺例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前代에 비하여 佛像造成이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즉, 오늘날 볼 수 있는 신라시대의 불상은 지역적으로 볼 때 대체로 慶州 부근에 밀집되어 있거나 그 밖의 佛像들도 옛날 신라의 領域이었던 嶺南地方에 주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時代相의 변혁에 因한 것으로 일반적인 추세는 王室佛敎의 입장에서 출발한 古代 佛敎가 수백 년이 지나면서 점차로 大衆化 된 결과라고 하겠다.

新羅末에서 高麗初期는 眞骨과 慶州中心의 新羅的인 체제에 항거하는 지방 세력이 크게 대두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방사회에 社會的 宗教的인 부문에서 새로운 독자적 영역을 나타내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대적 변동기를 수습하면서 등장한 新生 高麗國家는 실제로 이와 같은 지방 세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흡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九山禪門이 成立되면서 豪族들을 중심으로 순수한 地方 세력에 의한 佛寺의 造營이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 불상조성을 자극하는 護國佛敎의인 입장이나 산간 계곡으로 佛寺를 誘致했던 風水地理說의 유행, 또 地方民들의 불교적 결속을 튼튼히 해주는 舊來의 香徒조직 등이 결부되어 더욱더 불상조성의 가능성이 강해졌던 것이 아니가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고려시대의 불상은 우선 佛像彫刻의 緣由부터가 前代와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言及하였듯이 고려의 佛敎는 護國佛敎였다. 따라서 國家的 寺院의 건립이 이루어졌고 국가적 불교정책에 의하여 불교적인 造形美術의 隆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라말기에 쇠퇴하였던 불교미술에 고려건국의 새로운 활력과 무대를 주었으며

아름답고 섬세한 것에만 치우쳤던 당시의 作風을 止揚하고 巨大한 규모와 웅장한 기운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高麗初期에는 신라로부터 계승된 樣式과 造成手法위에 國力の 안정과 충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巨大하고 정연한 造形美術品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기운은 넓게 분포되어 각 지방에서도 성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3세기 중엽에 몽고족의 침입을 받게 되고 이후로 그들의 세력이 지배하던 末期까지는 초기부터 12세기까지의 융성했던 모습은 찾을 길 없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앞선 前期의 造形을 모방하여 겨우 그 양식과 수법 등을 이어 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우수한 巨作이나 볼만한 作品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몽고족의 지배 밑에서 그들의 독특한 喇嘛의 양식이 傳來되었으므로 高麗의인 美術이 활발하게 발달할 수가 없었음은 더할 말 나위 없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위에서 佛像을 볼 때, 前期에는 신라식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었음은 佛教國이었던 고려로서는 당연한 일이며 後期에 이르러서 特異한 造成手法이 유행하였던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新興 高麗國의 활기찬 初期石佛로 巨大한 灌燭寺石造彌勒菩薩立像(보물218호, 속칭 은진미륵)을 들 수 있으니 높이 18.12m의 巨像인 것이다. 造成年代를 제4대 光宗 19년(968)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역시 初期의 連山開泰寺三尊佛像(보물219호, 10세기 중엽)과 아울러 힘찬 기운이 잘 나타나 있는 作例라 하겠으며 이 巨作과 같은 類型으로 大鳥寺石造彌勒菩薩立像(보물 217호)과 禮山插橋石造菩薩立像(보물 508호)등을 들 수 있으니 이 兩石佛 역시 後期로 떨어지지 않는 11세기~12세기에 걸치는 石像으로 高麗의 初期的인 기상이 잘 나타나 보인다.

磨崖佛에 있어서도 圓刻佛과 마찬가지로 역시 前代인 新羅時代磨崖佛의 樣式을 답습하고 있으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新羅下代로부터 末期에 이르는 사이에 유행했던 小規模의 이고 線彫의 形式化된 作風과는 달리 陽刻도 強하고 立像이던 坐像이던 그 규모는 거창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高麗前期의 巨大한 磨崖佛은 대체로 各部가 大形化의 경향을 띠어서 웅장한 初期의 建國的인 기운은 잘 나타나고 있으나 그 반면에 彫刻的인 우수성이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巨軀의 胴體처리와 各部彫刻의 細密한 표현이 如意치 않았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時代의 佛像造成은 前代인 新羅時代에 比하여 보다 全國적으로 擴散分布되었던 바 이렇게 되었을 경우 王室을 중심한 王都 일대에는 물론 中央貴族이나 地方豪族들의 보호와 후원으로 되어 圓刻佛像과 磨崖佛像이 造成되어 역시 各地方에 그런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高麗時代의 石佛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美術史研究 특히 佛像研究에서 絶對年代를 가지고 있는 遺品은 그 重要性을 首位에 놓아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 그런데 近世에 이르기까지 몇 軀의 磨崖佛에 造成銘이 있어 정확한 造成年代를 알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注目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點頭되는바 이 造成銘에 보이는 絶對年代의 磨崖佛은 記銘이 없는 많은 磨崖佛의 造成年代 推定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磨崖佛자체에 銘文이 있어 造成 絶對年代를 알 수 있는 磨崖佛은 廣州校里太平二年銘磨崖藥師如來坐像(977), 利川太平興國六年銘磨崖半跏像(981), 高靈開浦洞擁熙二年銘觀音菩薩坐像(985) 등이라 하겠다.

廣州校里太平二年銘磨崖藥師如來坐像은 높이 93cm로 素髮의 머리 위에 肉髻를 얹었고 가름한 얼굴에 눈은 가늘게 떴으며 입은 작은 편으로 꼭 다물었으나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다. 귀는 큼직하고 목에는 三道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양쪽 어깨는 약간 처진 듯 둥글게 표현하였다, 法衣는 右肩編袒으로 옷깃이 한번 접혔는데 옷주름은 가는 돌출선으로 표시되어 流麗하며 사실적이다. 手印은 오른손은 들어 올려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結跏趺坐한 무릎위에서 약향아리를 들었는데 병에 시달리는 衆生을 구하려는 자비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光背는 三重圓으로 頭光과 身光을 나누었는데 주위에 火焰



〈사진 9〉廣州校里 太平二年銘
崖藥師如來坐像

紋을 조식하였다. 臺座는 四角形으로 伏蓮위에 二重臺石이 있고 그 위에 4개의 기둥으로 上座臺石을 받들고 있는데 5瓣의 仰蓮臺가 있고 각 瓣內에는 花文이 조식되어 있다. 부드러운 相好, 균형이 잡힌 몸매, 화려한 臺座등이 신라불상의 여운을 보이는 우수한 작품이다. 이 佛像의 오른쪽에 陰刻된 三行의 銘文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太平二年丁丑七月廿九日古石」 「佛左如賜乙重脩爲今上」 「皇帝萬歲願」. 이 銘文에는 특히 吏讀文이 섞여있어 주목된다. 서두에 보이는 太平二年丁丑은 中國의 三國時代인 吳의 年號로 257년, 또 梁의 年號로 557년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宋太宗의 太平興國二年丁丑(977)으로 본다. 太平興國을 「太平」으로만 부른 예는 「太平御覽」 등에도 있는데 여기의 太平二年丁丑은 고려 제5대 景宗2년(977)에 해당한다.

利川太平興國六年銘磨崖半跏像은 전체의 높이 3.2m로 경기도 利川市 麻長面 長岩里 地方道 바로 길가의 「미륵바위」라 칭하는 岩壁에 가득히 巨大한 半跏像이 조각되어 있다. 바위의 下端은 넓고 上端이 좁아들어 마치 二等邊 三角形과도 같은데 그 앞면에 半跏像을 조각하고 뒷면은 그대로 평평하며 中下部 東端 끝으로 銘文이 새겨져 있다. 바위가 東南



〈사진 10〉 利川 太平興國六年銘
磨崖半跏像

向이어서 半跏像도 東南向하였으므로 오후에는 그늘이 된다. 南面은 전체적으로 보아 뒷면보다 오히려 거친 편인데 치석한 흔적은 없다. 岩面에 그대로 조각하였으므로 一見하여 치졸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러므로 頭像에서도 相好나 半跏한 무릎부분은 岩面의 突出部를 이용하였음인지 陽刻이 강한 편이고 다른 부분은 약한 편으로 어떤 부분은 線刻에 가깝기도 하다. 화사한 蓮華座위에 半跏坐하였는데 通式과는 정반대로 오른쪽 발을 내려서 蓮華座위에 놓고 왼쪽 발은 구부려 오른쪽 무릎 쪽으로 놓은 半跏像이다. 머리에는 三山形의 寶冠을 썼는데 좌·우 上端 끝에는 금속제의 장식이 있었던 흔적으로

지금도 그 파편이 圓孔內에 고착된 채 남아있다. 正面 中央에는 立狀形으로, 葉의 單蓮이 있으며 그 중앙 一瓣內에는 작은 化佛 1軀가 조각되어 있다. 寶冠正面 밑으로 곱게 빚은 寶髮이 마치 蓮珠紋과도 같이 보이며 좌·우로는 寶髮이 흘러 양쪽 귀 부분으로 하여 어깨를 덮고 있다. 相好는 약간 비대한 편으로 양쪽 볼이 넓어져 四角形에 가까우나 그래도 원만한 상이라 하겠다. 이마는 넓으나 白毫가 없고 兩眉가 뚜렷하여 鼻樑과 연결되었는데 양쪽눈은 마멸로 正視의 여부를 분간할 수 없으며 입은 아주 작게 표현되었다. 목에는 三道가 보이지 않으며 간단한 장식이 있었던 듯하나 현재는 마멸로 뚜렷하지 않아 분간하기 어렵다. 양쪽 귀는 짧는데 耳朶의 표현이 反轉되어 흥미롭다,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 內掌하여 연줄기를 잡고 있는데 그 줄기는 어깨 쪽으로 하여 寶冠上端 가까이까지 뻗어 줄기 끝에 연봉이 맺혀있고 어깨 위쪽에서 갈려나간 한 줄기에는 연실이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왼손은 왼쪽 다리위에 편히 놓고 있는데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있다. 五指 등 좌·우 手印부분이 가장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었으며 양쪽손목의 두 줄 팔찌장식도 또한 그러하다 하겠다. 法衣는 通肩으로 양쪽 팔에 걸쳐 옆으로 퍼지면서 밑으로 흘렀는데 무릎과 양쪽발목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덮고 있으나 간소한 線彫로 처리하고 있다. 半跏하여 구부린 왼쪽무릎은 유난히도 큼직하게 표현하고 특히 왼쪽 발끝부분을 오른쪽 무릎에 걸치게 하면서 조각한 다섯발가락의 표현은 兩手印처럼 사실적이고도 인상적이다. 오른쪽 발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으나 발끝을 外向시켜 조각하여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足座는 화사한 蓮華座로 중앙에 큼직한 單葉仰蓮이 있고, 그 좌·우로 大小形의 單葉仰蓮을 돌리고 있어 그야말로 蓮華속에 두툼한 발 하나가 보이며 비대한 足部와 蓮華座가 비교된다고 하겠다. 足座옆에는 타원형과도 같은 子房部를 중심으로 下部와 좌·우 주위에 화사한 仰蓮座를 이루고 있는데 足座의 蓮華座보다 蓮瓣이 크고 二重 三重으로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 蓮華座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더욱 화사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장엄을 더하기 위한 것 같은데 蓮華의 형태를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인지는 他例와의 비교고찰, 혹은 장엄문양의 교리적인 배경 등은 앞으로 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이 半跏像에는 뒷면에 銘文이 있으므로 絶代年代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를 前後한 佛像의 年代推定에 있어서도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다. 銘文은 三行

인데 첫줄에 「太平興國六年辛巳二月三日」이라 보인다. 이것은 고려 제5대 景宗6년(981)에 해당한다.

高靈開浦洞擁熙二年銘觀音菩薩坐像은 높이 1.5m로 경상북도 高靈郡 開津面 開浦洞마을 안쪽 산기슭에 세워져 있는데 이곳이 原位置 인지는 알 수 없다. 30cm 두께의 얇은 板石에 조각하였는데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얇게 陽刻하였다. 板石을 舉身光으로 삼았음인지 윤곽에 약간의 굴곡이 표시되어 있다. 蓮華座위에 앉아 있는데 單葉의 仰蓮으로 蓮瓣끝이 예리하며 중심에 正面을 향하여 一重瓣을 두고 그 좌우로는 모두 비스듬하게 조각하였다. 머리에는 三葉식의 寶冠을 쓰고 그 중앙에 化佛 1軀가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尊名이 觀世音菩薩임을 곧 알 수 있다. 寶冠 밑에는 머리 양쪽으로 冠帶가 있어 垂飾

과 寶髮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양쪽 귀옆으로 하여 어깨 못 미쳐 멈추었다. 相好는 이마가 넓고 양쪽 볼이 약간 좁아들었으며 양쪽 눈썹과 콧등만이 뚜렷하나 눈과 입술은 분명하지 않으며 白毫孔이 큼직하게 남아있다. 양쪽 귀는 짧으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목에는 三道가 없다. 양쪽 어깨에 걸친 天衣는 線刻으로 처리하였으나 流麗하게 흘러 양쪽 무릎을 덮고 있다.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들어 外掌하였으며 손목에는 장식이 완연하다. 왼손으로는 蓮줄기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 줄기는 頭光에까지 올라가 蓮꽃을 피우고 있다. 光背는 板石 윤곽에 가득 차도록 線紋으로 陽刻하였는데 二條線으로 陽刻하여 圓形의 頭光을 이루었으며 정상에 이르러 寶珠形을 이루고 있다. 또 二條圓光 밖으로는 火焰紋을 조각하고 그 밖으로 또 하나의 圓光을 陰刻하였다. 身光은 양쪽 어깨부분으로부터 二條線을 陽刻하여 표시하였으며 그 밖으로 화염문을 장식하였다. 이 菩薩像은 전체적으로 보아 단조로운 線刻으로 陽刻의 표현도 강하지 못하여 平板의으로 균형과 조화의 정



〈사진 11〉 高靈開浦洞 擁熙二年銘
觀音菩薩坐像

교성 등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坐像 뒷면에 「雍熙二年乙酉六月二十七月」이라고 陰刻된 銘文이 있어 造成年代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雍熙二年은 高麗 제6대 成宗4년(985)에 해당하므로 高麗初期作임이 확실한데 板石이라는 小形材料에서 오는 제약 때문에 初期의 거창한 기상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三山形의 寶冠과 相好, 큼직한 白毫孔은 蓮華座와 아울러 注目을 해야 할 것이다.

巨대한 岩壁을 使用해서는 역시 初期의인 기상을 잘 나타내듯 거창한 坐像들이 彫刻되었으니 北漢山舊基里磨崖釋迦如來坐像, 月出山磨崖如來坐像, 法住寺磨崖如來倚像, 大乘寺妙寂庵磨崖如來坐像, 槐山院豐里磨崖佛坐像, 禪雲寺東佛庵磨崖如來坐像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역시 어느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北漢山舊基里磨崖釋迦如來坐像은 높이 5m로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舊基洞 僧伽寺 境內 뒤쪽 岩壁에 남쪽으로 향하여 조각되어 있는데 寶蓋와 蓮華座를 갖추고 있다. 素髮의 머리 위에는 큼직한 肉髻가 놓여 졌으며 相好는 풍만하여 四角形에 가까우며 양쪽 귀는 長大하다. 눈과 코, 입 등은 고려불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눈꼬리나 입술이 강조되지 않아서 자비로움을 풍기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있고 法衣는 右肩編袒인데 비스듬하게 널찍한 옷깃이 있고 주름은 매우 流麗하고 활달한 刻線을 보여주고 있다. 두 팔을 지나치게 옆으로 벌리고 있는데 手印은 降魔印을 취하고 있다. 무릎 밑에는 화사한 仰蓮과 伏蓮의 蓮華座를 마련하고 있다. 머리위의 寶蓋는 八角의 別石을 岩壁에 꽃았는데 下面에는 圓座를 중심으로 한 주위로 蓮華紋이 장식되어 있다.

月出山磨崖如來坐像은 높이 8.6m로 전라남도 靈岩郡 靈岩邑 會門里 月出山 서쪽 봉우리인 九井峰 정상 가깝게 있는 岩壁에 새겨져 있는 거대한 磨崖佛로서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주위의 景觀과 잘 어울려 壯觀을 이루고 있다. 해발 840m의 月出山에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佛事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지금은 建物址의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佛像은 素髮의 머리 위에 높은 肉髻가 솟아있으며 相好는 몸에 비하여 큰 편으로 四角形에 가깝다. 눈꼬리는 약간 치켜 올라갔으며 입은 굳게 다물고 있어 엄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목에는 三道가 빈약하고 특히 結跏趺坐한 다리부분은 平板的이다. 法衣는 右肩編袒으로 옷주름은 線刻으로 왼쪽 팔에 걸쳐졌는데 다리 위까지 내려져 있다. 手印은 신라 후기부터 고려 초기에 坐佛像에 많이 유행하던 降魔觸地印을 취하

고 있다. 光背는 岩壁 자체에 頭光과 身光이 陰刻되었는데 蓮華紋, 火焰紋, 唐草紋 등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臺座에는 法衣가 흘러 내려 裳懸座를 이루고 있다. 이 佛像의 오른쪽 무릎 옆으로 오른손에 物件을 들고 있는 조그만 善財童子像이 浮彫되어 있다. 이 磨崖佛은 각부에서 소홀해진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고려초기인 10세기의 巨大한 佛像彫刻의 한 유형으로 추정된다.

法住寺磨崖如來倚像은 높이 5m로 충청북도 報恩郡 內俗離面 舍乃里 法住寺 捌相殿 西쪽의 巨大한 岩壁에 조각되어 있으며 佛像 바로 앞에는 拜禮石이 있는데 倚像이어서 주목되는 불상이다. 螺髮의 머리 위에는 肉髻가 솟아있는데 마애불에서는 보기 드물게 나발이다. 相好는 둥근 편으로 큰 눈과 두꺼운 입술 등이 高麗佛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 앞에 들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여 장지를 꼬부렸고 왼손은 앞에서 수평으로 들어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있다. 下體는 화사한 蓮華座위에 앉았는데 두 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있어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倚像이다. 양쪽 다리는 상체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며 큼직한 蓮瓣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으며 양쪽 무릎에서 발끝에까지 연꽃잎이 장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불확실한 인체파악이나 세부의 졸렬한 표현



〈사진 12〉 月出山 磨崖如來坐像



〈사진 13〉 法住寺 磨崖如來倚像

등이 커다란 암석을 대한 의지에 비하면 조각술이 이에 따르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불상의 오른쪽으로 짐을 실은 말을 끄는 사람과 「말」 앞에 꿇어앉은 「소」 등을 음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곳 法住寺의 창건설화와 관계있는 岩刻畫로서 儀信祖師가 佛經을 실어 오는 모습과 소가 佛法을 구하는 전설을 나타낸 것으로서 주목된다. 相好는 원만하나 각 부의 부자연스러운 비례 등으로 미루어 11세기경의 조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大乘寺妙寂庵磨崖如來像是 높이 6m로 경상북도 聞慶郡 山北面 用頭里 妙寂庵 바로 아래쪽 山길 오른편에 병풍처럼 남향한 岩壁 동면에 거대한 마애불이 조각되어 있다. 素髮의 머리 위에 비교적 큼직한 肉髻가 놓였으며 양측으로 三枝의 草花紋이 뿔같이 뻗치고 있는 것이 異例的이다. 相好는 가름한 편이고 두 귀는 길쭉하며 細長한 두 눈은 거의 감다시피 하였으며 큼직한 입과 입술은 두툼하다. 목에는 三道가 표현되었고 法衣는 通肩이며 가슴 앞에 裙衣의 結帶가 있고 끈은 밑으로 처져 있다. 衣文은 양쪽 팔을 거쳐 무릎 밑까지 내려졌으며 陰刻線으로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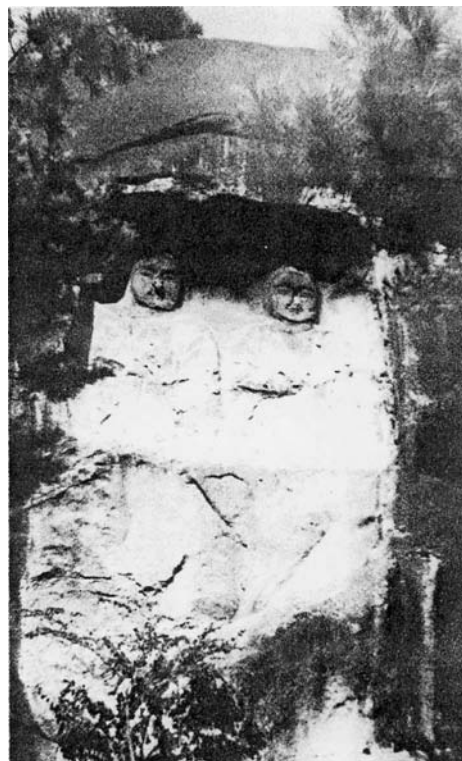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조금씩 구부리고 있다. 結跏趺坐한 무릎 위에는 두 발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무릎 밑에는 七葉의 蓮瓣이 線刻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보기 드문 大作으로 胴體는 물론이고 蓮華座의 線刻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相好의 조각수법이 특이하며 더욱이 머리위의 草花는 보기 드문 일이다. 평면적인 가슴과 각 부의 양식수법으로 보아 11세기경의 造成으로 추정된다.

槐山院豐里磨崖佛坐像是 감실높이 3.63m, 좌상높이 각 3m로 충청북도 槐山郡 延豐面 院豐里 國道邊 岩壁의 높이 약 12m의 윗부분에 마련된 龕室안에 奉安되어 있는 2軀의 佛像으로 두 像이 양식수법은 같은데 전체적으로 摩損이 심하여 분명한 형체를 알 수 없



〈사진 14〉 大乘寺 妙寂庵 磨崖如來像

다. 相好는 둥근 편으로 눈, 코, 귀, 입 등이 稚拙한나 미소를 띠고 있다. 반듯한 어깨와 빈약한 가슴 등으로 強한 陽刻은 없으며 形式化된 느낌을 준다. 특히 腰部 밑으로는 마멸이 극심하여 거의 윤곽을 알 수 없으나 왼팔은 수평으로 놓고 오른쪽 팔은 밑으로 내린 듯하다. 通肩의 法衣는 무겁고 두터운 刻法을 보이고 있으며 옷주름은 圖式化된 느낌이다. 化佛이 조각되어 있는 背景도 마손이 심하여 세부적인 표현을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二佛竝坐像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中國에서는 많이 유행하였던 樣式이다. 이 佛像의 造成年代는 相好의 모습이나 衣文 처리수법만으로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사진 15〉 槐山 院豐里 磨崖佛坐像

禪雲寺東佛庵磨崖如來坐像是 높이 13m로 전라북도 高敞郡 雅山面 三仁里 禪雲寺 境內에 있는데 現地의 전설에 의하면 「百濟의 威德王이 黔丹禪師에게 부탁하여 岩壁에 佛像을 조각하고 그 위 꼭대기에 東佛庵이란 空中樓閣을 짓게 하였다」는 巨大한 磨崖如來像이 禪雲寺 도솔암에 오르는 길 옆 岩壁에 새겨져 있다. 현재는 공중누각은 없어졌으며 前室을 지었던 흔적은 남아있다. 이 如來像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까지는 뚜렷하게 陽刻되었으나 그 밑의 下體는 분명하게 조각되어 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손모양으로 보아 坐佛임에 틀림이 없다. 머리위에는 큼직한 肉髻가 놓였으며 相好는 넓은 편으로 눈꼬리는 치켜 올라갔으며 코는 뭉뚱하고 입술은 앞으로 내밀은듯 보이는데 이마에는 백호가 있다. 어깨는 평평하고 法衣는 通肩인데 몇 자락의 옷주름이 보이며 허리에서 동여맨 裙衣의 매듭이 선명하게 보인다. 높이 13m, 폭 3m의 巨佛로 고쳐 초기에 유행하던 大形佛像임을 알 수 있는데 조각수법 등으로 보아 투박한 인상을 주고 있어 역시 12세기경으로

뒤지는 作風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磨崖立像에 있어서도 坐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역시 巨大한 岩壁을 잘 이용하여 初期的인 巨作을 彫刻하였으니 德周寺磨崖佛, 天原三台里磨崖佛, 金烏山磨崖菩薩立像, 咸陽馬川面磨崖如來立像, 洪城新耕里磨崖石佛, 三川寺址磨崖如來立像, 迦葉庵址磨崖三尊佛像, 羅州鐵川里七佛石像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德周寺磨崖佛은 높이 13m로 충청북도 堤原郡 寒水面 松界里 옛 德周寺 法堂址 뒤쪽의 巨大한 岩壁에 조각되어 있는 佛像으로 佛像의 좌우에 架構孔들이 남아있어 木造前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相好는 길고 비만한 편으로 턱이 축늘어졌으며 목은 없고 얼굴과 身部가 붙어 있으며 가슴에 三道가 나타나 있다. 입체성이 없어 평평한 身體는 線刻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는데 通肩의 法衣를 걸쳤으며 옷주름은 圖式化된 同心橢圓形을 이루었는데 이런 형식은 「牙山坪村里石造藥師如來立像」에서도 볼 수 있는 수법으로 고려시대 석불에서 가끔 보이는 양식이다. 오른손을 가슴에 들어서 손바닥을 보이며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손등을 보이고 있으며 양 옆으로 벌리고 있는 발밑으로 蓮華紋이 새겨진 臺座가 조각되어 있다. 이렇듯 비만한 얼굴과 평평한 신체표현등 조각수법에 있어서는 優作이 못되나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大形 磨崖石佛의 하나로서 불상조각양식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서 10세기경의 造成으로 추정된다.

天原三台里磨崖佛은 높이 7.1m로 충청남도 天原郡 豐歲面 三台面 泰鶴山 산봉우리 가까이 있는 巨大한 岩壁에 새겨진 커다란 佛像으로 下體는 거의 線刻인데 비하여 上體로 갈수록 뚜렷하게 浮彫되어 있다. 素髮인 머리위에 큼직한 肉髻가 솟아있고 얼굴은 풍만한데 코는 크고 입은 작아 균형을 잃고 있다. 양쪽 귀는 길어서 어깨에까지 내려졌으며 짧은 목에는 三道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발밑까지 길게 늘어졌는데 대각선으로 표현된 袈衣는 고려시대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옷주름은 어깨와 양쪽 팔에서는 직선으로 흘렀고 가슴에서 허리 밑부분은 半圓形의 곡선으로 흘러 서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袈衣자락의 끝단은 線刻으로 처리하고 있다. 佛身의 크기에 비하여 팔과 손은 작은 편으로 양손을 가슴 앞에 들어 올려서 왼손바닥을 위로 하고 오른손은 왼손 위에 올려서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을 가리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平平한 표현과 上體에 비하

여 짧은 下體, 그리고 무디고 치졸한 조각수법 등을 보이는 이 佛像은 고려시대 마애불의 양식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으며 造成年代는 10세기경으로 추정된다.

金烏山磨崖菩薩立像은 높이 5.55m로 경상북도 龜尾市 南通洞 金烏山 頂上峰 바로 밑의 岩壁에 조각되어 있는 立像으로서 像의 중심이 岩壁의 모서리에 있어 그 양 옆으로 조각한 색다른 構圖를 보이고 있다. 佛像 앞의 평평한 岱地에 주춧돌과 기와 조각들이 산란하고 암벽에도 木造架構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옛날에 寺刹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一善誌」에 의하며 普峰寺로 추정되기도 한다. 像은 오른쪽으로 약간 몸을 튼 자세로서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 天衣자락을 살짝 붙잡고 있다. 머리 위에는 三面寶冠을 썼으며 相好는 길고 원만한 편으로 눈, 코, 입 등이 整齊되었으며 목은 굽고 짧은데 가늘게 三道를 표시하고 있다. 天衣는 右肩編袒으로 線刻된 옷주름은 어깨위에서 한번 접혀진 다음에 왼팔과 허리를 감싸고 흘러 내렸는데 하반신에서는 U字形의 주름을 보이면서 부드럽게 늘어져 있다. 光背는 舟形舉身光으로 아무런 무늬가 없으며 頭光은 寶珠形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臺座는 11葉의 伏葉으로 된 單瓣蓮華紋이 조식되어 있다. 이 佛像은 相好와 胴體 등 各部의 양식수법으로 미루어 前代의 作風을 보이고 있는 10세기경의 造成으로 추정된다.

咸陽馬川面磨崖如來立像은 높이 5.8m로 경상남도 咸陽郡 馬川面 德田里 馬川 다리 건너 德田초등학교 뒷 山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머리는 마애불로서는 드문 나발이고 肉髻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相好는 풍만하며 눈은 길고 코는 크며 입은 一字로 딱 다물어서 아무런 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입가에 약간의 미소가 어린듯 하다. 귀는 길어서 어깨에 까지 닿았고 목은 짧고 三道가 있다. 通肩한 法衣는 비교적 얇게 표현되었는데 두 팔에서 가슴과 양쪽 다리로 흘러내



〈사진 16〉 咸陽 馬川面 磨崖如來立像

린 옷주름은 힘없이 처져 있다. 法衣자락 밑에는 裙衣가 보이거나 주름이 없는 圓筒形이다. 양쪽 발은 큼직하고 발끝은 앞을 향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양쪽 손은 기형적으로 작은데 手印은 오른쪽은 與願印, 왼쪽은 施無畏의 印相을 취하고 있다. 光背는 岩面에 조각되었는데 胴體의 윤곽을 따라 蓮珠紋으로 頭光과 身光을 표현하였고 그 바깥쪽으로 火焰紋이 조식되어 있다. 臺座는 발밑에 伏蓮과 그 밑에 四角形의 받침이 있다. 이 佛像은 巨作이기는 하지만 평면적인 조각수법 등으로 다소 박력이 없어 보이거나 造成年代는 11세기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洪城新耕里磨崖石佛은 높이 4m로 충청남도 洪城郡 洪化面 新耕里 龍鳳山 頂上 가까이 에 우뚝 서 있는 속칭 「노각시바위」 岩壁 南쪽 面을 佛龕 형태로 움푹하게 파서 浮彫로 새긴 如來立像이다. 머리 부분은 입체감이 있으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線이 빈약하다. 머리는 素髮로서 큼직한 肉髻는 놓였는데 相好는 길고 풍만하여 눈, 코, 귀, 입 등이 조화를 이루었고 약간 미소 짓는 표정에서 부드럽고 원만한 인사를 주고 있다. 목은 짧으나 三道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어깨는 둥글고 좁은데 通肩의 法衣를 걸쳤으며 옷주름은 線이 굵은 圓弧形으로 形式化되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가느다란 陰刻線으로 되며 臍部 밑에서 갈라지다가 무릎부근에서 準角形으로 다시 모아졌다. 手印은 오른팔은 아래로 내려서 손을 짝 펴고 있으며 왼팔은 가슴부분까지 들어 올려 손바닥을 外掌하여 施無畏印을 結하고 있다. 光背는 寶珠形으로 바위 앞면을 파서 天然光背를 이루고 있는데 光背와 身光은 희미한 陰刻線으로 표시되었다. 고려시대의 大形 磨崖石佛에서 볼 수 있는 간략하면서도 圖式化된 표현이나 미숙한 조각수법 등의 특징을 엿볼 수 있어 11세기경의 造成으로 추정된다.

三川寺址磨崖如來立像은 높이 3.02m로 서울特別市 恩平郡 津寬外洞 유원지를 지나 三川골로 올라가면 근래에 세운 三川寺가 있고 溪流邊의 병풍처럼 둘러진 거대한 岩壁에 如來立像이 새겨져 있는데 옛날 三川寺址는 이곳에서 上流를 따라 올라 가면 왼쪽 편에 있으며 그곳에는 石造龜趺도 남아있다. 佛像은 비교적 섬세하게 조각되었으며 線刻으로써 身光과 圓形頭光을 표현하였다. 素髮의 머리위에는 높직한 肉髻가 놓여있고 相好는 원만한 편으로 眉目이 곱고 양쪽 볼에는 살도 있다, 코는 오뚝하고 입술은 미소를 띠우며 다물고 있다. 양쪽 귀는 밑으로 처져 있으며 이마에는 白毫를 끼었던 구멍이 있고 목에는

三道가 표현되어 있으며 굽은 편이다. 이 대좌 앞에는 拜禮石이 마련되어 있다. 이 불상의 造成年代는 相好의 인상이나 衣文의 처리 등으로 보아 11세기경으로 추정된다.

迦葉庵址磨崖三尊佛像은 중앙본존상이 높이 2.15m로 경상남도 居昌郡 渭川面 上川里 天然洞窟의 直立岩壁에 三尊佛像을 彫刻하였는바 本尊佛은 素髮의 머리 위에 큼직한 肉髻가 놓였으며 相好는 넓은 편으로 작은 눈과 입, 그리고 크고 뭉툭한 코, 길다한 귀 등이 둔중한 느낌을 준다. 어깨는 반듯하고 平板的으로 볼륨이 없는 가슴과 곧바로 뻗은 두 다리 등이 옆으로 돌린 양쪽 발과 더



〈사진 17〉 三川寺址 磨崖如來立像

불어 形式化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속살이 보이는데 U字形的의 옷주름과 양 옆으로 길게 늘어진 옷자락 등도 역시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 手印은 上品中 生印을 취하여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서 엄지와 인지를 맞대었는데 이것으로 阿彌陀如來像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좌우 脇侍菩薩도 本尊佛과 비슷한 조각수법을 보이는데 양 옆으로 뻗은 天衣자락이나 오른손으로 옷자락을 살짝 잡고 있는 모습 등은 고려시



〈사진 18〉 迦葉庵址 磨崖三尊佛像

대의 장식성과 圖式化의 결과라고 하겠다. 이들 협시보살은 化佛이 조각된 寶冠을 쓰고 있으며 寶髮이 어깨까지 내려져 있다. 光背는 三尊 모두가 頭光만이 나타났는데 本尊은 寶珠形이며 협시보살들은 圓形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臺座는 本尊佛에는 火焰形 仰蓮座가, 협시보살에는 伏蓮座가 각각 조각되어 있다. 三尊佛의 形式과 寶珠形 光背의 양식 등은 古式을 보이고 있으나 形式化된 각부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초기인 10세기경의 造成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 같다.

羅州鐵川里七佛石像은 높이 82m~90cm로 전라남도 羅州郡 鳳凰面 鐵川里마을의 나지막한 山頂에 있는 鐵川里石佛立像(보물 462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四角에 가까운 圓錐形 바위의 측면에 새겨진 像들로서 현재는 6軀만이 남아있다. 바위 동쪽과 북쪽면에 각각 1軀씩의 坐像이 合掌하고 있고 남쪽으로 立像이 4軀가 나란히 서 있는데 조각수법은 모두가 다 비슷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원래 바위 꼭대기에 獅子像이, 그리고 서쪽 면으로 佛像이 2軀가 있었다고 하는데 서쪽에는 像을 떼어버린 흔적이 남아있다. 像들은 모두가 素髮의 머리 위에 큼직한 肉髻를 얹었는데 相好는 가름한 편이다. 法衣는 通肩으로 옷주름은 陰刻線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像들의 배치된 형태로 보아



〈사진 19〉 羅州鐵川里 七佛石像

方位佛의 성격을 띤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단지 동쪽에 있는坐像이 觸地印의 手印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四方佛의 개념에 의하여 諸尊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마애불은 빈약한 체구와 치졸한 조각수법 등 조형적으로 우수한 편은 아니나 方位佛의 형식을 갖춘 유일한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으며 造成年代는 12세기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磨崖佛에 있어서도 全體를 岩壁에 陽刻한 것이 아니고 胴體만은 岩壁에 얹은 陽刻, 혹은 線刻 등으로 표시하되 頭像만은 圓刻하여 胴體위에 올려놓은 특이한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安東泥川洞石佛立像, 公州鷄龍山陽化里磨崖佛像 등이라 하겠는데 역시 巨大한 胴體들로서 11세기경의 造成佛이다.

磨崖佛이라 하면 坐像이던 立像이던 岩壁에 陽刻, 혹은 線彫로 彫刻하는 佛像들을 말한다. 그런데 岩壁은 아니나 板石의 一面을 平平히 다듬고 佛像을 彫刻하였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도 磨崖佛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例컨대 高靈開浦洞 擁熙二年銘觀音菩薩坐像이나 江華洞岾面石造如來立像 등이라 하겠다.



〈사진 20〉 江華洞岾面石造如來立像岐

韓國의 鐵佛

최 인 선★

목 차	I. 머리말 II. 韓國 鐵佛의 分布 III. 鐵佛의 鑄造方法과 造成背景 1. 鐵佛의 鑄造 方法 2. 鐵佛의 造成 背景 IV. 韓國 鐵佛의 기록 V. 高麗時代 鐵佛의 양식적 특징 VI. 맺음말
--------	--

I. 머리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新羅 中代까지는 주로 石佛, 金銅佛, 塑造佛 등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新羅 下代 즉 9세기에 들어와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鐵을 재료로 한 鐵造佛像이 나타난다. 금동불이나 석불 등이 불교전래 후 전시기를 통해 꾸준히 조성된 사실

★ 순천대학교 인문학부

과 비교할 때 鐵佛은 그 시대적 편재와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철제라는 재료상의 혁신성에서 매우 특이하다. 우리나라에는 약 50여구의 철불이 현존하고 있으며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철불까지 합하면 70구가 넘는다.

그동안 통일신라철불은 實相寺 鐵佛坐像, 寒天寺 鐵佛坐像, 寶林寺 鐵佛坐像, 到彼岸寺 鐵佛坐像 등 4구에 불과하며 문헌기록상으로는 鳳巖寺 철불 2구와 聖住寺址 철불 등이 알려져 있었을 뿐이며, 고려시대 철불은 대체로 고려전기의 像들만 거론되어 왔다. 그리고 이 통일신라 철불들은 모두 大作이며 如來坐像이고 당시 수도인 慶州를 떠나 地方에서만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鐵佛¹⁾에 관한 논의는 다소 있었으나 鐵佛이 갖는 특성 때문인지 종합적 검토는 미진한 편이다. 鐵佛의 조성배경은 中國의 예와 같이 銅의 부족 때문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며, 또한 중국의 영향, 선승의 활동, 당시 사회의 사치에 대한 반감, 지방 호족들의 무사적 기질의 작용 등 여러 가지의 설명들이 있다. 조성배경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1차 사료인 造像記와 관련 문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야만 될 것이며, 새로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조 방법도 철불의 외상을 중심으로 살폈기 때문에 분할주조법과 밀랍주조법으로 의

1) 우리나라 철불에 관한 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葛城未治, 「寶林寺毘盧舍那佛に就いて」, 大正10年(1921년), 『朝鮮金石攷』 研究篇, 國書刊行會, 東京, 1974.
 中吉 功, 「造像銘のある新羅の鐵佛二種」, 『新羅・高麗の佛像』, 二玄社, 東京, 1971.
 田邊三郎助, 「韓國の鐵佛いつひて」, 『Museum』 303, 東京國立博物館, 1976.
 佐藤昭夫・中村由信, 『日本の鐵佛』, 小學館, 1980.
 黃壽永, 「統一新羅時代の 鐵佛」, 『考古美術』 154・155, 韓國美術史學會, 1982.
 ———, 「高麗時代の 鐵佛」, 『考古美術』 166・167.
 李仁英, 「高麗時代 鐵佛像의 考察」, 東國大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8.
 姜友邦, 「統一新羅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美術資料』 41, 1988.
 崔仁善, 「新羅下代 鐵佛에 대한 研究 - 長興 寶林寺鐵佛을 中心으로」, 『全南文化財』 5, 全羅南道, 1992.
 崔聖銀, 「廣州鐵佛坐像에 대한 考察」, 『佛教美術研究』 2, 1995.
 ———, 『철불』, 대원사, 1995.
 ———,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 美術史』 8, 1996.
 崔仁善, 「韓國 鐵佛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전이 나누어져 있다. 이 문제는 철불의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X-ray 촬영 등을 통한 분석들의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寶林寺鐵佛과 到彼岸寺鐵佛은 造像記를 가졌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實相寺鐵佛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있으나 이 불상은 원래의 양쪽 손이 복장에서 발견되어 藥師佛이 아니라 阿彌陀佛로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寒天寺鐵佛은 최근에 알려졌기 때문에 조성 시기만 9世紀로 밝혀졌을 뿐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명문이 확인된 三和寺鐵佛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발표되고 있다.

9세기는 新羅의 下代로 中代와는 달리 전제 왕권이 약화되면서 왕위쟁탈전이 치열하였고 지방 호족들이 대두하며 또한 새로운 사상 체계인 禪宗이 등장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불상은 中代 佛像과 비교하여 볼 때 양식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造像記나 관계 문헌을 가지고 있는 불상이 몇 예에 불과하여 편년 설정이 어렵다. 또한 新羅 下代의 불상은 전반적으로 쇠퇴기의 불상으로 파악하여 양식상 형식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불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사상·문화 등의 배경에 대한 시야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며, 대외관계를 통한 조각의 상호 비교 고찰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철불 연구의 쟁점 사항은 철불의 발생시기, 구조방법, 조성배경 및 편년, 지방양식의 문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II. 韓國 鐵佛의 分布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철기문화가 유입된 것은 기원전 4세기경이다. 처음에는 鍛造鐵器가 만들어지다가 점차로 鑄造鐵器가 만들어져 점점 기술이 발전하여 서기전 3세기경부터는 본격적인 철기시대로 접어들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철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최근에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나 분묘 유적에서 많은 철기들이 발굴조사되어 꾸준히 철기가 주조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철산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 土産條를 정리하여 본 결과, 전자에서는 67개 읍에서 철이 생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후자에서는 83개 읍에서 철이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철불이 있는 곳과 일치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것은 철의 산지에서 銑鐵(무쇠덩어리) 상태로 옮겨와 주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철불은 문헌에 보이는 것까지 합하면 대략 16구에 달하고 있다. 이 시기의 철불은 수도 경주에 조성되지 않고 지방에서만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북지역은 경주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예천 한천사, 문경 봉암사에서 철불이 주조되었다. 충남지역에는 보령 성주사와 예산 안락사에서 철불이 주조되었고, 강원도에서는 철원 도피안사, 동해 삼화사, 홍천 물걸리 사지에서 철불이 주조되었다. 전남·광주지역에는 장흥 보림사, 곡성 태안사, 해남 은적사, 광주 증심사에 철불이 있으며, 전북지역에는 남원 실상사에 철불이 있다. 이 가운데 현존하는 철불은 보림사, 도피안사, 삼화사, 실상사, 한천사, 은적사, 증심사 철불 등 7구에 불과하며 봉암사와 홍천 물걸리 사지 철불은 파편의 일부만 남아 있고 봉암사 철불 1구·태안사 철불 2구·성주사 철불 등은 모두 유실되고 없다. 그리고 출토지를 알 수 없는 불두가 국립중앙박물관과 日本 柏原市立歴史資料館에 있다.

대체로 이 철불들은 大像이며 如來形의 坐像이다. 그리고 실상사, 보림사, 성주사, 봉암사, 태안사 등 禪宗 사찰의 주존불로 모시고 있는 점 또한 특징이다. 그렇다 해서 선종 사원에서만 철불을 봉안하였던 것은 아니다. 88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동해 삼화사철불은 화엄종 승 결언을 중심으로 화엄경의 주존인 노사나불을 모시고 있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철불은 문헌과 일본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60여구에 넘는다. 이 철불들 역시 수도 개경을 떠나 지방 각지에서 철불이 주조되고 있다. 철불은 분할주조법으로 주조되기 때문에 같은 철불을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원주출토 철불 3구와 서산 보원사지철불, 충주출토 철불은 같은 양식으로 주조되어 동일한 주물사(鐵匠)에 의하여 주조된 철불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처럼 같은 양식의 철불들이 주조된 것 또한 큰 특징이다.

〈표 - 1〉 統一新羅 鐵佛 目錄

번호	鐵佛名	原所在地	指定	時代	높이 (cm)	現所在地
1	實相寺 鐵佛坐像	전북 남원군 산내면 가가리	보물 41호	9세기	269	實相寺 藥師殿
2	寒天寺 鐵佛坐像	경북 예천군 감천면 증거동	보물 667호	9세기	153	寒天寺
3	寶林寺 鐵佛坐像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국보 117호	858년	251	寶林寺 大寂光殿
4	到彼岸寺鐵佛坐像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국보 63호	865년	91	到彼岸寺
5	三和寺 鐵佛坐像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	보물 1292호	880년대	144	三和寺
6	隱蹟寺 鐵佛坐像	전남 해남군 마산면 장춘리	전남유형 86호	통일 신라	110	隱蹟寺 藥師殿
7	證心寺 鐵佛坐像	광주시 동구 大皇寺址	보물 131호	통일 신라	90	證心寺 毘盧殿
8	鐵造佛頭	한국	·	9세기	現高 52	日本 柏原市立資料館
9	鐵造佛頭	國·博 소장번호 新收 2064	·	9세기	現高 43,3	국립중앙박물관
10	洪川物傑里 鐵佛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결리	·	통일 신라	現高 23	중앙박물관 (철불편)
11	聖住寺 鐵佛	충남 보령시 미산면 성주리	·	850년대	·	不傳
12	泰安寺 鐵佛 2軀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	850년대	·	不傳
13	安樂寺 鐵佛	賢溪山(충남 예산)	·	860년대	丈六像	不傳
14	鳳巖寺 鐵佛 1	경북 문경시 가은면 원북리	·	881년	丈六像	不傳
15	鳳巖寺 鐵佛 2	경북 문경시 가은면 원북리	·	881년	·	不傳

III. 鐵佛의 鑄造方法과 造成背景

1. 鐵佛의 鑄造 方法

불상에 있어서 제작방법은 그 양식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불상의

재료는 金, 銀, 銅, 鐵, 나무, 돌, 흙 등을 비롯하여 陶瓷, 乾漆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鐵佛이란 재료상 철을 이용하여 주조된 불상을 말한다. 금속제작에는 鍛造와 鑄造가 있는데 단조는 금속을 달구어 반쯤 녹인 상태에서 두드려 만든 방법으로 일찌기 농기구와 무기제작에 사용되었으며, 주조는 거푸집(雌型)에 금속을 녹여 붓는 방법으로 鐵佛이나 金銅佛 등 복잡한 형태의 제작에 사용되었다. 금속재료로서 불상의 재료는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이 이용되었는데 金이나 銀은 산출량이 적어 현존작품은 불과 몇 예 밖에 없으며 대부분 동이나 철이 사용되었다.

불상의 주조기법에는 밀랍주조법(蠟型 鑄造法)과 분할주조법(削中子 鑄造法)이 있는데 밀랍 주조법은 금동불 주조에 사용되고 분할 주조법은 대형 철불구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밀랍주조법(wax casting)은 오늘날 파라핀이 아닌 密蠟 즉 밀봉에서 얻어지는 蠟에서 牛指나 나무 송진을 섞어 사용하는데 보통 흙으로 모습을 대강 만들고 그 위에 밀랍을 여러 번 발라 일정한 두께가 되면 거기에 원하는 像을 새겨 原型을 만들고 그 위에 外型土를 덮는다. 완전히 덮고 나면 숯불 따위로 열을 가해서 밀랍을 녹아 내리게 하고 그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녹인 금속을 붓고 응고한 후 안과 밖의 흙을 제거하고 주물을 꺼내 끝 마무리하여 제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일명 失蠟法이라고 하며 고대 미술주물에 많이 쓰인 주조법으로 한 개의 틀로 하나의 작품 밖에 제작할 수가 없으므로 여러 개의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방법은 완성된 표면이 매끈하여 정밀한 주물에 적합하고 소형의 像을 제작하는데 이용되었다.

분할주조법은 대형의 주물에 적합한 방법인데 주조 순서는 다음과 같다²⁾.

1. 뼈대가 되는 목심(木心)을 세우고 머리나 팔 부위를 지탱할 철심(鐵心)을 목심에 꽂아 고정시킨 뒤, 그 위에 진흙과 모래를 섞은 흙을 붙여 원형을 만든다.
2. 원형에 흙을 붙여서 외형(바깥틀)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거푸집이 된다. 외형을 만드는 흙은 모래와 점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해진 것을 부수어 체에 거른 다음, 고

2) 佐藤昭夫・中村由信, 앞 책, pp.75~82. 姜友邦, 앞 논문, pp.285~289. 최성은, 『철불』, 대원사, 1995, pp.13~17.

운 흙에는 한지를 넣고 거친 흙에는 짚을 섞어 강도를 높이는 한편 쇳물에서 나오는 가스가 잘 빠지도록 가공한다. 이렇게 만든 흙을 원형에 붙여 외형을 떠낸다.

3. 상이 복잡할 경우, 보통 외형을 여러 개로 나누어 뜬다. 원형이 여러 개의 외형으로 완전히 싸이게 되면 이것들을 원형에서 떼내어 불에 건조시키는데 이는 외형을 견고하게 하고 쇳물이 수분에 닿아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4. 상 내부가 비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물 단계에서 흙으로 내형(안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원형과 유사한 형태로 마치 원형을 한겹질 벗긴 것과 같은 모양의 내형이 필요하다.
5. 외형을 짜맞춘다. 이때 내형을 그 안으로 집어 넣는다. 내형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외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쇳물이 흘러 들어가는 탕도(湯道)가 막히지 않도록 긴 못이나 틀잡이(형지)로 외형과 내형을 고정시킨다.
6. 외형의 조각조각을 연결하는 부위는 점토를 물에 녹여서 접착시키거나 밖에서 못으로 단단히 맞춘 다음에 다시 불로 건조시킨다.
7. 쇳물이 흘러 들어가게 한다. 쇳물을 부을 때 중요한 부분이 아래에 오도록 거꾸로 세우면, 압력 때문에 실패가 적고 가스가 위로 빠져 기포가 생기지 않는다.
8. 쇳물이 식으면 외형을 나누어 완성된 상을 꺼낸다.
9. 손이나 세부 조각은 따로 주조하여 이어 붙인다.
10. 표면에 옷칠을 한 뒤 도금한다.

이렇게 완성된 철불 표면에는 약간 도드라져 나온 이음매가 종종 보이는데 이것은 외형의 이음매에 쇳물이 들어가서 생긴 자국이다. 이런 이음선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앞·뒷면이 만나는 상의 옆부분, 목부분, 전면, 배면, 팔이 몸체에 붙는 곳 등이다.

철불 표면에 이음매가 나오지 않도록 외형을 짜맞출 때 흙으로 덮기도 한다. 분할 주조법으로 만들어진 철불인데도 측면의 선 외에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동불에서는 끝손질할 때 끌로 이음매를 없애버릴 수 있으나 철불에서는 이음매를 없애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예 호분을 입혀 채색을 하거나 개금을 하여 이 부분을 가리기도 한다.

현재까지 전하는 많은 철불들에서 호분이나 금을 입혔던 흔적이 보이며, 호분이 벗겨진 지금은 이음매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광주(廣州) 철불과 같은 커다란 상은 앞면에 여러 가닥의 이음매가 드러나 있어 외형이 여러 조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銘文을刻하는 방법 역시 金銅佛과는 전혀 다르다.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과 辛卯銘金銅三尊佛의 광배에 있는 명문은 불상을 주조한 후에 음각한 기법인데 鐵佛에는 이러한 기법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외형 즉 거푸집의 내면에 음각을 해야만이 寶林寺佛像이나 到彼岸寺佛像처럼 양각의 기법이 나온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像에 명문이 올바르게 나오게 하려면 거푸집의 내면에 左行 左書해야 한다는 점이다.

金銅佛과 鐵佛의 외견상 차이점은 이음선(鑄造封接線)의 유무에 있다. 금동불에서는 外像에 이음선이라고 생각된 돌기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주조 후에 매끈하게 다듬을 수 있는 후속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납형주조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분명히 주조기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銅은 후속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끈할지 모르나 철은 1530℃ 이상에서 용해가 가능하므로 거푸집 이음선을 없애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2. 鐵佛의 造成 背景

中國은 北齊時代부터 꾸준히 鐵佛을 주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시행된 禁銅令에 의하여 銅의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中國의 경우는 銅의 절대 부족으로 경제사적인 이유 때문에 金銅佛을 주조하지 않고 鐵佛을 주조하였던 것이다³⁾.

日本의 경우 13세기에 집중적으로 鐵佛(在銘像 15軀)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당시 宋代에서 유행하고 있던 鐵佛을 日本의 승려가 보고 와서 옮겼다고 하는 宋代 鐵佛의 영향설이다. 둘째, 銅佛보다 주조하기 곤란하고 길면도 아

3) 佐藤昭夫・中村由信, 앞 책, 姜友邦, 앞 논문, p.21.

름답지 않으므로 그다지 행해지지 않았지만 재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銅佛을 대신해서 만들게 되었다는 銅代用品說이다. 셋째, 사람들은 無窮의 것을 만들려고 하였으므로 鐵이 銅보다 화재 등에 강하기 때문에 鐵에 대한 신뢰감으로 鐵佛을 조성하였다는 說 등이다⁴⁾.

이처럼 철불이 銅代用이나 鐵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보다 많은 鐵佛이 造成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설득력이 미흡하다.

우리 나라의 사정은 中國이나 日本과는 주조 시기나 내용면에 있어서 아주 다르다. 우리 나라 철불은 현존하거나 문헌상으로 볼 때 9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주조되어 高麗前期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제한된 시기에 유행하고 있다. 현존하는 9세기의 철불은 7軀에 불과하며, 모두 如來坐像이고 大作으로서 主尊으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당시 수도인 慶州地方에는 유행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서 조성되었으며 禪宗의 대두 시기와 禪宗 九山門 開山時期에 철불이 造成되었다.

鐵佛은 銅佛에 비해 표면이 거칠고 도금하기 어려우며 용융온도가 높아서 끝마무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나 미적 표현에 있어서 鐵이란 재료를 선호할 아무런 이유⁵⁾가 없는데 왜 이 시기에 위와 같은 철불이 대두하게 되었는가?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아 9세기 최초의 철불은 實相寺佛像으로 여겨진다.

新羅下代는 37代 宣德王(780~784)부터 46代 敬順王(927~935)까지를 말한다⁶⁾.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新羅왕실에 武烈王系가 아닌 방계 김씨가 등장하여 골육간의 처참한 왕위 쟁탈전을 벌여 진골 귀족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는 衡學的이고 司祭의인 교학불교의 폐단⁷⁾으로 인하여 寺院은 여러 세력들과 결합하여 사치의 도량으로 변모해 가고, 새로운 불교 사상인 禪宗이 대두하게 된다.

新羅下代의 前半期인 45代 神武王(839)까지 불과 60여년 동안 9차례의 왕위 변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5차례가 왕위를 찬탈하여 즉위하였다. 이러한 왕위 쟁탈전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강화되어 中代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였던 執事部 中待의

4) 佐藤昭夫・中村由信, 앞 책, pp.127~132.

5) 姜友邦, 앞 논문, p.20.

6)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 敬順王條.

7)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497.

권한이 약화되고 上大等の 권한이 강화되어 上大等は 마침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⁸⁾. 하지만 이 시기에 왕권과 중앙집권 체제의 재확립을 위한 몇 차례의 정치 개혁이 실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성왕대부터 흥덕왕대의 정치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元聖王은 새로운 王者의 권위를 안정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同 4年(788)에 일종의 과거제도라 할 수 있는 讀書三品科를 설치하여 운영하지만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만다⁹⁾. 이어서 哀莊王代(800~808)에도 몇가지 정치 개혁이 실시되는데 그 내용은 ① 哀莊王 6년에 公武二十餘條를 반포하고 ② 同 7년에는 敎書를 내리어 새로운 佛寺의 창건을 금지하고 오직 수리하는 것만을 허락하였으며 또한 錦繡로서 佛事하는 것과 金銀으로 器用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③ 同 9년에는 使臣을 12道에 파견하여 모든 郡邑의 강역을 분정하고 있으며 ④ 그 밖에도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중앙의 상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漢式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이 興德王 9년에 반포된 사치를 금하는 법령이다. 興德王은 敎書를 내리어 “사람에게는 上下가 있고 벼슬에는 尊卑가 있어서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르다. 그런데 풍속이 점점 각박하고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호화를 일삼고 다만 外來風의 珍奇한 것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土產物의 야비한 것을 싫어하므로 禮數(신분에 의하여 각각 다른 禮의 대우)는 위축되고 풍속이 파괴되기까지 이르렀다. 감히 舊章을 좇아 밝히는 것이니 혹 犯法하면 常形으로 다스릴 것이다¹⁰⁾.”라 하고 骨品の 준비에 따라 色服·車騎·器用·屋舍에 일일이 細目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당시에 만연된 사회풍조에 대한 금령과 귀족들의 요구에 의한 골품간의 계층구별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취지에서 발해진 것으로 보인다¹¹⁾. 이 규정들에서 대상이 된 物目은 色服·車騎·器用·屋舍의 네 분야에 모두 58종에 이르고 있는데 鐵의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옷과 수레의 장식에 있어서 진골귀족은 玉이나 金銀의 사용을 금지당하고 있으며 六頭品이하 平民에 이르기까지는 놋쇠, 철, 동을 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특히 철제품은 六頭品이하 平民에 이르는 하층민의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어 이것으로 볼 때 鐵

8)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p.128.

9) 崔炳憲, 「新羅下臺 社會의 動搖」,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438~490.

10) 『三國史記』 卷33 志 第二.

11)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情致」, 『韓國史研究』 39, p.47.

製品은 왕족이나 귀족들의 지배계층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六頭品이하 平民에 이르는 신분상 하층민의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鐵에 대한 당시 인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사치풍조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 본 哀莊王 7年(806)에 錦繡로써 佛事하는 것과 金銀으로 器用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勅을 내린 일도 있었지만, 지방 농촌의 몰락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중앙귀족사회의 사치풍조는 뒤에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이때에 다시 금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다. 王室이나 中央貴族들의 호화생활은 안으로 지방에서의 收取와 밖으로 해외무역에서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인데, 특히 下代로 오면서 더욱 빈번하여진 唐과의 교역은 귀족들에게 국산품을 경시하고 唐의 수입품은 진귀시하는 사치풍조를 더욱 조장하여 통일초기의 건실한 기풍은 퇴색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귀족들의 호화생활과 사치풍조는 이 금령이 있는 뒤에도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심하여져서 마침내 국가경제를 파탄시키고, 농민의 반란을 폭발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사치풍조의 심화는 사회기강의 해이를 가져왔고 나아가 신분제도로서의 骨品制度도 문란해져 가게 하였다¹²⁾.

興德王代의 정치개혁에 관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禪宗을 공인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禪宗전래는 三國時代末 新羅僧 法郎이 중국 禪宗 제4조 道信(580~651)의 法을 전한 이후 본격적인 전래는 9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롯되었다. 元寂禪師 道義는 선덕왕 13년(783)에 入唐하여 馬祖道一의 제자 西堂智藏(735~814)에게서 心印을 받고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하여 馬祖道一 계통의 禪(洪州宗)을 전했다. 그의 禪은 당시 文字에 의한 경전연구에 치중하던 당시의 불교계에 용납되지 못하고 ‘虛誕’ 또는 ‘魔語’라 배척되었는데 그가 귀국할 당시는 심한 기근과 賊亂이 일어나고, 이듬해에는 김헌창의 반란이 일어나 더욱 수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끝내 설악산의 陳田寺에 은둔하고 康居에게 禪을 전하고 있다. 洪陟 역시 唐의 西堂智藏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道義보다 5년 늦게 귀국하여 興德王의 후원을 얻어 同 3年 지리산에 實相寺를 개창하여 禪門九山の 효시를 이룬다.

新羅의 선승들은 禪에 접하기 전에 먼저 화엄을 공부하였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12) 崔炳憲, 앞 논문, p.456.

入唐하여 대개 南宗禪인 洪州宗에 入門했는데 洪州宗의 여러 禪宗중에서 華嚴의 性起사상과 가장 가까워 그들의 기본원리는 서로 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洪州宗과 화엄은 근본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적으로 크게 다르다. 화엄은 방대한 經論에 입각해서 五敎判・因門六義・十玄緣起・六相圖融 등의 복잡한 교리체계를 구성하고, 교화방법에 있어서도 佛・菩薩・天神들을 대상으로 신앙의례를 조직하고, 求道者(보살)에게 五十二位 修行階位를 시설하고 있다. 그러나 禪은 근본취지만을 ‘撮略’하고 ‘自心是佛’임을 믿게 하고 계급지위를 거치지 않고 頓悟本性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入唐 禪僧들의 신분을 보면 眞骨출신의 몰락이나 六頭品이하의 출신이 대부분¹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상체계가 그들의 신분에 어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禪의 이러한 화엄 부정적인 성격은 新羅下代의 현학적이고 사제적인 화엄교학을 타도할 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는데 적합했을 것이다¹⁴⁾.

지금까지 新羅下代 前半期の 여러 사회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철불 조성배경을 추출해 볼 수 있다. 먼저 下代는 中代와는 달리 무열왕계가 아닌 방계 김씨 원성왕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정치적으로 대혼란을 가져왔다. 잦은 왕위쟁탈전으로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세력이 점점 커져 갔으므로 왕권과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실시하였다. 佛事의 창건을 금지하고 호화스런 사치를 규제하였으며 각 신분간의 色服・車騎・器用・屋舍 등을 엄격히 구분해 鐵은 육두품이하 평민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9세기에는 새로운 사상 체계인 禪宗이 유입되어 불교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종은 기존의 현학적이고 사제적인 교학을 비판하는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대상의 造像은 왕실이나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크게 어필할 수 있고 사치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사회의 제반 여건에 의하여 이 시기의 금속주조물로 철조불상이 등장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철불을 주조하게 된 직접적인 조성배경을 알려 주는 사료가 있다. 보령 성주사 철불은 朗慧和尚 無染이 850년대에 문성왕의 원불로 조성하였으며, 禮山 安樂寺 철불은 지

13) 崔炳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80, pp.103~105.

14) 高翊晉, 앞 책, p.54.

증대사가 자신을 제도하여 승려가 되게 해준 故 대아찬 김계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조하였다¹⁵⁾.

봉암사 철불은 거대한 장육상을 조성하여 그 위엄으로 後患을 없애고 절을 수호하고자 조성하였다. 봉암사가 자리한 鳳巖龍谷은 희양산의 중턱에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적들이 거처하기에 알맞는 장소였다. 그래서 도현은 봉암사를 창건하면서 후환을 막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그 방비책으로 장육상의 철불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후환이란 전쟁 등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신라 하대 당시의 사회현상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수탈이라든가 기근이 겹칠 때 지방민(혹은 농민)의 도적화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바로 이들의 후환이 염려되었던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사찰들은 수도 경주를 떠나 지방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적들의 후환은 큰 걱정거리였을 것이다. 실제 봉암사는 사찰을 창건하고도 몇 년 후까지도 농민이 도적이 되어 사찰에 항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주변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 도적이 되어 절에 항거한 자들이 많아서 철불의 위엄으로써 이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장육상의 거대한 철불을 조성하였음이 분명하다¹⁶⁾.

보원사 철불은 탄문이 949년에 君子の 나라(고려)를 빛나게 하려고 석가삼존금상을 조성하였고, 이어서 955년에 光宗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다시 삼존금상을 鑄成하였다¹⁷⁾.

위의 내용들을 보면 통일신라시대 철불의 조성은 일반적인 불상들의 조성 목적과 같은 願佛이나 敎化의 目的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교화란 불교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 그 위엄으로 사찰에 항거하는 비불교도들이나 도적들을 교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철불은 호분을 바르지 않거나 개금을 하지 않으면 外像이 겹어서 그 중압감은 다른 불상들을 압도한다. 뿐만 아니라 장육상의 巨像일 경우에는 더 할 것이다. 대부분의 통일신라시대 철불이 지방의 산간벽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거상인

15)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文」(李智冠, 「譯註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文」, 『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伽山文庫, 1993, p.318.)

16) 최인선, 「한국철불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p.87~92.

17) 李智冠, 「역주 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文」, 『歷代高僧碑文』(高麗篇 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pp.86~116.

점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IV. 韓國 鐵佛의 기록

1. 寶林寺 鐵佛의 造像記

보림사 철불(높이 251cm)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번지 迦智山(509.9m) 골짜기의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보림사의 대적광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국보 1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상기는 왼쪽 팔 측면에 세로 8行, 가로 10~4字 총 69字가 해서체로 양각되어 있으며 字徑은 3cm이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¹⁸⁾.

1行 當成弗時釋迦如來入滅
2行 後一千八百八年耳 時
3行 情玉卽位第三年也
4行 大中十二年戊寅七月十
5行 七日武州長沙副官金邃
6行 宗聞奏 情 王□八月
7行 廿二日勅下令□躬作不
8行 覺勞困也

(불상을 조성할 때는 석가여래 입멸 후 1808년이다. 이때는 정왕 즉위 3년이다. 대 중 12년(현안왕 2, 858) 무인 7월 17일 무주 장사현 부관 김수종이 진주하여, 정왕은 8월 28일 칙령을 내렸는데 □ 몸소 지으시고도 피곤함을 알지 못하셨다¹⁹⁾.)

18) 黃壽永, 『韓國金石遺文』(第五版)(一志社, 1994, p.259)을 저본으로 하여 필자가 榻影하여 작성하였다.

보림사 철불 조상기 명문은 몇 자를 제외하고 거의 판독이 가능하다. 명문 가운데 1行 1字의 當은 희미하여 현재 거의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行의 9字는 대체로 此字로 보고 있으나 필자가 榻影해 본 결과 이 부분에는 글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5行 10字는 邃字 혹은 遂字로 판독하고 있는데 윗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字가 옳은지 확실하지 않는다. 6行 8字는 z字처럼 보이나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다. 7行 7字는 분명히 글자가 양각되어 있으나 희미하여 판독할 수 없다.

2. 到彼岸寺 鐵佛의 造像記

도피안사 철불의 조상기는 불상의 등(背面)에 가로 八寸, 세로 一尺三寸의 면에 세로 8行, 가로 7~20字 총 139字가 해서체로 쓰여져 있는데 7字는 판독 불능이며 字徑은 2cm이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²⁰⁾.

1行 香徒佛銘文并序
 2行 夫釋迦佛晦影歸眞遷儀越世紀世掩色不鏡三
 3行 千光歸一千八百六載耳慨斯怪斯彫此金容□
 4行 □來哲因立願之唯願卑性室遂榮惟自擊□
 5行 □覺長昏換庸鄙志契眞源怒以色莫朴□見
 6行 唐天子咸通六年乙酉正月日新羅國漢州北界
 7行 鐵員郡到彼岸寺成佛之信士□龍岳堅淸于時□

19) 金南允, 「寶林寺 毘盧遮那佛 造像記 解釋文」,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p.313.

20) 이 조상기는 다음의 금석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金煥泰說을 따랐다.

『朝鮮金石總覽』 上, pp.54~55.

葛城未治, 『朝鮮金石攷』, 大阪屋號書店, 1935, pp.241~245.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p.180~181.

金煥泰, 『三國新羅時代佛教金石文考證』, 民族社, 1992, pp.170~171.

그리고 이 명문의 榻影은 辛鍾遠, 「鐵原郡의 佛教遺蹟」, 『鐵原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原大學校博物館·鐵原郡, 1995, p.96과 p.116에 실려 있다.

8行 覓居士結緣一千五百餘人堅金石志勤不勞困

(香徒佛의 銘文과 序

석가불이 그림자를 흐려 眞源에 돌아가고 儀禮를 옮겨 세간을 넘으며 세상에 기록하여 형상을 가려 삼천대천세계에 빛을 비추지 않고 돌아가신지 1806년이 되었다. 이를 슬퍼하여 이 금상을 만들고자 ... 인하여 誓願을 세웠다. 오직 바라건데 비천한 사람들이 마침내 창과 방망이를 스스로 쳐 긴 어둠에서 깨쳐날 것이며 게으르고 추한 뜻을 바꾸어 진리의 근원에 부합하며 바라건대... 당나라 咸通 6년(865) 을유년 정월 일에 신라국 한주 북쪽 지방 철원군의 도피안사에서 불상을 이룰 때에... 이때에 거사를 찾아 1,500여 명이 인연을 맺으니 金石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써 힘드는 줄을 몰랐다²¹⁾.)

이 불상의 조상기 가운데 6行, 7行, 8行의 부분이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신라불상 가운데 조상기를 적고 있는 불상이 극소수인데 앞의 보림사불상과 같이 명문이 양각되어 있어 신라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居士 1,500명이 결연하여 이 불상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발원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부분이 불상 조성시 발원자는 단독이거나 또는 극소수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도피안사철불의 경우는 일반 신자들이 뜻을 모아 1,500여명이라는 다수가 참여하였다는데 커다란 특성이 있다. 더욱이 名門巨族이 아닌 지방의 일반 신도들이란 점에서 당시 신앙 내용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三和寺 鐵佛의 造像記

이 철불은 江原道 東海市 三和洞 176번지 頭陀山 무릉계곡 삼화사에 봉안되어 있다²²⁾.

21) 鄭炳三, 「到彼岸寺 毘盧遮那佛 造像記 解釋文」,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p.315.

22) 삼화사 철불에 대한 글은 다음과 같다.

秦弘燮, 「三和寺의 塔像」, 『考古美術』 129 · 130, 1976, pp.113~116.

崔聖銀, 『철불』, 대원사, 1995, p.68.

두손과 하반신이 파손되어 없었고 고려초기의 불상으로 알려져서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1996년 9월 20일 철불의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때에 黃壽永博士에 의해 철불의 배면 상단에서 9세기 후반에 양각된 銘文이 밝혀져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銘文은 동해문화원 주관으로 97년 6월 17일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공개 발표되었다.

삼화사는 『新增東國輿地勝覽』과 『陟州誌』에 의하면 신라말 굴산사의 개창주인 범일국사에 의하여 창건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절은 본래 동쪽 1.3km의 반릉 부근에 있었는데 사찰을 포함한 인근 지역일대가 1977년 쌍용양회 동해 공장의 채광권 내에 들어가자 무릉계곡에 있는 현재의 위치로 이진하였다. 이때 철불을 대웅전의 서쪽 조그마한 堂宇에 봉안하였는데 시멘트 대좌 위에 철불을 올려 놓고 유실된 양손 부분에도 시멘트를 발랐으며 좌측 팔부분과 배면의 파손 부위에도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이처럼 철불은 전체적으로 시멘트에 둘러쌓여 있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다행히 사찰측에서 1996년에 관계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철불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곧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철불에서 시멘트를 떼어내고 밖으로 불상을 옮기자 배면에서 명문이 발견되었고 많은 부분이 유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파손되어 유실된 부분은 하체의 대부분, 왼쪽 어깨 뒷부분, 오른쪽 팔목 밑부분 등이었다. 다행히 배면 우측 하단부 즉 오른쪽 엉덩이 일부분이 끝까지 남아 있어서 이 철불이 좌상인 점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왼쪽 무릎 뒤에서 엉덩이 조금 못미친 곳까지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하체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 철불의 보수와 복원은 이렇게 유실된 부분을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시 만들어 이어서 완성하였다. 대좌는 이미 유실되고 없었는데 도피안사 철불의 대좌를 참고하여 새롭게 철대좌를 마련하였고, 광배 역시 새롭게 나무로 만들어 철불을 완전히 보수하고 복원을 완성하였다.

方東仁・李昇哲, 「東海市の 佛教文化遺蹟」, 『東海市の 歴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東海市, 1996, 249~251.

黃壽永, 「三和寺의 新羅鐵佛坐像의 背刻銘記」, 『한국 문화유산의 위상 제고 - 삼화사 철불과 삼층석탑을 중심으로 -』, 동해문화원, 1997, pp.19~24.

鄭永鎬, 「三和寺 鐵佛과 三層石塔의 佛教美術史的照明」, 『한국 문화유산의 위상 제고 - 삼화사 철불과 삼층석탑을 중심으로 -』, 동해문화원, 1997, pp.25~49.

崔仁善, 「韓國 鐵佛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삼화사 철불의 명문은 불상의 등(背面)에 세로 10行, 가로 10~17字 총 161字가 해서체로 左書되어 있다. 명문은 세로 34cm, 가로 22.7cm 크기의 구획선 안에 있으며 각 행 사이에는 界線이 있다. 총 161字 가운데 1행 1字~6字, 2行 1字~5字, 3行 1字~4字 등 15字가 있을 부분 즉 좌측 어깨쪽 부분은 유실되고 없으며, 4行 1字~2字, 8行 1字, 9行 1字, 10行 1字~2字 등 6字는 철불 주조 당시에 뭉개져서 판독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명문은 양각이 뚜렷하여 판독이 가능하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²³⁾.

1行 ■■■■■■國人云踈勒又青丘時云新
 2行 ■■■■■■迦佛末法三百余年成佛時國
 3行 ■■■■■■王願由決盡教華嚴業決言太
 4行 □□白伯出釋氏乘炬發心旦越釋氏聽默
 5行 可氏僧道初ホ上首十方旦越同心同願盧
 6行 舍那佛成大志由盧舍那佛大願力由故當
 7行 來下生弥勒尊此處華嚴經說此大因緣由
 8行 □切劫出現佛每此處華嚴大不識儀經
 9行 □一時成發心旦越父體虛母念法作
 10行 □□見勤作沙弥金解善行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철불의 조성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決言²⁴⁾을 太대德이라 한 점으로 보아 그의 활동시기 후반이 880년대이므로 바로 이 시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佛像의 尊名은 盧舍那佛이며, 이의 所依經典은 華嚴經과 華嚴大不識儀經으로 곧 화엄경의 주존불로 봉안하였다. 발원자는 당대의 명승대덕인 결언과 僧俗이 모두 참가하여 十方旦越이라 하였으며, 실제 시주자는 끝에 나오는 沙弥 金解善과 그의 부모 體虛와 念法이며, 이들이 發心을 이루어 同心同願으로 조성하였다고 보여진다.

23) 黃壽永, 앞의 논문, pp.19~24.

24)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pp.72~73.

4. 鳳巖寺 鐵佛의 기록

봉암사는 경북 문경군 가은면 원북리에 있는 절로 禪宗九山門 가운데 曦陽山門의 본산이다. 이 절은 881년 智證大師 道憲(824~882)이 창건하였는데 지증대사 비문에 의하면 현강왕대에 沈忠이라는 신도의 청으로 堂宇를 건립하고 철불 2구를 주조하였다고 한다.

“... 防後爲基 起瓦簷四注以厭之 鑄鐵像二軀以衛之...”(「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5. 聖住寺 鐵佛의 기록

성주사 철불은 일제시대에 파괴되었던 것으로 口傳되고 있다. 1960년대 당시 寺址의 마을에 살고 있던 한 古老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일합방 무렵 日人에 의해 鴻山 方面으로 반출되었으며 크기는 성인이 불상 무릎 위에 서서 겨우 귀를 손으로 만질 정도의 大佛이었다고 한다²⁵⁾.

850년대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 金立之撰 聖住寺事蹟碑에 ‘租稻充入鑄像工價魏昕伊濱’라고 한 鑄像이 바로 이 철불을 일컫는 것이라고 추정되며, 「崇巖山聖住寺事蹟」에 ‘毘盧遮那佛一大尊像 三千佛相安于三千佛殿 ... 乃文聖大王造成願佛也’라 하여 이 철불의 尊名이 비로차나불이었으며 문성왕의 願佛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泰安寺 鐵佛의 기록

『桐裡山泰安寺事蹟(全)』 第二編 建物 第四章 片史에 철불 2구가 있다는 다음 기록²⁶⁾이

25) 李殷昌, 「忠南 散逸文化財 - 聖住寺金屬佛・普願寺石塔金屬相輪・伽倻寺石塔 기타」(『考古美術』 9卷 2號(통권 91호), 1968, p.378.

26) 『泰安寺誌』,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7, pp.113~114.

있다.

高麗太祖二十有年頃廣慈禪師重創當時佛像間閣
金堂一間排回丁向 … 堂主藥師如來鐵造坐像高四尺六寸 內壁畫大梵帝釋四方天王十大
弟子 外壁畫五十五知識並立像 食堂三間丁向 … 堂主藥師鐵造丁向坐像高三尺三寸左右補
處無

7. 安樂寺 鐵佛

현재산 안락사에 장육상의 거대한 철불이 咸通 5年(경문왕 4, 864)과 8年(경문왕 7, 867) 사이에 조성되었다. 지증대사가 경문왕의 누이인 단의옹주의 청으로 안락사에 옮겨와 그를 제도하여 승려가 되게 해준 왕손 故 대아찬 김계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철불을 주조하고 金을 입혀서 안락사의 법당에 봉안하였다는 내용이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文」²⁷⁾에 있다.

V. 高麗時代 鐵佛의 양식적 특징

고려시대에 조성되었던 철불은 양식상으로 볼 때 고려 전기·중기·후기 등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고려 전기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된 철불들이 압도적

27) 이 비문은 다음의 금석문집에 실려 있다.

『朝鮮金石總覽』上(亞細亞文化社 影印本), p.93, 『海東金石苑』上(前面만 수록), 『韓國金石全文』古代篇,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卷(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1992), 『三國新羅時代佛教金石文考證』(民族社, 1992), 『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伽山文庫, 1993).

으로 많으며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철불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철불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철광산의 분포지가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부지방의 고려 전기 철불들에 대해서는 이미 崔聖銀 교수에 의해서 그 양식적 계보²⁸⁾가 세워졌으므로 이를 따르기로 하겠다.

1. 廣州鐵佛 계열

나말려초의 불상 가운데는 석굴암 본존불의 형식을 따라 우견편단식으로 袈裟를 입고, 降魔觸地印의 手印을 結하며, 대의깃이 넓은 띠처럼 표현된 상들이 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廣州鐵佛坐像과 현존하지 않는 舍那寺철불좌상 등이 이 계열에 속한다.

廣州철불은 고려시대의 철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상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舊 광주군 하사창리)의 절터에서 서울로 옮겨온 뒤 코와 양 손, 팔, 귓볼, 가슴 부분 등이 보수 되었으므로 현재의 佛顔은 원래 모습과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신은 장대한 편이며 가슴의 양감은 허리가 잘숙하여 풍만감이 엿보인다. 법의는 우견편단이고 아주 얇으며 大衣의 끝단이 넓은 띠주름으로 표현되었다. 법의의 옷주름은 예리하고 도드라지게 조각되어 생동감을 주나 상당히 관념적이며, 상체에 비해 무릎 부분의 의문처리는 거의 선각에 가까운 형식에 그쳤다. 결가부좌한 다리 밑으로 부채꼴의 衣端이 접혀진 모양은 석굴암 본존상과 같은 형식이다. 手印은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다. 어깨선은 거의 직각을 이루며 무릎은 낮은 편이다.

이 철불은 장대한 불신의 비례와 항마촉지인의 수인, 편단우견의 大衣의 모습과 주름 등에서 석굴암 본존상과 같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양식을 재현한 듯 하나 허리가 급격히

28) 崔聖銀,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 美術史』 8, 1996, pp. 21~35.

가늘어지는 부자연스러운 조형감과 짧은 尊顏의 표현에서 신생 고려의 새로운 양식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지니치게 긴 일직선인 눈, 예리한 눈썹, 날카로운 콧등, 작은 입술의 윤곽과 선각에 가까운 하체의 의문처리 등 추상적 경향은 이 불상의 한계점이기도 하며 또한 조성시기가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도 웅변해 주고 있다.

9세기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경 봉암사의 철불좌상은 파괴되어 현재 전하지 않지만 1935년에 작성된 봉암사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우견편단한 대의의 깃이 넓은 띠처럼 표현된 점과 항마촉지인의 수인 등에서 기본적으로 석굴암 본존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좁은 콧날과 작은 입, 통통한 얼굴, 우람한 어깨의 장대한 체구는 뒤에서 살펴 볼 전보원사지 철불의 불신이 보여주는 장대함과 통한다. 이 불상이 봉안되었던 봉암사는 경주귀족들의 후원을 받았던 도현에 의해 개창된 曦陽山禪門派의 本山이었으므로 중앙의 조각가 그룹이 불상 조성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보원사지 철불좌상은 석굴암 본존상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고, 장대한 체구, 전체적으로 이상화된 분위기, 유려한 옷주름(翻派式衣紋) 등 중대 신라적 요소가 다분히 느껴지는 상인데 유난히 존안의 표정이 밝고 명랑하며 작은 입과 짧은 인중, 폭이 좁은 코의 여성적인 佛顏을 지녔고 비례면에서 佛身에 비해 頭部가 작고, 팔과 다리의 量感이 과도한 편이어서 복고적인 경향을 보이는 고려 초기의 조각으로 생각된다. 특히 상호 표현에서 보이는 청년같은 명랑한 분위기와 여성적인 작은 입과 짧은 인중, 좁은 콧날 등은 보수하기 이전의 광주철불 顏面과 상당히 유사하여 이 철불들을 제작한 조각가 그룹간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한천사철불이나 영천 선원동 철불에서 보이는 신라말 경주지역의 불상양식과 신라말의 봉암사와 전보원사지철불에서 재현된 석굴암본존상 형식이 광주철불에서 계승되고 있는 점은 광주철불의 양식이 당시 경주지역에서 유행하던 불상양식에서 비롯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신라지역에서 활동하던 조각가들이 중부지역으로 무대를 옮겨 활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광주철불 계열의 불상양식은 중부지역에서 다소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불상이 사나사 철불이다. 사나사철불은 광주철불과 양식적인 면에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얼굴의 세부표현이 좀더 여성적이고 옷주름의 표현도 유려하며, 광주철

불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강인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왼팔 위에 새겨진 넓게 움기된 옷주름은 다른 광주철불 계열의 불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傳寂照寺址출토 철불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나사철불이 傳寂照寺址 철불양식의 영향을 함께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 傳 寂照寺址 철불좌상 계열

이 계열에 들 수 있는 철불은 傳 寂照寺址 철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하며 鐵造佛頭, 포천출토 철불좌상, 萬奇寺 철불좌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둥글고 온화하며 독특한 상호의 표현과 착의형식, 右肩偏袒한 大衣의 깃이 왼편 어깨에서 反轉되는 점, 항마촉지인의 手印, 대의의 물결식 衣紋 등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어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개성박물관에 있는 傳寂照寺址 철불좌상은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평촌동 廢寺址에서 발견된 상이다. 이 절터가 일제시대에는 寂照寺址로 추정되었으나 이곳에서 淸泰 4년(937)의 碑銘後記가 있는 了悟禪師 順之의 碑片이 발견되어 지금은 王建의 家系와 관계가 깊었던 순지가 머물렀던 五冠山 龍岩寺로 추정되고 있으며²⁹⁾, 이 철불은 용암사에 봉안되었던 고려초기의 불상이라고 여겨진다. 철불의 안면은 가름하고 양뺨은 통통하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소년처럼 밝고 생기가 넘치는 명랑한 모습인데, 대의는 우견편단식으로 표현되었고 大衣의 어깨와 가슴부분에 물결무늬의 옷주름이 새겨져 있으며 발목 윗부분에 옷자락이 뒤집혀져 주름을 이루고 있다. 대좌는 지대석까지 완전하고 중대에는 나팔려초에 유행하기 시작한 龍의 모티프가 새겨져 있는 점이 흥미롭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제불두의 顔面도 傳 寂照寺址철불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 철불두는 둥글고 온화한 얼굴에 미소띤 작은 입의 모양, 길게 수평으로 새겨진 눈, 통통한 뺨 등에서 寂照寺址철불좌상과 유사한 조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29) 高裕燮, 『開成博物館 陳列品解説』, 『韓國美術史 及 美學論叢』;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開豐郡 33項.

소장된 신라하대 9세기경의 철불두들과 비교해 보면, 다소 딱딱해지고, 인간적인 부드러움이 줄어든 느낌을 주어 조성시기나 지역적인 차이 외에도 조각가나 시대적 미감의 변화가 감지된다.

위에서 살펴 본 전 적조사지철불 계열의 양식은 942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 만기사철불좌상에서 다소 퇴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⁰⁾. 만기사철불좌상은 두껍게 도금되어 원래 불안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견편단의 法衣 옷주름이 왼쪽 어깨에서 반전되고 하체의 원편 무릎에 새겨진 옷주름이 아래에서 위로 활모양으로 올라오는 점에서 적조사철불과 일치하고 있다. 흥미있는 점은 만기사의 경우에 상체의 대의깃이 넓은 띠주름과 반전형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광주철불 계열과 적조사철불계열 사이의 도상혼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적조사지철불계열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포천출토 철불좌상으로 적조사상계열처럼 상호의 표정이 밝지 않고 좌폭이 매우 넓은 長身形의 불상이지만 대의 옷주름 표현에서 물결문이 나타나고 우견편단한 대의가 반전되었으며 발목에서도 옷단이 뒤집혀져 있는 등, 표현상의 특징이 일치하고 있어서 양식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지닌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몇 구의 철불들과 불두는 靑龍寺석불좌상이나 淸涼寺석불좌상과 같은 통통하고 둥근 형태의 여성적인 佛顔을 지닌 일부 9세기 불상들의 양식에, 9세기말 무렵에 유행하기 시작한 장신형의 불신이 더해졌고, 나말여초 불상의 밝고 활기찬 표정이 가미된 복합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 9세기 양식이 새롭게 양식적 진전을 이루었음을 알려준다.

3. 原州철불 계열

고려초기의 여러 철불들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 출토하였고 양식적인 유사성을 보여주는 상들로 원주출토 철불상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강원도 원주군 本部面 邑玉坪(현 원주시 학성동 일대)에서 1916년경에 서울로 옮겨진 세 구의 철불들은 거의 동일한 양식

30) 萬奇寺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Ⅱ, 「진위현」 불우조 p.200에 만기사가 無鳳山에 있다고 쓰여있다. ;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p.524.

을 보이고 있다. 이 철불들은 나발이 발달하였고 육계는 낮은 편이며, 턱이 짧고 하악골이 발달한 사각형의 상호에 수평으로 긴 눈, 콧날이 좁고 입술은 얇고 입꼬리가 가볍게 올라가 잔잔한 미소를 느끼게 한다. 날카롭게 흠을 판 듯한 도식적인 옷주름 표현에서도 서로 일치하며, 제작과정에서 목아래 삼도 밑과 허리아래 부분, 팔목 윗부분에서 外型을 이은 것도 같다. 주목되는 공통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는 왼팔이 접히는 부분에 리본형태의 주름이 보이는 것으로서 이 불상들이 같은 工房에서 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원주출토 철불들은 광주철불에서처럼 항마촉지인을 結하고 어깨도 장대하게 벌어졌으며 대의를 우견편단식으로 입었고 결가부좌한 다리의 중앙에 옷자락이 부채꼴 모양으로 모여 있다. 그러나 이 철불들의 대의는 몸에 완전히 달라붙은 듯이 얇게 표현되었고 대의 깃이 왼편 어깨에서 반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尊顏의 모습도 前述한 바와 같이 광주철불과는 다르다. 원주출토 철불상들은 독특한 웃음을 띤 인간적인 얼굴과 도식화된 옷주름, 상반신의 괴체감 때문에 ‘到彼岸寺風’을 계승하는 ‘末期新羅派’로 분류되기도 하였다³¹⁾. 철원 도피안사상과의 연결은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며 9세기경 이후 신라불교조각의 토착화와 불교신앙이 지방화 과정에서 광대뼈가 나온 네모진 형태의 한국인 특유의 얼굴형을 한 불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³²⁾. 한 例로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국립박물관 금동불입상³³⁾의 네모진 얼굴과 가늘고 수평으로 긴 눈, 좁은 콧날, 가는 입술선 등의 안면 표현은 원주지방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위의 원주지방 철불들과 아주 흡사한 상으로 普願寺址 철불을 들 수 있다. 이 철불은 257cm의 거대한 불상으로서 瑞山 보원사지에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것인데 고려초에 활약했던 화엄종 승려 坦文의 發願으로 조성되었다. 「法印國師寶勝塔碑」(978)에 의하면 탄문은 광종이 태어나기 전부터 왕건과 광종의 외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31) 金元龍, 『韓國 古美術의 理解』, pp.85~86.

32) 金理那, 「한국의 고대(삼국·통일신라) 조각과 미의식」,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연구원, 1984, pp.85~86. ; 同著,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p.31.

33) 金理那, 앞글, p.98의 圖 23.

광종이 즉위하자 왕의 만수무강을 위해 석가삼존상을 주조했는데 이 불상이 바로 보원사지 철불좌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⁴⁾.

VI. 맺음말

中國에 있어서 鐵佛은 이미 唐 이전에 등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統一新羅 후기 즉 9세기에 들어와서 제작되고 있다. 화강암이 풍부한 우리나라에는 石佛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統一新羅 時代 역시 재료상 구하기 쉬운 石佛을 많이 만들었다. 불상의 재료로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은·동·돌·나무 등이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불상은 삼국 시대부터 꾸준히 조성되었으며, 9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여건에 의하여 주조하기 쉽지 않은 鐵을 이용한 불상이 등장한다. 이것으로 보아 鐵佛의 등장은 우선 재료상의 폭을 넓혔다는 점과 주조 기술의 발전이란 점에서 하나의 특징을 이룬다.

우리나라 철불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것이 대략 75구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북한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물은 개성박물관에 있는 전 적조사지 철불 뿐이고, 문헌에 함주 성사철불과 창성 철미륵상만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철불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은 중부지방이며, 통일신라시대 철불은 모두 16구가 알려져 있으나 호남지방에만 7구가 있어 시기별 분포상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통일신라 시기의 鐵佛은 모두 大作이며 如來形 坐像이란 점에서 도상적 특징이 있으며 지방의 禪宗寺刹에 많이 봉안되고 있다. 8세기에 번창했던 화엄의 교세는 9세기 초를 지

34) 姜友邦, 「統一新羅 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 忠南 瑞山郡 雲山面 鐵佛坐像과 雲山面 普願寺址丈六鐵佛坐像을 중심으로 -」, 『美術資料』 41, 1988, pp.1~31.

나면서 禪宗의 흥기와 함께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禪宗의 전래는 821년 迦智山派의 개조인 道義가 귀국한 때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모토로 한 선종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절대 왕권을 부인하고 교학 불교에 도전하는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 귀족들의 부패와 과중한 수취에 시달리고 잦은 전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서민 대중에게 어려운 경전의 문구에 매달리지 않고 心傳만으로 불법을 전수하는 禪宗은 대단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禪宗은 지방의 호족들과 연결되고 서민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향촌 사회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변잡한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以心傳心으로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 예배 대상물은 如來佛이었을 것이며, 大作으로 조성하므로써 佛(부처님, 如來)에 대한 신앙심을 더욱 높여 주고자 했을 것이다.

당시 수도인 경주에는 鐵佛이 한 점도 남아 있지 않고 문헌 기록에도 조상 例가 없으며 불교문화의 중심지인 경주 지방을 벗어나 오히려 지방에만 철불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興德王 9年(834)에 사치 풍조의 금지와 骨品간의 계층 구별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色服, 車騎, 器用, 屋舍의 네 분야에 대한 규정을 반포하였다. 이 규정에 鐵의 주요 사용 계층이 나타나는데 철은 주로 육두품 이하 서민층이 사용하였다. 중국 문헌에도 ‘鐘 주조시 銅은 上等으로 하고 鐵은 下等으로 한다’든지 ‘鑄鐵에 있어서 鐵錢은 그 질이 천하다’고 평하고 있다³⁵⁾. 당시 鐵은 농기구나 마구류 혹은 무기류의 제작에 사용되었고, 위와 같은 평가들이 내재되어 있어 新羅 왕실이나 귀족 계층은 철을 주조 재료로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애장왕대와 흥덕왕대의 사치를 금하는 법령은 金銅佛 등의 화사한 불상을 만드는 것을 규제하였다. 또한 선종의 대두로 말미암아 각 지방에는 많은 사찰이 창건되었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불교의 전파는 확산되었다. 寶林寺 鐵佛은 육두품에 속하였던 金叢宗에 의하여 주조되었고 到彼岸寺 鐵佛은 명문대로 1,500여명의 일반 백성들이 결사를 하여 불상을 주조하였으며 三和寺 鐵佛 역시 중앙정권과는 거리가 먼 일반 백성들에 의하여 주조되었다. 이와 같이 철불의 조성은 대체로 왕실이나 귀족 계층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오히려 육두품 이하 일반 民들과 더욱 밀

35) 宋應星, 『天工開物』中卷 冶鐵 卷八, 中華民國中和書局刊, 1971.; 이인영, 앞 논문, p.6에서 재인용.

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사회상이나 남아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왕실이나 귀족계층은 투박하고 질감이 좋지 못한 鐵에 대해서 하층민들이나 사용하는 재료로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방의 산간벽지에 절을 창건하면서 법당의 주존불로 대형 철불을 조성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문경 봉암사철불에서 알 수 있다. 지증대사도현은 희양산의 중턱에 봉암사를 창건하면서 절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도적들의 후환이 가장 두려워 이 후환을 막기 위해 거대한 장육상의 철불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이유들 때문에 철불이 지방에서 많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철불 뿐만 아니라 9세기에는 佛像, 石塔, 浮屠 등 불교 조형물이 新羅 中代와는 달리 각 지방에서 조성되고 있다. 이는 당시 수도에 집중되고 있던 문화를 각 지방에 확산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어서 그만큼 지방문화의 수준을 높여 중앙 문화와의 격차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鐵佛의 주조방법은 밀랍(蠟型) 주조법이 아니라 분할(削中子)주조법이었으며, 외형에 보인 중형의 주조봉접선(이음선)은 여러 부분을 따로 주조하여 이은 땀질자국이 아니라 거꾸집(外型)을 조립한 사이에 미세한 틈으로 용철이 흘러들어간 자국이다.

鐵佛을 비롯한 9世紀의 佛像樣式은 新羅中代와는 양식상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高麗 佛像으로 이어져 간다. 佛像의 相好는 統一新羅 절정기에 보인 팽만감이라든가 이상적 사실감이 사라지고 보다 현실의 인간상에 가까운 현실주의로 변하고, 신체와 옷주름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려전기에는 많은 철불들이 조성되는데 양식적 특징으로 통일신라 전성기의 불상을 그대로 모방하여 주조한 복고풍의 철불이 유행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광주 철불, 전 보원사지 철불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가지의 주류는 신라하대를 지나 고려시대로 넘어 오면서 전대의 양식을 이어받았으나 그래도 고려적인 양식의 불상 등장을 들 수 있다. 이 불상들은 지방유파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계열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廣州철불 계열, 전 적조사지철불 계열, 원주출토 철불계열, 충주철불 계열 등이다. 이 가운데 원주출토 철불들이나 충주출토 철불들은 거의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같은 장인들이 참여하여 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후기에는 소위 단아양식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불상과 원의 영향을 받은 외래양식의 불상들이 조성되는데 철불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姜友邦, 「統一新羅 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 忠南 瑞山郡 雲山面 鐵佛坐像과 雲山面 普願寺址丈六鐵佛坐像을 중심으로 -」, 『美術資料』 41, 1988.
- 今西龍, 「到彼岸寺佛像調査記」,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70.
- 金南允, 「寶林寺 毘盧遮那佛 造像記 解釋文」,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改革情致」, 『韓國史研究』 39.
- 金理那, 「證心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 『國寶』 2(黃壽永編著), 1984.
- , 「한국의 고대(삼국·통일신라) 조각과 미의식」,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연구원, 1984.
- , 「新羅 甘山寺如來式 佛像의 衣文과 日本佛像과의 關係」(『韓國古代 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 ,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 坐像」, 『韓國古代 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 金哲俊, 「新羅 貴族勢力의 基盤」, 『韓國古代社會史研究』, 知識產業社, 1984.
- 金和永, 「韓國佛像臺座形式의 研究」, 『史學志』 4輯, 1970.
- 文明大, 「聖住寺址實測調査 - 聖住寺址第一次調査」, 『佛教美術』 2, 1974.
- , 「新羅下代 毘盧舍那佛像彫刻의 研究(1)·(2)」, 『美術資料』 21·22, 1978.
-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 李殷昌, 「長谷寺 鐵造如來坐像 調査報告」, 『歷史教育』 7輯, 1963.
- , 「忠南 散逸文化財 - 聖住寺金屬佛·普願寺石塔金屬相輪·伽倻寺石塔 기타」, 『考古美術』 9卷 2號(통권 91호), 1968.
- 李仁英, 「高麗時代 鐵佛像의 考察」, 『美術史學報』 2, 1989.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高麗篇 1·2·3, 伽山文庫, 1994.
- 全北大學校博物館, 『용암리사지 發掘調査報告書』, 任實郡·全北大學校博物館, 1994.
- 鄭求福, 「南原 萬福寺址 第一次 發掘略報」, 『古文化』 18, 1980.

- 鄭炳三, 「到彼岸寺 毘盧遮那佛 造像記 解釋文」,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 鄭永鎬, 「鐵佛頭 二例」, 『考古美術』 2卷10號(통권 15호), 1961.
- , 「南原 禪院寺의 鐵佛坐像」, 『考古美術』 5卷 5號(통권 46호), 1964.
- , 「永川 仙源洞 鐵佛坐像」, 『考古學報』 9권 2호(통권 91號), 1968.
- , 「海南 隱蹟寺의 遺蹟 遺物」, 『文化財』 13, 1980.
- , 「三和寺 鐵佛과 三層石塔의 佛教美術史의 照明」, 『한국 문화유산의 위상 제고 - 삼화사 철불과 삼층석탑을 중심으로 -』, 동해문화원, 1997.
- 秦弘燮, 「三和寺의 塔像」, 『考古美術』 129・130, 1976.
- , 「雁鴨池出土 金銅板佛」, 『考古美術』 154・155, 1982.
- 車長燮, 「高麗 初期 佛像研究 - 강원도 동해시 池香寺 鐵佛을 중심으로」, 『三陟工專論文集』 22집, 1989.
- 蔡雄錫, 「高麗時代香徒의 社會的 性格과 變化」, 『國史館論叢』 2, 1989.
- 崔炳憲, 「羅末麗初 道詵의 生涯와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 11, 1975.
- , 「新羅末下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1978.
- ,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80.
- 崔聖銀, 「後百濟地域 佛教彫刻 研究」, 『美術史學研究』 204.
- ,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研究」, 『佛教美術研究』 2, 1995.
- , 『철불』, 대원사, 1995.
- ,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 美術史』 8, 1996.
- 崔完秀, 「髻珠考」, 『美術資料』 15輯, 1971.
- 崔仁善, 「新羅下代 鐵佛에 대한 研究 - 長興 寶林寺鐵佛을 中心으로」, 『全南文化財』 5, 全羅南道, 1992.
- , 『迦智山 寶林寺 - 精密地表調査』, 順天大學校博物館・寶林寺, 1995.
- , 「韓國 鐵佛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黃壽永, 「統一新羅時代의 鐵佛」, 『考古美術』 154・155, 韓國美術史學會, 1982.
- , 「高麗時代의 鐵佛」, 『考古美術』 166・167, 韓國美術史學會, 1985.

——, 「三和寺의 新羅鐵佛坐像의 背刻銘記」, 『한국 문화유산의 위상 제고 - 삼화사 철
불과 삼층석탑을 중심으로 -』, 동해문화원, 1997.

葛城末治, 「寶林寺毘盧舍那佛に就いて」, 大正 10年(1921), 『朝鮮金石攷』 研究篇, 東京,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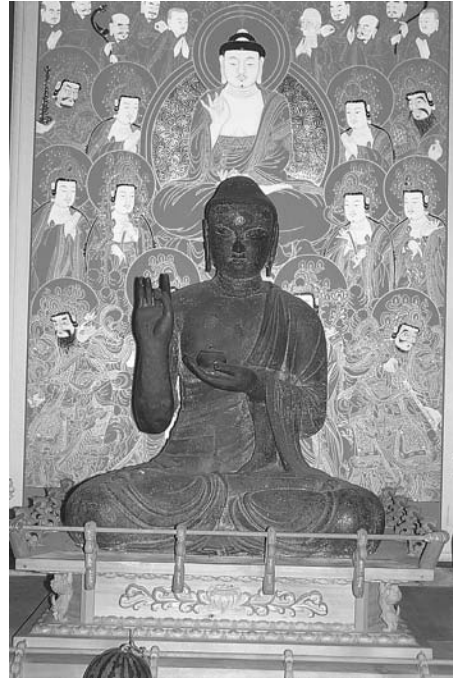
藤田亮策, 「寶林寺鐵造毘盧舍那佛造像記」, 『朝鮮金石瑣談』(外), 亞細亞文化社影印本, 1979.

田邊三郎助, 「韓國の鐵佛いつひて」, 『Museum』 303, 東京國立博物館, 1976.

佐藤昭夫・中村由信, 『日本の鐵佛』, 小學館, 1980.



〈사진 1〉 남원 실상사 철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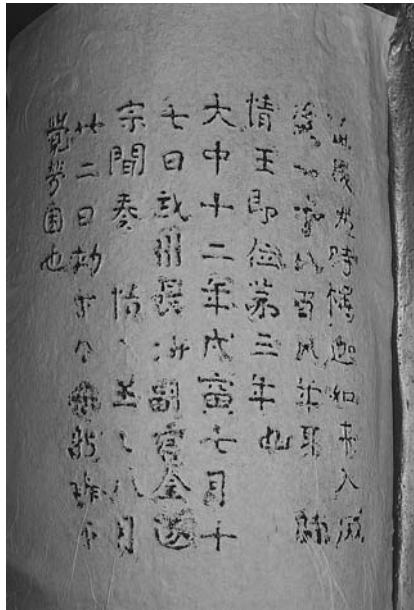
〈사진 2〉 예천 한천사 철불



〈사진 3〉 장흥 보림사 철불(수리 전)



〈사진 4〉 장흥 보림사 철불 측면



〈사진 5〉 장흥 보림사 철불
조상기 탐본



〈사진 6〉 장흥 보림사 철불
배면(수리전)



〈사진 7〉 장흥 보림사 철불 배면
(수리 후)



〈사진 8〉 장흥 보림사 철불 상호
(육계와 나발 제거 후 모습)



〈사진 9〉 장흥 보림사 철불
(수리후 상호 모습)



〈사진 10〉 장흥 보림사 철불 대좌
(1950년대 조성)



〈사진 11〉 장흥 보림사 철불(수리 후)



〈사진 12〉 철원 도피안사 철불



〈사진 13〉 철원 도피안사 배면과 명문



〈사진 14〉 동해 삼화사 철불(수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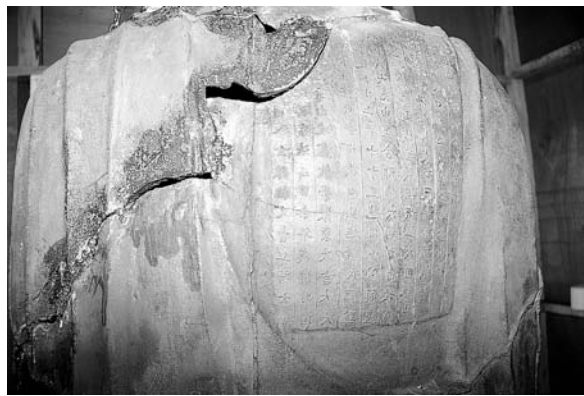
〈사진 15〉 동해 삼화사 철불(복원 모습)



〈사진 16〉 동해 삼화사 철불(측면)



〈사진 17〉 동해 삼화사 철불
(배면 복원 모습)



〈사진 18〉 동해 삼화사 철불 배면의 명문



〈사진19〉 광주 증심사 철불



〈사진 20〉 해남 은적사 철불



〈사진 21〉 순천 선암사 철불(개금 전 모습)



〈사진 22〉 순천 선암사 철불
(개금후 모습)



〈사진 23〉 임실 중기사 철불
(수리 전 모습)



〈사진 24〉 임실 중기사 철불
(수리 후 모습)



〈사진 25〉 호암미술관 소장 철불



〈사진 26〉 충주 백련암 철불



〈사진 27〉 평택 만기사 철불



〈사진 28〉 동해 지향사 철불



〈사진 29〉 남원 대복사 철불



〈사진 30〉 영천 선원동 철불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정 은 우★

목 차	I. 머리말 II. 고려전기의 불교조각 : 전통과 다양성의 추구 1. 전통양식의 계승과 변형 2. 전라도(호남)지역의 지방양식 3. 충청지역 거석불의 성립과 유행 III. 고려중기의 불교조각 : 외래요소의 수용 IV. 고려후기의 불교조각 : 보수와 실재감의 강조 V. 맺음말
--------	--

I. 머리말

고려시대의 불교는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취향에서 벗어나 지방 호족이나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아 지방으로 분산되며, 이는 기층사회의 민중들에게도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불교미술의 제작은 개경 뿐 아니라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지역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초빙교수.

에 까지 널리 확산되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은 대략 전기, 중기, 후기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려전기는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변형을 통한 조형적인 완성을 시도한 모색기이다. 고려중기는 11세기 중엽이후부터 고려왕실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는 1270년 까지 이며 중국의 송이나 요와의 관계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후기는 몽고 난 이후 고려가 망하는 1392년까지로 분류된다. 본 발표에서는 고려시대를 3기로 분류하여 전기는 석불을 중심으로, 중기는 목조기법과 건칠불 등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는 점을 외래요소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후기는 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양식과 이전의 전통들이 고려적으로 변모되는 경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Ⅱ. 고려전기의 불교조각 : 전통과 다양성의 추구

고려전기의 불교조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통일신라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양식의 계승과 삼국시대 백제적 전통을 따르는 복고적 경향, 그리고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거석불의 성립과 유행이다. 이 세 유형의 불교조각을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 보고자 한다.

1. 전통양식의 계승과 변형

전통양식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계승되는 점이 특징으로 고려전기 전 지역에서 유행했던 고려전기 불교조각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유형의 불상들은 철, 돌, 금동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많은 작품들이 남아 있지만 특히 철불에서 두드러지며 석불에서도 작품들이 다

수 남아 있다.

이 시기의 불상 가운데 좌상들은 대체로 향마촉지를 결한 8세기의 석굴암을 따르는 유형과 9세기의 지권인을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편단우견과 통견식 착의법이 특징이다. 그리고 입상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8-9세기에 유행했던 소위 아육왕식과 우전왕식으로 불리우는 두 가지 형식이 크게 유행하였다.

좌상의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작품이 남아 있으며 강원도 원주지역의 석불좌상들이 유명하다<사진 1>. 입상으로는 남원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사진 2>, 청양 석조삼존불입상,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등<사진 3>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불상들은 등근 반원형의 일률적인 옷주름에서 통일신라적인 특징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양감이 전혀 없는 밋밋한 불신이나 단순함, 큰 불신에 비해 작게 표현된 발 등 균형과 비례가 맞지 않는 점 등에서 통일신라와는 다른 시대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사진 1〉 석조여래좌상,
고려, 강원도 원주



〈사진 2〉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
고려, 전라북도 남원



〈사진 3〉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고려, 전라북도 나주

2. 전라도(호남)지역의 지방양식

이 유형은 백제적인 전통과 연결되는 복고적 성향의 작품들로서 백제의 고토인 전라도 지역에 특히 많이 남아 있는 점이 이채롭다.¹⁾ 이 불상들의 수는 다른 유형의 작품에 비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바로 이전의 후삼국 분립과 이를 통한 복고의식과 관련되는 정서라든지 고려 건국과 역사인식의 바탕에 三國(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정서 등이 불교미술 조성과 관련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고려의 국호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고려중기 까지 삼국을 표방한 민란들이 각지에서 일어났고 각기의 고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부흥운동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백제 의

1) 정은우, 「燕岐 佛碑像과 충남지역의 백제계 불상」, 『百濟文化』 32집, 2003, pp.89~98.

자왕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 아래 천도를 단행하고 백제부흥운동을 추진한 후백제 견훤의 백제적 정서와의 연결도 무시할 수 없다.²⁾ 이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옛 백제 지역에 속하는 전라북도 지역의 남원, 전주 등지에 남아 있는 석불들이다. 전주시 용화사 석불입상, 남원 지당리 석불입상, 남원 낙동리 석불입상(176cm), 정읍 용흥리 석불입상(170cm) 등이 백제적 전통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사진 4, 5). 특히 이 지역은 견훤이 900년 전주 천도를 단행한 인근 지역이기도 하다. 전주 용화사 석불입상은 210cm의 크기에 시무외, 여원인의 수인, 편단우견의 대의형식 등에서, 349cm의 池塘里 석불입상은 통견의에 시무외, 여원인의 수인, 소발에 봉긋하게 솟은 육계 등에서 백제적 전통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사진 4〉 지당리 석불입상,
고려, 전라북도 남원



〈사진 5〉 낙동리 석불입상, 고려,
전라북도 남원

-
- 2) 『三國史記』 50 甄萱傳; 金壽泰, 「全州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 15, 1999.5, pp.270~274.
- 3) 『전라북도의 불교유적』, 국립전주박물관, 2001, p.34, 사진 6; 진정환, 「고려시대 전북지역 석불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4, 2003, pp.39~56.

이외에 동경대학교 문학부 소장의 세 구 금동보살입상과 현재 직산현(현재의 천안) 晩日寺에 봉안되어 있는 금동보살입상도 주목된다.⁴⁾ 동경대학교 문학부 소장의 세 구 보살입상은 각기 60cm 38cm 39cm로서 크기와 얼굴의 모습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사진 6>. 이 보살상은 대좌에 쓰여진 명문 “統和二十八年 聖居山 天聖寺”를 통해 1010년 성거산 천성사에 있었던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상은 전체적으로 완전한 좌우대칭을 이루는 점, 연봉오리와 정병의 지물, 가슴의 U형 목걸이, X와 U형으로 이루어진 앞면과 뒷면의 천의, 편평하면서도 각이 진 천의자락 등의 특징



〈사진 7〉 晩日寺
금동보살입상,
고려, 충청남도 천안



〈사진 6〉 동조보살입상,
고려, 1010,
동경대학교 문학부 소장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지물이나 천의의 표현 등에서는 백제 7세기 보살상의 고식적 표현으로 역시 백제에서 유행했던 형식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보살상에는 목걸이에서는 통일신라적인 형식이 밋밋하면서도 길쭉한 대좌 연판에서는 고려적인 미감이 반영되어 있다.

만일사 금동보살입상도는 127cm의 큰 크기로 일제때 사금채취 중 발견되었다고 전하며 이후 현재의 사찰로 옮겨왔다고 한다<사진 7>. 역시 대좌에 “聖居山 天聖寺 統和二十年”이라고 쓰여져 있어 1002년에 같은 사찰에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상은 도난을 당하면서 두 손과 불신의 일부가 파손되어 원래의 상태와는 다소 다른 모습인 것으로 생각된다. 동경대 보살상과는 그 크기에서 현재

4) 동경대학교 문학부 소장의 불상들에 대해서는 鄭恩雨, 「東京大學 文學部 소장의 統和28年(1010) 銘 金銅菩薩立像」, 『美術史論壇』 11호, 2000 하반기, pp.339~355 참조.

한 차이를 보이지만 등근 반원형의 목걸이라든지 천의의 표현에서 닮았다.

이 유형의 작품들에 반영된 백제적 전통이 고려초에 다시 조성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로 백제 영토였던 충청, 전라도 지역에서 유행하는 점도 특이하다.

3. 충청지역 거석불의 성립과 유행

고려시대에 이르러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석불이 대형화되면서 조형적으로는 단순해지고 부분적인 생략이 많아지는 점이다. 이 거석불 조성의 중심과 시원은 고려초기 충남 지역에서 비롯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특히 본존불이 약 451cm에 이르는 연산 개태사 삼존불상과 논산 관촉사의 18.12m(보물 218호) 석조보살입상은 그 시원이 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다.⁵⁾ 이 작품들은 대형화와 더불어 이전과는 다른 힘이 느껴지는 웅건한 패기와 극도의 생략화 등의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충청 지역의 석불을 시작으로 점차 전라도,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도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이다. 먼저 개태사와 관촉사 불상의 특징과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이어서 유사한 양식을 가진 다른 석불들도 소개하고자 한다.

1) 開泰寺 三尊佛像과 供養像

개태사에는 현재 석조삼존불상이 모셔져 있으며, 원래 탑 앞에 있었던 공양상은 원래의 사지에 남아 있는 탑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따로 모셔져 있다.

개태사는 잘 알려진 대로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후 19년만에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격전지인 논산 황산벌에 기념으로 세운 사찰이다. 940년 이 절이 낙성될 때 태조가 직접 화엄도량을 위해 친히 쓴 疏文에서 통일의 위업이 佛聖과 山靈의 힘으로 이루어졌음을 천명하여 고대 불교 신앙에 산신신앙이 흡수되었던 일면을 알려 준다.

5) 고려시대 석불 전반에 대해서는 金理那, 「高麗時代 石造佛像 研究」, 『考古美術』 166, 167, 1985.9, pp. 57~81 참조.



〈사진 8〉 開泰寺 석조삼존불상, 고려 940, 충청남도 논산

현재 남아 있는 삼존불은 크기가 4.15m, 협시 3.2m나 되는 거불로서 그 크기나 양식 면에서 이전의 상들과는 계보가 다른 새로우면서도 특징있는 표현을 보여 준다〈사진 8〉. 현존 상들의 제작수법이 동일하지 않아 창건 당시의 양식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1988년 법당 재건 당시 발견된 우협시보살상의 머리가 원래의 불상과 조화되는 양식적인 통일성



〈사진 9〉 개태사지 삼존불의 우협시보살상과 본존불의 머리부분

과 일체감을 보여 주어 나머지 두 불상이 후대에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존불의 불필요한 머리카락의 표현이 보살상의 모습을 재현한데서 왔을것이란 의견도 있다.〈사진 9〉⁶⁾

삼존불상 중 본존불은 편단우견의 착의법이 특징으로 두 손은 왼손은 수평으로 들어 가슴에 댔으며 오른손은 어깨에 까지 든 상태이다. 이와 유사한 수인 형식은 거의 없어 정확한 도상적 특징은 잘 알 수 없다. 다만 이 불상이 사찰 창건 당시 조성되었음을 전제로 기록 중 화엄법회를 열었다는 기록에서 주존불의 존명은 비로자나불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⁷⁾ 편단우견의 착의법에 입상 형식은 원래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형식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려 초기 옛 백제지역을 중심으로 석불에 계승되어 다시 조성되기 시작한다.

이 삼존불상은 투박한 손과 발, 보계와 보발, 균일한 옷주름, 사선의 주름을 가진 상의 등에서 다소 어색한 모습이지만 새로운 양식의 불상들이 충청지역에서 성립하는 시원적 작품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개태사가 실제 개태사지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점과 현재의 삼존불상은 조성당시의 위치 그대로 라는 발굴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앞으로 새로운 각도의 연구가 필요한 작품이다.

개태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불상은 원래 탑 앞에 있었던 공양상이다〈사진 10〉. 공양상은 손을 앞으로 모아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모습이나 현재 들고 있었던 지물은 없어진 상태이다. 이 공양상은 월정사, 신복사 등의 강원도 지역에 있는 탑 앞의 공양상과 같은 점에서 같은 유형으로 논의되어 왔다〈사진 11〉. 탑 앞에 공양상이 있는 형식은 중국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는 도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전기에만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예로서 그 용도와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다만 최근에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불의 앞 기둥이 철거되면서 불상옆에 두 구의 부조 공양상이 재조명 되었는데 개태사 탑 공양상과 같은 자세를 하고 있어 그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

6) 金春實, 「忠南 連山 石造三尊佛考-本尊像과 右脇侍 菩薩像이 後代의 模作일 가능성에 대하여-」, 『百濟研究』 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0.12, pp.321~347 참조.

7) 文明大, 「開泰寺 石丈六三尊佛立像-毘盧舍那丈六尊像과 관련하여-」, 『美術資料』 29, 1981.12, pp.1~11 참조.



〈사진 10〉 개태사 석탑 供養像,
고려, 충청남도 논산



〈사진 11〉 신복사지 탑 앞 공양상, 고려



〈사진 12〉 大興寺 北彌勒庵 마애여래좌상과 공양상,
통일신라-고려, 전라남도 해남

미륵암 공양상은 손에 연꽃가지와 병향로를 들고 있어 개태사 공양상의 없어진 지물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사진 12>. 이와 같은 무릎 꿇은 자세의 공양상은 중국의 당이나 송대에 사천성과 산서성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겠다.⁸⁾

2) 灌燭寺와 大鳥寺 石造菩薩立像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은 18.12m 크기의 현존 최대 거불로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이, 조성목적 등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사진 13>. 더욱이 僧 慧明이 光宗(949-975)의 명으로 조성하였다는 『新增東國輿地勝覽』과 『灌燭寺事蹟碑』의 기록이 있어 10세기에 조성된 불상인 점에서도 기준적 작품으로 조명을 받아 왔다.⁹⁾

관촉사 불상의 전면 구조는 앞에 석탑과 석등, 배례석을 일자로 봉안한 방식으로 이들 역시 석불과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촉사 불상의 특징은 머리에 쓴 보관과 큰 얼굴, 간략하면서도 단순한 불신과 손에 든 연꽃가지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는 없어진 원래 있었던 보관에



〈사진 13〉 灌燭寺 石造菩薩立像,
고려, 충청남도

8) 같은 자세의 공양상이 사천성의 불상에서도 발견된다. 盛唐대 작품으로는 사천성 巴中 水寧寺 제8호감의 불상 대좌 좌우에 앉아 있는 공양상이 있고, 北宋의 예로서는 사천성 江津 高坪 石佛寺 제1호감의 좌우측 공양상이 있는데 같은 감의 제기에서 1097년의 명문이 발견되어 참고된다. 劉長久編, 『中國石窟雕塑全集』 8卷: 四川 重慶, 重慶出版社, 1999, 圖 65, 66, 238, 239 참조.

9)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기록과 특징에 대해서는 崔善柱, 「高麗初期 灌燭寺 石造菩薩立像에 대한 研究」, 『미술사연구』 14, 2000, pp.3~33 참조.

는 화불이 있었다고 한다.〈사진 14〉 이를 토대로 보살상의 존명에 대해서는 관음과 미륵이라는 설이 있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점은 손에 든 연화가지와 보관에 있었다는 화불이 관음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불상의 보개인 이중방형 형식이 왕이 쓰는 冕冠을 형상화 하였다는 점에서 “王則佛”사상과 결부하기도 한다.¹⁰⁾ 또 하나는 이 보살상이 18m 이상의 大佛로서 그 예가 거의 전무한 점인데 『觀佛三昧海經』에 보이는 미륵의 크기가 16丈이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미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관음과 미륵의 형식은 지물과 같은 도상 보다는 신앙의 문제와 더 관련이 깊다고 본다.¹¹⁾



〈사진 14〉 灌燭寺 석조보살입상의 머리 부분, 고려, 충청남도

관촉사 불상의 존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근거는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이다.

- 10) 그런데 후고구려 지역에서 그 유행을 주도했다면 이 지역에서 먼저 조성되어야 함에도 그 예가 없는 점과 오히려 고려초기 후백제 지역에서 유행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崔善柱, 「高麗初期 灌燭寺 石造菩薩立像에 대한 연구」, 『미술사연구』 14, 2000, pp.28~31.
- 11) 예를 들어 당시 중국에서는 대형의 관음이 조성된다. 예를 들어 북송 971년 하북성 정정의 용흥사 42臂銅造觀音立像이 조성되었고 984년에는 하북성 천진시 독락사에 16m의 소조11면관음보살입상이 제작되는 등 중국에서 10세기에 관음의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는 관음신앙의 유행으로 대불이 유행하게 되는 점에서 크기와 도상과의 관계는 한 두개의 정황만으로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음을 알려 준다. 정은우, 「遼代 佛教彫刻의 研究(1)」, 『미술사연구』 13, 1999, pp.90~91.

“돌미륵에 54척이 된다고 했으며 고려 광종대에 반야산 기슭에 큰 돌이 솟아 오를 것을 중 혜명이 쪼아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李穡은 “큰 석상 미륵불이 내온다 내 나온다(我出我出) 하고 땅에서 솟아났다고 한다”.¹²⁾ 이어서 석상이 때때로 땀 흘려 군신을 놀라게 했다”

여기에서 적어도 14세기 이색이 활동하였을 당시 이미 미륵으로 불리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영험있는 불상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불상이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불상 스스로 “我出 我出”이라 하면서 땅에서 솟아 났다는 자체도 지극히 새로운 세계를 여는 미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

다. 또한 은진미륵으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사실도 참고해 볼 수 있으며, 당진 안국사지 삼존불의 중앙 본존불 도상도 참고된다. 안국사지 삼존불상의 본존불은 이마에 화불이 있어 특이한데 이는 관음삼존 보다는 미륵삼존불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사진 15>. 즉 당시 사람들은 연꽃이나 화불이 있는 불상들을 도상과 관계없이 미륵불로 신앙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³⁾



〈사진 15〉 안국사지 삼존불입상의 본존불 머리부분, 고려, 충청남도 당진

관촉사 불상은 머리에 쓴 사각형 보개와 넓적한 얼굴에 단순하게 처리한 몸체가 특징인데 상의의 끝자락을 말아 올려 곡선적으로 처리하거나 대의자락이 측면에서 마치 바람

12) “在般若山 有石彌勒 高五十四尺世侍高麗光宗般若山嶽有大石 出僧慧明琢成佛像 李穡詩馬邑之東百余里市中灌燭寺有大石像彌勒尊我出我出湧從地...” 『東國輿地勝覽』 18권 恩津縣佛宇

13) 안국사지 삼존불에 대해서는 『唐津 安國寺址-情密地表調査報告書』, 당진군, 충남발전연구원, 2001, 참조.

에 나부끼듯 접혀있는 점은 세부적인 처리에 세심한 배려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은 보살이면서도 여래형의 대의를 입은 가장 이른 예이며 또한 보관의 화불과 손에 든 연화가지의 지물로서 미륵을 형상화한 새로운 도상을 창출한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높이 10m의 부여 임천면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은 관촉사와 인근지역에 있으면서 형식상 비슷하여 시기는 다소 늦지만 같은 계열의 상으로 인식된다<사진 16>. 방형의 보개와 손에 든 철제 연꽃 그리고 큰 얼굴에 좁은 어깨의 비례 까지도 많이 닮아 있다. 다만 오른쪽 팔에 편삼을 입은 착의법과 가늘게 선각된 목걸이, 어깨에 흘러내린 관대와 보발의 표현 등 장식적이고 섬세한 수법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 요소들은 대조사 보살상의 조성시기가 관촉사 불상 보다 늦은 11세기 이후의 작품임을 알려 준다.

이외에도 관촉사와 대조사 불상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단순해지는 불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당진 안국사지 삼존불상과(높이 545cm) 예산 삼교 석조보살입상(높이 530cm)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사진 17, 18>. 관촉사나 대조사 불상들이 하나 또는 두개의 큰 돌을 붙여 불상을 새긴 기념비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었다면 이 두 불상들은 여러 개의 돌을 쌓아 올려 제작한 보다 쉬운 제작기법과 단순해진 작품들인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머리에는 방형 또는 육각형의 보개를 쓴 점이라든지 삼교 보살상의 편삼을 입은 착의법에서 대조사 석불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두 불상의 특징은 생략과 단순함인데 이는 미륵신앙의 확대와 보편화 과정에서의 대량생산이나 지방 장인의 활약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성연대는 안국사지의 발굴에서 ‘安國寺’라는 명



〈사진 16〉 大鳥寺 石造菩薩立像,
고려, 충청남도



〈사진 17〉 안국사지 석조삼존불입상,
고려, 충청남도 당진



〈사진 18〉 삽교 석조보살입상,
고려, 충청남도 예산



〈사진 19〉 안국사지 석조본존불입상,
고려, 충청남도 당진



〈사진 20〉 금광사지 석조불입상의 수인,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사진 21〉 이천 마애보살상, 고려 981년, 경기도



〈사진 22〉 석조보살좌상,
고려, 국립부여박물관



〈사진 23〉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고려, 청암사



〈사진 24〉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부분,
통일신라 719년, 국립중앙박물관

문기와와 ‘大平’이라는 연호가 나옴으로서 11세기경의 작품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두 손 모두 가슴과 배에 대고 검지와 중지를 구부린 수인을 한 안국사지 본존불의 수인과 지물도 독특하다〈사진 19〉. 수인 형식은 통일신라 금광사지로 전해지는 석불입상이나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석불입상 등 통일신라 석불에서 보이는 수인 형식에서 발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사진 20〉.¹⁴⁾ 그리고 안국사지 삼존불상의 본존불에도 화불이 있으며 협

14) 김리나, 「慶州王井谷石造佛立像とその類型」, 『高麗美術館研究紀要』 5호, 2006, pp.283~302,

시보살상들은 손에 연꽃가지를 잡았다. 이 역시 미륵으로 이해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연꽃이나 화불이 있는 불상들을 도상과 관계없이 미륵불로 신앙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경기도 이천의 981년 마애보살상 역시 손에는 연꽃을, 이마 위 보관에는 화불을 새겼으며<사진 21>, 증평 남하리 석불입상, 부여박물관의 석조보살좌상,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등 경기도, 전라도 등 충청도 지역분만 아니라 다른 지역 까지 확산되고 유행하게 된다<사진 22, 23>. 또한 여래상의 경우에도 손에 연화를 든 석불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이 보관의 도상이 화불이 아니라 탑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인도 팔라왕조의 보살상에 등장하는 보관의 탑 표현이 중국을 거쳐 고려에 들어왔으며 이로 인해 탑이 있는 미륵의 도상이 나타났다는 견해이다.¹⁵⁾ 이 보살상의 보관에 있는 지물이 인도와 중국을 거쳐 유입된 탑인지 혹은 화불로서 한국적으로 이미지화된 새로운 미륵의 도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719년에 제작된 김지성 발원의 미륵보살입상의 보관에 이미 화불이 등장하고 미륵이라는 존명이 뒷면의 명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에서 이 도상이 계승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사진 24>. 미륵보살의 보관에 등장하는 교리적 배경은 《佛設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기록된 “其天寶冠有百萬億色——色中有無量百千化佛”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관에 화불이 있는 미륵의 도상은 경전의 내용에 기인하여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성립되었던 것 같다.

이상의 불상 형식은 지방화된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데 점차 지역적 경향 외에 토속적인 신앙과 결합하면서 보편화된다. 공주박물관 정원에 전시된 공주 금학동사지 출토 석조여래입상의 얼굴은 눈이 매우 커져 앞으로 튀어 나올 것 같은 부리부리한 형상이며<사진 25>, 삼교 보살입상의 경우에도 손에 발끝 까지 닿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어 도상이나 존명 확인에 어려움을 준다. 이는 마을 입구에 마치 남녀의 형상으로 서 있는 전복 익산 고도리 석불로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인다<사진 26>.¹⁶⁾ 즉 원통형의

15) 손영문, 「고려시대 용화수인의 미륵도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 2006.12, pp.122~127.

16) 석불 두 구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형식은 현재로서는 전라북도 익산 고도리 석불이 유일하지만 연기군 남면에 소재한 나성리 석불의 경우 현재는 한 구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2구 였다고 전한다. 이 석불은 짧은 목과 원통형의 단순한 불신 등 부분적인 생략이 강해지는 점에서 역시 석불에서 장승으로 넘어 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진 25〉 공주 금학동사지 출토
석조여래입상, 고려,
국립공주박물관



〈사진 26〉 고도리 석조보살입상 두 구,
고려, 전라북도 익산

신체에는 대의와 옷주름의 표현 조차 없어지면서 두 손만 크게 강조되며 얼굴은 더욱 커지면서 두 눈이 강조되는 점 그리고 남녀의 모습처럼 두 구가 조성되거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점 등은 이후 유행하는 장승적 이미지의 선행적 현상으로 생각된다〈사진 27〉. 조선



〈사진 27〉 관룡사 입구 석조장승, 조선, 경상남도 창녕(현재 도난)

시대 이후부터 이러한 거대한 석불 형식이 더 이상 조성되지 않으면서 장승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는 점도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외에 아산군 평촌면의 석조약사여래입상은 5.45m의 거석불인 점에서 같은 유형에 속하면서도 입체감에 대한 관심 보다는 납작하고 편평한 불신, 옷주름의 실재감 없는 문양의 장식성, 자유분방한 곡선의 소용돌이에서 고려적인 새로운 조형감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고려시대의 거석불들은 내부 보다는 실외에서 신앙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조형성과 미감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불상의 엄숙함이나 아름다움 보다는 대형의 크기가 우선되었고 상 자체는 형식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상의 대형화는 고려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든지 미륵신앙의 유행과도 연계성을 보이는 점 등에서 앞으로 그 성립과 배경에 대한 연구가 더욱 주목된다.

Ⅲ. 고려중기의 불교조각 : 외래요소의 수용

중기에는 고려화한 고려전기의 불상에 11세기 이후 요, 북송, 남송, 금대로 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요소들을 수용, 혼합하여 형성된 양식이 유행하였다.¹⁷⁾ 시기적으로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송과는 국교를 재개하는 11세기중엽 이후부터 몽고와의 전쟁이 끝난 후 다시 개성으로 천도하는 1270년 경 까지 이다.

이 시기의 불교조각은 전체적으로 작품이 적게 남아 있어 그 계보를 잡기가 어렵지만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요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외래요소가 강한 작품들이다. 두 번째는 경상도 지역의 안동, 봉화 라든지 충청남도 서천, 전라도 강진, 개성 관음굴 등지에 작품들이 있어 바닷길과 가까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점이다.¹⁸⁾ 이는 송의 남

17) 고려중기 불상에 보이는 외래요소의 수용에 대해서는 정은우,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입상」, 『불교미술』 18, 2007, pp.3~20. : 정은우, 「고려중기와 남송의 보살상」, 『미술사, 자료와 해석』, 일지사, 2008. pp.

쪽 항구도시들과 전라도, 충청도를 경유하여 벽란도와 개성으로 이어지는 일상적인 해상 교통의 길목과 관련된다. 또한 서남루트 즉 포항, 울산, 김해 등지에서 흑산포를 거쳐 중국 남쪽으로 가는 이전 신라시대의 항해루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불교조각으로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탑 앞에 놓인 석조공양상들과<사진 28> 시흥 소래산의 마애선각보살입상에서 보이는 고관을 쓴 작품들이다<사진 29>. 신복사지, 한송사지, 월정사 탑 앞에 있는 공양상들은 무릎 꿇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로 독특한데 모두 원통형의 높은 보관을 쓰고 있어 일찍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¹⁹⁾ 중국의 경우 원통형의 높은 보관들은 대동 하화엄사의 소조보살상을 비롯해서 요대 보살상의 독특한 보관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사진 30>.²⁰⁾ 보관의 세부 표현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지만 전체 형상에서 닮았으며, 특히 시흥 소래산의 고관에 새겨진 문양은 요대의 보살상이나 불화에 그려진 짧은 인동문의 보관 장식 문양과도 매우 흡사하다<사진 30>.



〈사진 28〉 월정사 탑 앞
석조공양상, 고려, 강원도



〈사진 29〉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고려, 경기도 시흥

18) 정은우, 「고려전기 금동보살상 연구」, 정은우, 「개성관음굴 석조 보살상과 송대 외래요소의 수용」,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2007.5, pp.193~207.

19) 정은우, 「고려와 중국의 불교조각」,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서경, 2006, pp.38~39.

20) 정은우 「遼代 佛教彫刻의 研究(Ⅱ)」, 『미술사연구』 14, 2000, pp.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의 금동보살좌상도<사진 31> 약간 낮은 보관에 보관에서 늘어진 매듭이 있는 관대, 3단의 낮은 대좌 등에서 역시 요대의 금동보살좌상들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사진 32>. 요와 관련된 요소 중에는 보살상 뿐 아니라 여래상의 착의 법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불상들도 발견된다. 강원도 고성 출토의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석조여래좌상을 보면 대의 안에 편삼을 입은 모습이라든가 수평을 이루는 승기지의 표현에서 요대의 여래상과 비교된다.



〈사진 30〉 하화엄사
소조보살입상, 요, 산서성 대동



〈사진 31〉 금동보살좌상,
고려, 일본 개인소장



〈사진 32〉 금동보살좌상, 요,
중국 상해박물관

두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높이 13.3cm의 舒川郡 西南面 燐南里 출토 동조보살좌상과 강진 고성사 동조보살좌상, 개성 그리고 안동 봉정사의 1199년 목조보살좌상, 봉화 청량사의 건칠보살좌상 등을 들 수 있다. 서천군 동조보살좌상은<사진 33> 현재의 소장처는 알 수 없지만 전통적인 대각선 천의를 걸쳤으며 왼쪽 다리를 몸 쪽으로 당겨 지면과 수평으로 구부리고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세운 다음 오른쪽 팔을 무릎위에 가볍게 걸치고 왼쪽 팔이 왼쪽 무릎 뒤쪽의 바닥을 짚고 있는 소위 輪王坐를 취하고 있다. 윤왕좌는 고려중기 이후 유행하는 자세인데 특히 수월관음 신앙과 연결되어 중국에

서는 송대에 크게 유행하게 된다<사진 34>. 고려중기의 윤왕좌 보살상들은 송대의 특징이 반영되었으면서도 투박하고 단순한 모습이 특징인데 이는 고려적 의장으로 해석된다. 강진 고성사 보살상도 서천군 보살상과 같은 자세를 보이면서도 통통한 얼굴 모습에 미소가 가득한 부드러운 얼굴 표정에서 좀 더 세련된 특징을 보인다. 고려후기에는 같은 윤왕좌의 자세를 취하면서도 암벽의 풀방석이나 옆의 정병, 또는 선재동자가 등장하는 수월관음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불화에 보이는 수월관음의 유행과 맥을 같이한다<사진 35>.



〈사진 33〉 동조보살좌상,
고려, 충청남도 舒川郡
西南面 燧南里 출토



〈사진 34〉 목조보살좌상,
중국 송, 상해박물관



〈사진 35〉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 1344년경,
평양조선역사박물관

봉정사 목조여래좌상은 현판 기록에서 1199년(송안4)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나온 중요한 작품이다<사진 36>. 기둥 처럼 솟은 보계라든지 통견식 대의, 옷깃을 따라 흘러 내린 화려한 영락, 무릎위에 흘러내린 삼각형 모양의 소매자락의 표현 등이 특징이며 눈에 수정을 끼워 생생함이 돋보이는 감입방법도 이 시기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기법이다. 일본에서 玉眼으로 부르는 이 기법은 특히 불상의 몸 안에 넣는 복장물의 등장과 그 시기가 같은 점에서 부처의 生身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13개의 나무를 잇대어 만든 접목조 기법으로 주목되는데 이는 송대 목조불상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특징이다.²¹⁾ 기법 외에 얼굴 모습이나 신체, 영락의 표현 등 양식적으로도 남송의 보살상과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사진 36〉 봉정사 목조보살좌상,
고려 1199년, 경상북도 안동



〈사진 37〉 청량사 건칠보살좌상,
고려, 경상북도 봉화

봉화 청량사 건칠보살좌상은 현재 유리보전에 봉안되어 있는데, 〈사진 37〉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칠불의 예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현재 보관은 보수되어 원래의 모습에서 변형된 모습이지만 통견의 대의에 삼각 형상의 옷자락이 무릎 위에 흘러 내린 모습에서 봉정사 보살상과 유사성을 보이며, 뺨에 살이 오른 통통한 모습에 부드러운 표정에서는 고성사 보살상과도 비교된다. 건칠불에 대해서는 개성 흥왕사의 협저불상이 원풍 연간(1078-1085)에 송으로부터 전래된 불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074년 김양감이 사신으로 입송하였을 때 ‘畫塑之工’을 구하고자 하여 神宗이 응할 자를 모집했다는 기록에서 장인의 도래와 더불어 건칠불과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고려에 소개되었을 가능성을 높

21) 임남수, 「×선투과촬영잔치를 이용한 목조불상의 제작기법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 2007.3, pp.73~92.

혀준다. 건칠불의 등장은 송으로부터 알려졌지만 고려에서의 나전칠기 등의 유행으로 볼 때 그 기법에 대한 기반 아래 건칠불이 성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법과 관련해서 일본 이끼섬에 있는 금곡사 동조보살좌상도 주목된다. 이 상은 개인소장의 동조보살좌상과 더불어 협시보살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사진 38>. 통견의 대의와 무릎위의 사각형으로 형성된 소매자락의 표현에서 역시 고려중기의 작품으로 이해되는데 특이하게도 가슴 전면



〈사진 38〉 동조보살좌상,
고려, 일본 개인소장

에 작은 구멍들이 남아 있다. 최근 회암사에서 작은 영락으로 추정되는 장식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참고해 보면 영락을 따로 제작하여 목에 걸고 가슴 전면의 구멍에 끼워 고정하는 기법으로 드리웠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남송대 교토 천룡사 목조보살좌상의 목에 건 목걸이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불신 전면

에 보다 더 복잡하고 화려한 영락이 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천룡사 목걸이와는 초롱꽃 모양이나 원문 등 영락의 세부 표현 장식 까지 매우 닮아 더욱 회암사지 발견 장신구들이 영락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높혀 준다.

개성에 남아 있는 작품이 적은 점에서 개성 관음굴에 있는 대리석으로 만든 석조보살좌상 두 구 역시 개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양식의 경향을 알려 준다.²²⁾ 한 구는 원래의 위치

에, 다른 한 구는 개성박물관에 있는데, 북송과 남송의 특징들이 혼재된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충청남도 서산 開心寺 대웅전의 목조여래좌상은<사진 39>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불상 밑쪽 뚜껑의 안쪽 바닥 묵서에서 1280년 보수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그렇

22) 정은우, 「개성 관음굴 석조보살상과 송대 외래요소의 수용」,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2007, pp.193~207.

다면 이 상의 제작연대는 이 보다는 훨씬 앞선 시기가 되는 셈이다. 개심사 여래상은 얼굴이 크고 넓적한 편이며 어깨가 넓고 무릎의 폭과 높이가 적당하여 장대하면서도 균형 잡힌 안정된 자세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팔에 偏衫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걸쳤으며 왼쪽 어깨에는 오른쪽에서 걸쳐진 대의자락이 7줄의 작고 촘촘한 종선의 옷주름을 만들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그리고 얼굴 모습에서는 봉화 청량사 보살상의 얼굴 모습과도 닮았다. 특히 눈과 코, 입으로 이어지는 윤곽선을 파서 도드라지게 하거나 이로 인한 딱딱하고 근엄한 표정은 남송 남천선사의 불상과 강한 친연성이 느껴진다<사진 40>.



〈사진 39〉開心寺 목조여래좌상, 고려, 충청남도 해미



〈사진 40〉남천사 석조보살좌상 머리부분, 남송, 복건성

이상과 같이 고려중기 불교조각들은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당시 유입된 요나 송대의 불상들과 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형요소들은 이후 고려후기 불교조각으로 계승되면서 지극히 고려적 특징으로 변모되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고려후기의 불교조각 : 보수와 실재감의 강조

고려후기의 불교조각은 현재 여러 지역에 산재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넓게는 서일본에 까지 이른다. 조성연대가 확실한 작품으로는 1274년경에 조성된 서울 開運寺에 있는 아산 鷲峰寺 목조여래좌상, 1330년의 일본 대마도 觀音寺에 있는 서산 浮石寺 금동보살좌상, 1346년에 조성된 청양 長谷寺 금동약사여래좌상 그리고 1346년 서산 文殊寺 금동여래좌상 등 비교적 많은 기년명 작품이 남아 있다.²³⁾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333년 동조보살입상 두 구가 있으며 최근 광주 자운사 목조여래좌상과 서울 수국사 목조여래좌상, 1388년 은제삼존불좌상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이 중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은 현재 도난당해 없어졌으며 나머지 불상들은 원래의 사찰 또는 다른 지역의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 이 작품들의 재료는 대부분 동과 나무이며 크기는 50cm 이상의 대형에 속한다.

이 상들의 공통적 특징은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조성사찰 및 연대, 발원목적 등을 알 수 있다는 것과 균형 잡힌 단정한 체구와 세부의 구체적인 표현이 마치 인간을 보는 듯 실재감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후기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인데 내부에 복장물을 넣는 행위는 인간과 같은 생명력을 부여하려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원하는 바람을 이루려는 강한 기복불교적 성격을 드러낸다. 복장의 시원은 중국 송대 불상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五臟六腑와 요대의 불상 내부에서 경전을 비롯한 다수의 복장물이 발견된 바 있어 그 시원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불상에 대한 조형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짐작한다.²⁴⁾

조성시기가 가장 이른 현재 서울시 안암동 開運寺에 있는 아산 鷲峰寺 목조여래좌상은

23) 고려후기의 불상에 대해서는 文明大, 「高麗後期 端雅樣式 불상의 成立과 展開」, 『古文化』 22, 1983, pp.33-71 ; 鄭恩雨, 「高麗後期の 佛教彫刻 研究」, 『美術資料』 33, 1983, pp.33~58 ; 崔聖銀, 「14세기의 紀年銘菩薩像에 대하여」, 『美術資料』 32, 1983, pp.19~36 참조.

24) 정은우, 「고려후기 불상의 복장물과 후원자」,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7, pp.53~86.

〈사진 41〉 1996년 조사된 복장 조사에서 중간대사와 1322년 최춘 발원문 등 세 개의 발원문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1274년 충청남도 아산 鷲峰寺에서 조성된 불상임이 밝혀졌다.²⁵⁾ 이 여래상은 증품하생인의 손 모습에 좁은 어깨를 구부려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인데 앞서 살펴 본 고려중기의 예산 개심사 여래상과 유사하여 같은 계보의 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은 좀 더 살이 빠졌으며 옷주름은 덜 번잡하여 정리되었고 가슴의 띠 장식도 없어졌다. 이는 중국의 요나 남송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으면서도 점차 고려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사진 41〉 鷲峰寺 목조여래좌상,
고려 1274년경,
서울 안암동 開運寺

이러한 계통은 14세기의 작품으로 이어지는데 1346년에 같이 조성된 長谷寺와 文殊寺 금동여래좌상이 대표작인 작품들이다(사진 42, 43). 이 두 불상은 앞서의 중국적인 요소들이 강조된 상에서 좀 더 우아하고 귀족적인 모습으로 변모된 상들로서 고려적인 미감과 미의식이 반영되어 새로운 계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려중기 요나 남송, 금대의 몇 가지 요소들이 서로 융합되고 고려만의 단아한 표현감각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1346년의 청양 長谷寺 금동약사여래좌상은〈사진 42〉 왼손에 약함을 들고 있어 약사불임을 알 수 있는데 1955년 복장물 조사에서 紅絹에 묵서발원문, 백지봉서를 비롯한 각종 경전들이 발견되었고 “至正六年丙戌七月 初八日”이라는 글이 있어 1346년 7월8일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⁶⁾ 뒷면에는 “南瞻部洲大功德主樂浪郡夫人崔氏謹封”이라고 하여 낙랑군부인이 주요 단월이었음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묵서발원문에는 금산군부인 김씨외에 성이 없는 천민계급의 사람들이나 몽고인의 이름 등 수백명의 이름이 쓰여 있어 당시 사회적

25) 文明大, 「高麗 13世紀 彫刻樣式과 開運寺藏 鷲峰寺 木阿彌陀佛像의 研究」, 『講座 美術史』, 1996, 12, pp.37~57.

26) 장곡사 불상에서 나온 복장물에 대해서는 閔泳珪,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 14, 1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6.6, pp.237~247 참조. 이때의 조사 이후 장곡사 복장물의 소장처와 보관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상을 시사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단월들이 참여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복장발원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주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글씨를 빼뜰게 쓰거나 틀려 다시 지우고 쓰기도 하며 대신 써 준 글씨도 보인다. 때로는 수결을 넣는 경우도 있는 등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보이는데 이는 고려후기에만 보이는 발원문 서식의 특징이다.



〈사진 42〉 長谷寺 금동여래좌상,
고려 1346, 충청남도 청양



〈사진 43〉 文殊寺 금동여래좌상,
고려 1346년, 충청남도 서산

현재 소재불명인 서산 문수사 불상〈사진 43〉 역시 장곡사여래상과 같이 1346년에 조성된 상으로 복장물이 처음 넣은 그대로 조사되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이 불상은 1973년 처음 복장을 조사하였을 때 발원문과 목합, 경전류, 그리고 15.6종의 약재 등 납입물이 수습되었으며 현재는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중이다.²⁷⁾ 이 발원문 역시 장곡사에서 나온 원문과 내용이나 형식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27) 문수사 불상의 복장물은 수덕사 성보박물관에서 2004년 특별 전시된 바 있다. 수덕사 성보박물관편, 『至心歸命禮』, 2004.

장곡사와 문수사 여래좌상은 같은 시기, 인접지역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여래상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에서도 매우 닮았으며, 자연스러운 법의와 부드러운 옷주름, 내의를 묶은 금구 장식 등에서 특색있는 표현 기법을 보인다. 특히 타원형의 얼굴에 대칭으로 선을 넣은 콧망울의 표현, 부드러운 턱 등은 근엄하면서도 단아한 실재 인간과 같은 사실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忠肅王(1313-1330)때 綾城具氏의 4대손인 具藝가 가문의 원찰로 창건한 사찰로 알려진 당진 申菴寺 금동여래좌상과 국립부여박물관 소장이었던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불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中品下生印을 결한 아미타불상인점도 주목되는데 당시 아미타정토신앙의 유행을 짐작하게 한다.

일본에 있는 보살상 가운데는 우수한 조형성을 보여 주는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대마도에는 우리나라 불상들이 약 100여구 남아 있는데 그 중 觀音寺에 있는 동조보살좌상은 내부에서 나온 복장결연문을 통해 天曆3년(1330)에 서주 즉 현재의 서산 浮石寺에서 조성된 작품으로 알려졌으며 아마도 왜구의 침략 당시 건너갔을 것으로 추측된다(사진 44-1, 2).²⁸⁾ 이 보살상은 머리에 쓴 보관이 없어졌음을 제외하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인데 여래상과 달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원형에 가까운 복스러운 얼굴에 높이 솟은 寶髻, 어깨위에 흘러내린 세 개의 원형이 겹쳐지는 寶髮, 목걸이와 무릎의 영락 표현 등이 특징적이다. 역시 보살상인 점만 제외한다면 장곡사나 문수사 불상과 같은 계보의 작품에 속한다. 같은 사찰의 이 보살좌상 옆에는 한 구의 보살두가 같이 봉안되어 있는데 얼굴이나 머리



〈사진 44-1〉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고려 1330, 일본 대마도 관음사

28) 정은우, 「고려 후기 보명사 금동보살좌상과 왜구와의 관계」, 『미술사학』 19호, 2005.8, pp.106~108(『고려 후기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7, pp. 재수록).

의 모습 특히 뒷면의 머리갈래의 표현 까지 거의 비슷하여 원래는 좌우협시보살상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사진 45〉 이외에도 대마도 다구두혼신사에 비불로 봉안되어 있는 동조보살좌상, 규슈 사가현의 보명사 금동보살좌상, 장득사 동조보살좌상, 시마네현의 동조보살좌상 등은 같은 유형의 작품으로 매우 우수한 예에 속하는 고려후기의 작품들이다.



〈사진 44-2〉 부석사
금동보살좌상의 뒷면



〈사진 45〉 금동보살좌상 머리, 고려, 일본 대마도 관음사

고려후기 불상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몽고족이 세운 원과의 교섭에 따라 들어온 외래 요소의 유입이다. 고려후기는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에 시집 온 원의 공주들이나 고려의 여인으로 원 황실이나 귀족들과 결혼하여 혼인관계를 이루었다.²⁹⁾ 그리고 관제개혁, 정동행성 등 정치적인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그 영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 황실에서 신봉하던 티벳계 라마교의 전래도 고려후기 미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려왕의 초청으로 라마승려들이 고려에 입국하였고 왕과 공주는 이들로부터 직접 계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전례없는 밀접한 관계는 원 황실이나 고려내 사찰 중건 및 불사로 이어져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고려의 여인으로 원 황후가 되었던 순제와 기황후대에는 그 수가 더욱 많아져 특히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불

29)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7, pp.132~136.

사는 매우 유명하다. 불사를 통한 후원자적 성격 이외에도 당시 고려에는 원의 장인들이 직접 오기도 하였는데 장안사 불사에 동원된 원의 장인들, 제주도 건축에 왔던 장인들을 비롯해서 개성과 지방에 까지 많은 수의 장인들이 와서 불교미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도 법화사에 있었던 원대의 불상을 1406년 명의 사신 황엄이 직접 가져갔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는 원대의 장인만이 아니라 불상까지 고려에 들어 온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려 후기 원과 관련된 불상은 여래상과 보살상으로 분류된다. 여래상으로는 1361년 작품으로 추정되는 전북 익산군 원수리사지 출토 순금제여래좌상과〈사진 4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여래좌상은 모두 항마촉지인의 수인이 특징이며 오른쪽 어깨를 감싼 변형 편단우견의 대의 또는 편단우견 그리고 육계 위에 보주를 얹은 머리와 삼각을 이루는 양련과 복련이 대칭으로 배열된 대좌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식은 1345년 북경 거용관 여래좌상, 1336년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 동조여래좌상과 비교되며 그 시원은 티베트의 불상에서 찾을 수 있다.

보살상은 그 수가 더 많은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과〈사진 47〉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의 불신만 남은 금동보살좌상을 들 수 있다. 이 두 구의 보살상은 크기나 양식상 거의 비슷하여 원래는 협시보살이



〈사진 46〉 순금제여래좌상,
고려 1361년, 전라북도 익산
원수리사지 출토



〈사진 47〉 금동보살좌상,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살상들은 모두 20cm내외의 작은 금동불로서 이국적인 얼굴에 가는 허리, 오엽보관, 큰 원반형 귀걸이를 하였으며 정교하고 섬세한 조각기법에서 이전의 전통적인 보살상과는 다른 화려한 모습의 작품들이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보살상은 원래 금강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며 원래는 세 구가 발견되었다고 전하는 점에서 삼존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금강산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1344년과 1374년의 명문이 있는 상들이 있으며 조선전기의 금동보살상들도 다수 출토되었다. 이는 원과 고려후기의 왕실이나 귀족들 사이에 유행했던 금강산 신앙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기황후가 아들을 황제로 옹립하기 위한 기도를 위해 금강산에 대대적으로 불사를 단행했던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된다.

고려후기의 불상은 대략 1350년 왜구의 침입을 계기로 도상과 조형상의 변화를 보인다. 도상적으로는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삼존불이 관음과 지장보살상으로 바뀌는 점이다.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삼존불상과 1388년명 은제아미타삼존불좌상이 대표적인 작품이다<사진 48>. 또한 아미타삼존불의 경우 관음과 지장보살을 협시로 하면서 통일신라의 계승이 아닌 새로운 향마축지인의 수인이 아미타불과 결합하게 된다. 즉 오른손은 향마축지를 왼손은 선정인의 자세에서 엄지와 검지를 구부린 중품



〈사진 48〉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고려, 동국대학교박물관

하생을 결하는 새로운 아미타불이 등장하는데, 이후 조선시대에 까지 계속 유행하는 보편적 형식으로 정착된다.³⁰⁾ 양식적으로는 불신에 비해 얼굴이 커지거나 무릎의 폭이 좁아지는 비례를 비롯하여 방형의 얼굴형과 경직된 표정, 투박한 주조기법 등에서 변화요인을 찾을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불교조각 가운데 철불을 제외한 불상들을 전기와 중기, 후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각 시기의 불교조각들은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이며 때로는 고려적 미감이 잘 반영된 시대적 특징을 드러낸다. 이 작품들은 고려왕권의 강화와 정치 기반의 완성이라는 역사 현상이나 불교 문화의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송이나 요, 원 등 중국 왕조의 변천과 고려와의 문화 교류 상황에 따르는 새로운 요소의 수용이 불교 조각 표현의 변화와 흐름에 큰 변화를 주었음도 알 수 있다.

30) 정은우, 「조선후반기 조각의 대외교섭」, 『조선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pp.190~191.

총평과 질문

김 리 나★

정영호선생님 발표

정영호 선생님께서 통일신라시대 조각의 발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개괄해 주셔서 간단하나마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흐름과 중요성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불교조각 연구의 초창기에는 정선생님과 원로 학자분들인 황수영 선생님, 진홍섭 선생님들의 현지 답사와 조사연구로 오늘날의 불교조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들의 현황, 크기, 위치해 있는 곳의 역사적인 배경 또는 그 지역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조사하여 불상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누비시며 조사하셨던 경험담이나 새로운 발견에 대한 뒷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 두시면 후학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선선생님 발표

한국의 불상중에서 통일신라 후반기 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 전기까지 많이 제작되어 예배된 철조불상은 철불을 제작한 지역성, 철불을 봉안한 불교종파의 성격과 의미, 재료상에서 오는 불상표현상의 특징 등 한국조각사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최인선 선생님의 포괄적인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질문으로는 선생님의 설명 중에 강원도 원주지방의 철불들과 충주지방의 철불들의 계보가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 철불이 통일신라의 전통을 이어주고 있다면 충주 철불에는 지역적인 양식변화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러한 철불의 유행과 당시 철의 생산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철불은 처음 제작할 때 부터 표면에 도금을 안했다고 생각되는데 예배대상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충청남도 서산의 보원사지에서 대형 철불 두 구가 전래되고 있는데 이 상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은우선생님 발표

정은우 선생님께서는 고려 불상중에서도 고려후기의 불상과 원과의 관계에서 영향 받은 티베트계 고려 불상을 중점적으로 연구 하였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고려불상의 다양성과 단계적 변화 및 중국과의 영향관계를 정리하여 주어 고려불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은 주로 전기와 후기에 많이 남아 있고 연구도 이 시기에 집중되어있는 편인데, 중기라는 시대를 설정하고 그 특징을 중국 요, 송대 불상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고찰한 부분은 새로운 시도로 보입니다.

질문으로는 고려전기 불상의 계보에 백제불상의 전통을 이어주는 예들을 언급하셨는데 시대적으로도 너무 올라가고 또 그 상들은 대부분 통일신라를 거쳐서 변형되는 상들로 생각되므로 오히려 전라도 지역 양식계열과 같이 충청지역의 양식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구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 제가 불상 조사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불상을 조사하러 다닐 때에 자칫 불상이 불자들의 예배대상이라는 것을 잊

어버리고 실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전에 합천에 있는 청량사의 불상을 TV프로그램에 소개하기 위하여 녹화를 한 적이 있는데 불상을 설명하면서 ‘이것은...’하고 시작하였다가 스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상을 ‘이것’이라고 무례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버쩍 들었지요. 또 한번은 국립경주박물관의 정원에 진열되어있는 분황사 출토의 불상들을 소개하였는데 절에 다니시는 집안의 어른께서 ‘제발 머리없는 부처님 상을 소개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상은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면서도 많은 불교신자들의 예배대상임을 잊지 않고 존경심을 가지고 조사에 임한다면 불상이라는 종교미술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 할수 있을 것이며 한국 불교조각연구에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회보

(2007. 1. 1 ~ 2007. 12. 31)

2007. 03. 02 ~ 2007. 04. 10 수락산보루 보존 및 정비사업 지표조사
2007. 03. 02 ~ 박물관 이전 관련 유물확인 및 유물포장
2007. 05. 02 ~ 2007. 06. 02 제26회 특별전 개최(민속 · 복식분야)
- 장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중앙홀 및 2층 전시실
- 주제 : 대전 출토 강릉 김씨(女, 조선후기) 유물
2007. 05. 02 제25회 학술발표 개최(민속 · 복식분야)
- 일시 : 10:00 ~ 16:00
- 장소 : 단국대학교 난파기념음악관
- 발표자 및 논제
- 고부자(단국대학교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대전 출토 강릉 김씨(女, 조선후기) 유물”
 - 금중숙(단국대학교대학원 전통의상학과 박사과정)
“대전 출토 강릉 김씨(女, 조선후기) 유물의 바느질 연구”
 - 김주영(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조교)
“대전 출토 강릉 김씨(女, 조선후기) 유물의 피륙 연구”
2007. 05 정기연구발표지 『韓國服飾』 제25호 발간
2007. 05. 02 ~ 2007. 06. 02 포천시 신북면 프리존리조트 조성사업 지표조사
2007. 05. 10 ~ 2007. 06. 05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지표조사
2007. 05. 20 ~ 2007. 08. 31 대부도 NCC 골프장부지 조성사업 지표조사
2007. 07. 02 ~ 2007. 07. 31 박물관 유물 운송 및 사무실 이사(한남동→죽전)

2007. 10. 15 ~ 2007. 11. 15	남산관광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지표조사
2007. 11. 01 ~ 2007. 11. 30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표조사
2007. 11. 07 ~ 2007. 12. 07	도림 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표조사
2007. 11. 30	제22회 정기연구발표회 개최(고고·미술분야) 일시 : 14:00 ~ 18:00 장소 : 박물관 컨벤션홀 발표자 및 논제 - 정영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관장)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불상-석조불상을 중심으로” - 최인선(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의 불상” - 정은우(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고려시대의 불교조각”
2007. 11. 15 ~ 2008. 01. 30	용인 마북지구 대학촌 조성사업 지표조사
2007. 12	『榻影 名選』 中 발간

구입 및 기증받은 도서목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759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내 울산 조일리 유적	경성대학교박물관	기증
10760	태종대 진입도로 확장부지내 부산 동삼동 유적	경성대학교박물관	기증
10761	김해 진례 도예촌 조성부지내 김해 송정리 유적	김해시 /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0762	동래 명장동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0763	고성-자은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고성 무선리 유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0764	경부고속도로(경남구간) 확장구간내 양산 소토리 고분군 (부·양산 소토리 622-33번지 유적)	한국도로공사 /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0765	함안 칠원읍 도로개설구간내 칠원읍성	함안군 /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0766	실직국과 해오름의 고장 동해·삼척	국립춘천박물관	기증
10767	고고와 민속 제9집(C.1)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10768	조선시대 남자임성 맛·멋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증
10769	학예지 제13집 육군박물관 개관 50주년 특집(C.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기증
10770	경기도 가평군·양평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C.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기증
10771	문헌진 백제문화로의 산책, 한성백제	경기도박물관	기증
10772	국립경주박물관 연보 2005	국립경주박물관	기증
10773	일제가 강점한 『조선』	한국영상문화사	기증
10774	경주사학 제24·25합집	경주사학회	기증
10775	한국상고사학보 제54호	한국상고사학회	기증
10776	청도 봉기리 유적 -본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0777	청도 봉기리 유적 -사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0778	서울의 도요지와 도자기(C.1)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0779	『청계천』 발굴유물특별전 도록(C.1)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780	기전고고 제5호 2005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연구원	기증
10781	파주 금송리·덕은리 유적 -파주 LCD지방산업단지내 문화재 시·발굴 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경기지방공사	기증
10782	동백-죽전간 도로개설구간내 용인 청덕리 백제 수혈유구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기증
10783	오산 수정동 유적 우미아파트 건설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주)우미건설	기증
10784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14지점 발굴 조사 보고서- 〈본문·도면〉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기증
10785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14지점 발굴 조사 보고서- 〈사진〉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기증
10786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14지점 발굴 조사 보고서- 〈형식분류DATA〉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기증
10787	화성 향남(2)택지개발 예정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기증
10788	포천 길명리 흑유자요지 -포천 일동~영중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효자건설	기증
10789	평택 공리 유적 -고덕 영화APT신축부지내 문화유적발굴조 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주)영화건설	기증
10790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13집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791	박물관보존과학 제7집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792	제5호 도시역사문화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0793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시굴조사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 / 경기지방공사	기증
10794	경상북도박물관(C.1)	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기증
10795	경상북도박물관발전방안(C.1)	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 국립경주박물관	기증
10796	제천시지 상	제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10797	제천시지 중	제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10798	제천시지 하	제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10799	도시역사박물관 수장품 정책의 새로운 지평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800	문물연구 제9호 2005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기증
10801	문물연구 제10호 2006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 한국문물연구원	기증
10802	철원의 성곽과 봉수	철원문화원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기증
10803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제2호(C.1)	삼성문화재단	기증
10804	압도국과의 통신 토기의 메시지	영남대학교박물관	기증
10805	나전칠기 : 천년을 이어 온 빛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06	100년전 충북의 옛 모습 청주 - 보은군 편	충북개발연구원 부속 충북학연구소	기증
10807	충북학 제8집 2006	충청북도 / 충북학연구소	기증
10808	현대시의 아버지 정지용 평전	충청북도 / 충북학연구소	기증
10809	문화재보존연구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0810	고문화 68(C.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기증
10811	노촌선생문집	제주교육박물관	기증
10812	미술사연구 제20호	미술사연구회	기증
10813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 사찰벽화	국립대구박물관	기증
10814	영남의 서원건축 사진전	국립대구박물관	기증
10815	민족문화논총 제3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기증
10816	여주(부발)-충주-문경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 지포조사보고서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주)한국철도기술공사 / (주)태조엔지니어링	기증
10817	문화유적분포지도 -함양군-	함양군 / 경남대학교박물관	기증
10818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울특별시(강남편)- / 강남 11개구 항공사진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0819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기증
10820	도서문화 제27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기증
10821	세계사 속의 해전	해군사관학교	기증
10822	울산천곡동굴마을유적(C.1)	(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0823	울산매곡동신기유적(C.1)	(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0824	울산대대리중대유적(C.1)	(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0825	2000-2004년도 지표·시굴조사 보고서	(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0826	울산매곡동신기유적II(C.1)	(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0827	울산매곡동유적IV지구(C.1)	(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828	울산굴화리장검유적Ⅱ(C.1)	(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0829	울산동천리유적(C.1)	(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0830	울산화산리온곡유적(C.1)	(재)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0831	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이야기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문화관	기증
10832	공주 금학동 고분군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기증
10833	보령 화산동 옥악골 고분군 및 창동리 읍골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0834	홍성 옥암리 구석기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0835	천안 청당동 구석기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0836	금강고고 제3집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0837	국민대학교박물관 소장유물도록	국민대학교박물관	기증
10838	동원학술논문집 제8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기증
10839	당진 안국사지(C.1, C.2)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당진군	기증
10840	대전 장대동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주)대상종합개발	기증
10841	서천-공주간(2·3공구)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청양 학암리·분향리 유적 -본문-(C.1, C.2)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한국도로공사	기증
10842	서천-공주간(2·3공구)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청양 학암리·분향리 유적 -도면·도판-(C.1, C.2)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한국도로공사	기증
10843	아산 학성산성 -서문지·서벽·건물지 발굴 조사-(C.1, C.2)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아산시	기증
10844	공주 김옥균 선생 유허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공주시	기증
10845	문화재기능의 맥(C.1)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기증
10846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10847	전곡리 구석기사람들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기증
10848	미술사학연구 252	한국미술사학회	기증
10849	간찰 1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50	한글금속활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51	가야의 미	국립김해박물관	기증
10852	서울의 도요지와 도자기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0853	미술자료 제75호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54	전통문화논총 4호	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855	연보 2005년도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10856	증원의 새로운 문화재	증원문화재연구원 /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10857	현릉원원소도감의궤 -역주-	경기도박물관	기증
10858	현릉원원소도감의궤 -원전-	경기도박물관	기증
10859	김천송죽리유적 I (C.1)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기증
10860	김천고동유적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기증
10861	보존과학연구 27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10862	과기고고연구 12	아주대학교박물관	기증
10863	인문과학논총 제44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증
10864	문화유적분포지도 -성남시-	성남시 / 상명대학교박물관	기증
10865	문화유적분포지도 -양평군-	양평군 / 상명대학교박물관	기증
10866	문화유적분포지도 -양주시-	양주시 / 상명대학교박물관	기증
10867	양평 병산리유적 (2)	경기도 /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10868	대구신당동건물지 조사보고서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기증
10869	문화유적분포지도 -경산시-	경산시 /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10870	여주 근현대 행정자료	여주군향토사료관	기증
10871	경북대학교박물관 연보 2006	경북대학교박물관	기증
10872	안동의 계Ⅱ	안동민속박물관	기증
10873	야외고고학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기증
10874	한국기독교박물관지 제2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0875	하동읍성 I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0876	하동읍성Ⅱ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0877	거창 정장리유적Ⅰ 구석기시대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0878	거창 정장리유적Ⅱ 구석기시대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0879	양산 순지리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0880	마산 합포성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0881	실상사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10882	왕궁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10883	미술연구 제390호	동경문화재연구소	기증
10884	증원문화논총 제10호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기증
10885	고인쇄문화 제13집(C.1)	청주고인쇄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886	신안선 -본문-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증
10887	신안선 -청자, 흑유-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증
10888	신안선 -백자, 기타유물-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증
10889	충주 송선사지(C.1)	충청대학 박물관 / 충주시	기증
10890	목포대학교 60년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891	발굴유적과 유물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892	서화와 고문헌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893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문화 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894	완도 군외-남창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시·발굴 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895	2004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896	2005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897	2005착수 현화1 양화2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898	2005착수 양곡, 신기2, 양매지구 받기반 정비사업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899	임자 하수처리시설 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 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900	목포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지역 문화 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901	압해 하수처리시설 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902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903	마사박물관지(2006)(C.1)	마사박물관	기증
10904	한성인문학 제5집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증
10905	세계문화유산 화순지석묘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기증
10906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복식	충북대학교박물관	기증
10907	박물관지 제15호	충청대학박물관	기증
10908	제천 신록사 극락전 벽화 및 단청 조사보고서	충청대학박물관 / 제천시	기증
10909	정신문화연구 105호(C.1)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910	법인세 신고 안내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 요령-	국세청	기증
10911	영남 고고학 40	영남고고학회	기증
10912	포항 호동유적 I (I지구)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0913	경주 화곡리유적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0914	한국 기독교 자료 해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0915	한국 기독교 고전 세계화 시리즈 I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0916	특별전 금강-최근 발굴 10년사	국립공주박물관	기증
10917	한국의 종이문화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0918	충남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 충청남도	기증
10919	전남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0920	한국의 벼루	온양민속박물관	기증
10921	전통과학기술 조사연구(V)	국립중앙과학관	기증
10922	한국의 금속기	연세대학교박물관	기증
10923	1906~1907 한국·만주·사할린 독일인 헤르 만 산더의 여행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0924	몽골의 유목문화와 민속 읽기	민속원	구입
10925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구입
10926	몽골 민속 현장 답사기	민속원	구입
10927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이해	민속원	구입
10928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민속원	구입
10929	우리동네 옛 이야기와 노래	민속원	구입
10930	하상주 단대공정 01	일빛	구입
10931	하상주 단대공정 02	일빛	구입
10932	북경의 명십삼릉 01	일빛	구입
10933	북경의 명십삼릉 02	일빛	구입
10934	영산강 유역 고분 토기 연구	학연문화사	구입
10935	한국 마을 곳 연구	지식산업사	구입
10936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지식산업사	구입
10937	중국 황토 지역의 역대 무덤들	연천선사박물관 / 백산자료원	구입
10938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양권	주류성출판사	구입
10939	백제 고분 발굴 이야기	주류성출판사	구입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940	백제의 문화유산	주류성출판사	구입
10941	백제 지역의 고대산성	주류성출판사	구입
10942	백제의 경제생활	주류성출판사	구입
10943	고고학 자료로 본 고대 시베리아의 예술세계	주류성출판사	구입
10944	중국고대동경	주류성출판사	구입
10945	알타이 샤머니즘	국립민속박물관	구입
10946	경기지역의 고인돌 연구	학연문화사	구입
10947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신동향	학연문화사	구입
10948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학연문화사	구입
10949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구입
10950	조선왕릉석물지	민속원	구입
10951	중국 발해만의 해양민속	민속원	구입
10952	중국성황관련논문선	민속원	구입
10953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구입
10954	한국 매장 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1	국립문화재연구소	구입
10955	새롭게 보는 가야 고고학	학연문화사	구입
10956	전통불화의 맥 그 실기와 이론	학연문화사	구입
10957	태백산 민속지	민속원	구입
10958	한·몽 민속문화의 비교	민속원	구입
10959	무당내역	민속원	구입
10960	몽고초원	민속원	구입
10961	아시아민족지	민속원	구입
10962	한국의 풍수설화연구	민속원	구입
10963	잃어버린 신화 바위문화이야기	민속원	구입
10964	한·중·일 설화비교연구	민속원	구입
10965	아시아의 무속과 춤 연구	민속원	구입
10966	조선산업지 상	민속원	구입
10967	조선산업지 중	민속원	구입
10968	조선산업지 하	민속원	구입
10969	박물관지 제13호(C,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10970	신안선과 동아시아 도자교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971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증
10972	신라인 장보고 - 바닷길에 펼친 교류와 평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증
10973	시가 있는 옛 풍경 -산수화-	순천대학교박물관	기증
10974	문화유적분포지도 -산청군-	산청군 / 경상대학교박물관	기증
10975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진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976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무안군-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증
10977	청송심씨 만포가 기증고문서 -역주-	경기도박물관	기증
10978	청송심씨 만포가 기증고문서 -영인-	경기도박물관	기증
10979	역사학보 제174집	역사학회	기증
10980	정한덕 교수 기증도서목록	부산대학교박물관	기증
10981	한국의 세계유산	문화재청	기증
10982	부여 정각리 갯점골 유적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증
10983	서천 송내리 유적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증
10984	생활문물연구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0985	문화재보존 - 관리지침집(C.1)	문화재청	기증
10986	2002년도 과학기술정책포럼집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증
10987	아산 와우리 · 신법리유적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주)대림산업	기증
10988	천안 두정동 유적(C · D지구)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천안시경제개발사업소	기증
10989	한국사연구회보	국사편찬위원회	기증
10990	연보(1998년~2000년)	제주교육박물관	기증
10991	제6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기증
10992	역사학보 제175집	역사학회	기증
10993	회당학보 제7집	회당학회	기증
10994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선사유적 I	경상남도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기증
10995	함안 도항리 고분IV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기증
10996	함안 마갑총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함안군	기증
10997	연보 제5호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기증
10998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성시 /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999	사천 송지리 옛 무덤 떼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11000	강원지역의 역사와 문화(C.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11001	사천 구평리유적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11002	불교미술 18	동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1003	알기쉬운 박물관 둘러보기(일문판)	국립춘천박물관	기증
11004	연보 2006년(제4호)	국립춘천박물관	기증
11005	무령왕릉 출토유물 분석보고서(Ⅱ)	국립공주박물관	기증
11006	조선 근대와 만나다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기증
11007	나무의 방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1008	홍선대원군과 운현궁 사람들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1009	대구 연경지역(태봉·들연경)마을지	경북대학교박물관	기증
11010	용유동 남북동-을왕동 I 유적(C.1)	서울대학교박물관 / 인천국제공항사	기증
11011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보고서(C.1)	서울대학교박물관 / 연천군	기증
11012	화성 마하리 백제 집터(C.1)	서울대학교박물관	기증
11013	임진강유역 구석기유적 형성의 지질학적 배경 이해를 위한 기초연구 I (C.1)	서울대학교박물관	기증
11014	암사동 98번지 일원 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 강동구청	기증
11015	강화고인돌공원 예정지 시굴 및 발굴조사보고서(C.1)	서울대학교박물관 / 강화군	기증
11016	연천 전곡 농협 신축부지 일대 발굴조사보고서(C.1)	서울대학교박물관 / 전국농업협동조합	기증
11017	삼곡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C.1)	서울대학교박물관	기증
11018	상주 양진당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019	국립중앙박물관 60년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1020	박물관 연보 제7집(C.1, C.2, C.3)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11021	기장 교리유적	북천박물관	기증
11022	경기묘제석조미술[上]조선전기 도판편(C.1)	경기도박물관	기증
11023	경기묘제석조미술[上]조선전기 해설편(C.1)	경기도박물관	기증
11024	박물관지 제2·3합집	관동대학교박물관	기증
11025	삼척 성북동 갈야산 고분군	관동대학교박물관 / 삼척시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026	동해 구미동·구호동 유적 -동해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관동대학교박물관 / 강원고고학연구소	기증
11027	남북관광교류타운 건립예정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관동대학교박물관	기증
11028	345kV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 관동대학교박물관	기증
11029	삼척 궁촌리유적	관동대학교박물관	기증
11030	삼척 하맹방리유적 -삼척 맹방관광지 기반조성도로 공사지역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관동대학교박물관 / 삼척시	기증
11031	박물관지 제4집	관동대학교박물관	기증
11032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수몰예정지구 문화재보완 지표조사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연세대학교박물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기증
11033	연천 상·옥산지구 경지정리공사부지 문화재시굴조사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증
11034	수원 이의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내 묘역조사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경지지방공사	기증
11035	평택 오성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경기지방공사	기증
11036	파주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경기지방공사	기증
11037	경기도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I)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기증
11038	파주시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I)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기증
11039	00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제1017부대	기증
11040	김포 양촌 주택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기증
11041	대구 월성동 1275유적	영남대학교박물관	기증
11042	대구 월성동 585유적	영남대학교박물관	기증
11043	순천시의 성곽과 봉수	순천시 / 순천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기증
11044	한국상고사학보 제 55호	한국상고사학회	기증
11045	중원문화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통일시대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개발의 차별화 전략	충청북도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46	문경 석현성	문경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047	충주 탄금대	충주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48	망이산성	음성군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49	문경 탄항봉수	문경문화원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50	용인 처인성 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기증
11051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기증
11052	청주 정북동 토성Ⅱ	청주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53	한국의 근세산성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54	오창~진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시굴·발굴 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증
11055	장미산성	충주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56	청주읍지	청주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57	충주 마산봉수	충주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58	신라, 백제 격전지 (관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옥천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59	제천 황석리산성·제비량산성·대덕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제천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60	어림산성 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한국남동발전(주)예천양수건설처 / 보은군	기증
11061	보은 삼년산성	보은군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62	충주산성	충주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63	청원 양성산성 원지 발굴조사보고서	청원군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64	제천 덕주산성	제천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기증
11065	문화유적분포지도 -동해시-	동해시 / 관동대학교박물관	기증
11066	문화유적분포지도 -동두천시-	국민대학교박물관	기증
11067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관광부	기증
11068	한국마의학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기증
11069	성곡논집 상권	(재)성곡학술문화재단	기증
11070	성곡논집 중권	(재)성곡학술문화재단	기증
11071	성곡논집 하권	(재)성곡학술문화재단	기증
11072	성곡논집 총람	(재)성곡학술문화재단	기증
11073	용암리	화천군 /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074	진천 삼릉리·산수리 토기 요지군 -본문-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11075	진천 삼릉리·산수리 토기 요지군 -사진-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11076	당진 자개리 유적(I)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1077	새로 찾은 충북의 유적과 유물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078	봄농사 2007 농업박물관 기획전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기증
11079	증원문화논총 제7집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기증
11080	증원문화논총 제8집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기증
11081	증원문화논총 제9집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기증
11082	서천 추동리 유적 I 지구(본문)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1083	서천 추동리 유적 I 지구(도면)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1084	서천 추동리 유적 I 지구(사진)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1085	가야문화 제19호(C.1)	(재)가야문화연구원	기증
11086	군산 내흥동 유적 I (I·II·IV지역)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1087	군산 내흥동 유적 I (III지역)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1088	군산 내흥동 유적 I (V·VI·VII지역)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1089	서천 남산성 서문지 1,2차 발굴조사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서천군청	기증
11090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091	문화유적분포지도 -창원시-(C.1)	창원시 / 창원대학교박물관	기증
11092	문화유적분포지도 -함안군-(C.1)	함안군 / 창원대학교박물관	기증
11093	강진 현산리 가마(C.1)	한국수자원공사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094	나주 운흥사 건물지 3,4차 발굴조사보고서 (C.1)	나주시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095	나주 신평리 기와가마	나주시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096	서울대학교박물관 연보18	서울대학교박물관	기증
11097	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연천군	기증
11098	문화유적분포지도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옹진군-(C.1)	인천광역시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099	지구촌얼굴(C.1)	지구촌민속박물관 / 한양대학교박물관	기증
11100	이성산성 발굴 20주년 기념 특별전(C.1)	한양대학교박물관	기증
11101	고마운 흙 토기 화려한 흙 자기	한양대학교박물관 / 생각하는 박물관	기증
11102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C.1)	대한주택공사 / 한양대학교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103	박물관지 제6권 2005년도(C.1, C.2)	한양대학교박물관	기증
11104	영흥도 외1리 패총(C.1)	옹진군 / 한양대학교박물관	기증
11105	광주향교 수복사 발굴조사보고서(C.1)	하남시 / 한양대학교박물관	기증
11106	이성산성 11차 발굴조사보고서(C.1, C.2)	하남시 / 한양대학교박물관	기증
11107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Ⅱ(C.1, C.2)	안산시 / 한양대학교박물관	기증
11108	도서문화 제28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기증
11109	선암사의 건축	선암사성보박물관	기증
11110	문화유적분포지도 -청송군-	청송군 / 안동대학교박물관	CD
11111	호남기독교 선교초기의 발자취	전주대학교박물관	기증
11112	진안 단양리 와요지 유적	전주대학교박물관 / 진안군	기증
11113	장수 송천리 건물지 유적	전주대학교박물관 / 장수군	기증
11114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전주대학교박물관 / 전주시	기증
11115	정읍-완주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전주대학교박물관 / 전라북도	기증
11116	문화유적분포지도 -진안군-	진안군 / 전주대학교박물관	CD
11117	경주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건립예정부지 (C.1, C.2)	경주대학교박물관	기증
11118	대구 대천동 현대 흙타운 신축부지 내 발굴 조사보고서(C.1, C.2, C.3)	경주대학교박물관	기증
11119	한국미술 2007	(주)월간미술	기증
11120	조선시대 여인들의 화려한 외출	엠티민속박물관	기증
11121	고대와 현대 속에서 전통문화 찾기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단	기증
11122	천마고고학논총 (석심정영화교수 정년퇴임기념)	석심정영화교수 정년퇴임논총 간행위원회	기증
11123	불교 중앙박물관 개관특별전 불	불교중앙박물관	기증
11124	박물관 교육-어린이박물관 운영사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기증
11125	고려대학교교우회 창립100주년 기념 특별전 입실렌티 체이흠!	고려대학교교우회 / 고려대학교박물관	기증
11126	미술사학연구 253(C.1)	한국미술사학회	기증
11127	2007 조명박물관 한·일 국제교류전 감성조명 필룩스와 함께하는 Light+Basketry 전	필룩스 조명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128	아름다운 우리 옛 살림 여인의 향기	온양민속박물관	기증
11129	연보 4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130	소장품테마전 13 한국미술 속의 정원을 걷다.	호암미술관	기증
11131	안덕~대정간 국도 1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시굴조사보고서	제주문화예술회관 / (주)삼환기업 / (주)남경산업	기증
11132	가파도 추정고인돌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제주문화예술회관	기증
11133	제주 하모리 유적	제주문화예술회관 / 서귀포시	기증
11134	제주 성읍리 유적	제주문화예술회관 / 서귀포시	기증
11135	삼양유원지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제주문화예술회관 / (주)21세기 컨설팅	기증
11136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회관	기증
11137	한국복식 제25호(C,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11138	전라도 지역의 선종산문과 장보고집단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11139	9세기 후반 신라인의 해상활동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11140	장보고 자료집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11141	장보고 CEO정신 재조명과 동북아물류 글로벌네트워크화 연구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11142	장보고와 한국 해양 네트워크의 역사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11143	장보고 선단과 해양불교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11144	대외문물교류연구 4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11145	대외문물교류연구 5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11146	대구 대봉동 마을 유적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147	도개 신림리 유적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148	고령 지산동 유적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149	경주 금장리 유적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150	한국사연구회보	국사편찬위원회	기증
11151	풍납토성Ⅶ	한신대학교박물관	기증
11152	화성 반송리 청동기시대 취락	한신대학교박물관	기증
11153	연보 제16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증
11154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본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증
11155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사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증
11156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고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157	문화유적분포지도 -의령군-	경성대학교박물관	기증
11158	해촌서원지	해촌서원	기증
11159	청양 대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부지내 청양 대박리 백자요지	중앙문화재연구원 / 한국농촌공사	기증
11160	충주 용산동·대곡리·장성리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11161	대덕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 부지내 대전 용산동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11162	청주 분평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신축부지 청주 분평동 유적(진천 갈월리 유적, 고양 덕 이동 유적, 보은 봉황리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11163	제천 하소동 아파트 신축부지 제천 하소동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11164	양산 물금 가촌리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1165	창녕 말흘리 고려시대 건물지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1166	창녕 말흘리 고려시대 건물지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1167	밀양 신안유적Ⅱ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1168	밀양 신안 선사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1169	합천 도시계획도로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1170	함안 소포리 유적Ⅱ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기증
11171	평창 대상리 사지	강원문화재연구소 / 평창군	기증
11172	강원감영	강원문화재연구소 / 원주시	기증
11173	원주 무실동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기증
11174	강릉 병산동 주거지 -강릉 병산동 320-3번지내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11175	강릉읍성 -강릉 중앙동사부지 내 유적 -강릉 명주동 14번지 주택부지 내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 강릉시	기증
11176	홍천 연봉 구석기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기증
11177	강원 원주 혁신도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 /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11178	강릉 방동리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 강릉시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179	강릉지역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강릉 입암동 유적 -강릉 송림리 유적 -강릉 선교장 노야원지	강원문화재연구소 / 강릉시	기증
11180	고성 송현리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 현대건설	기증
11181	신매리 10·47-1번지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11182	탐라문화 제3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기증
11183	문물연구 제11호	(재)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 한국문물연구원	기증
11184	전환기의 선사토기 자료집	국립김해박물관	기증
11185	화순 대곡리 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 / 화순군	기증
11186	나주 신촌리 토성	전남대학교박물관 / 나주시	기증
11187	순천왜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박물관 / 순천시	기증
11188	함평의 고분	전남대학교박물관 / 함평군	기증
11189	한국민족문화 2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증
11190	동양문화연구 제9호	한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기증
11191	문화유씨소운공파소암공세보	문화유씨소운공파소암공문증	기증
11192	간송문화 제72호	한국민족미술연구소	기증
11193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기증
11194	충북의 사지	청주대학교박물관	기증
11195	청주대학교 박물관지 제19호	청주대학교박물관	기증
11196	한국민족학연구 4(C,1)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기증
11197	문화사학 제23호(C,1)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11198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 조사 보고서	경기도 광주군 광주문화원 /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기증
11199	한국복식 제9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11200	한국복식 제11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11201	한국민속학연구 5(C.1, C.2, C.3, C.4, C.5)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기증
11202	땅과 바다와 철도로 가는 신 실�크로드Ⅰ	한국언론인협회	기증
11203	땅과 바다와 철도로 가는 신 실�크로드Ⅱ	한국언론인협회	기증
11204	인류의 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연합뉴스	기증
11205	한국인에게 고향	한문화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206	평성8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07	평성9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08	평성12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09	평성14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10	평성15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11	평성5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12	평성3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13	평성6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14	소화62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15	평성11년 정창원전	나양(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16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시굴조사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 / 경기지방공사	기증
11217	의정부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 건설공사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증
11218	평택도곡리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 / (주)대원글로벌스포츠	기증
11219	문화유적분포지도 -군포시-	세종대학교박물관	CD
11220	미술연구 제391호	동경문화재단연구소	기증
11221	영남고고학 41	영남고고학회	기증
11222	황강이 전하는 삶의 흔적	합천박물관	기증
11223	타타라(골풀무)연구 제1	시인사	기증
11224	타타라(골풀무)연구 제2	시인사	기증
11225	타타라(골풀무)연구 제3	시인사	기증
11226	과기고고연구 제12호	아주대학교박물관	기증
11227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기장 방곡리 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기증
11228	유적과 유물	울산대학교박물관	기증
11229	금대복식 - 금제국왕묘 출토복식 연구	문물출판사	기증
11230	근대중국여장실록	동화대학출판사	기증
11231	성길사한 능	내몽고인민출판사	기증
11232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기증
11233	영국인 사진가의 눈으로 본 한국 - 1953,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서울대학교박물관	기증
11234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신보 제136집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235	경기도 고인돌	경기도박물관	CD
11236	강화 교동 2-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한국농촌공사 강화지사	기증
11237	강화 군내도로 확·포장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강화군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1238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1239	연보 제2호 2002~2006	한밭교육박물관	기증
11240	아산 초사동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내 아산 초사동 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아산시	기증
11241	공주 제천리 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주)우성씨에스	기증
11242	계룡 두계리 유적 -계룡 두계 포스코 The#아파트 신축공사부지내 발굴조사 -계룡 두계 아파트 신축공사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기증
11243	부여 가탑리 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기증
11244	예산 삼포 두리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예산군	기증
11245	아산 성내리 신석기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한국전력공사	기증
11246	정신문화연구 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증
11247	진리의 빛 비로자나부처	국립경주박물관	기증
11248	한국조선문화연구 제10호	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한국 조선문화연구실	기증
11249	규장각도서 한국본종합목록 상	서울대학교도서관	기증
11250	규장각도서 한국본종합목록 하	서울대학교도서관	기증
11251	신라 왕경인의 삶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제28집	경주시 / 신라문화선양회 / 경주문화원 / 동국대 국사학과	기증
11252	기증유물목록 V 봉화 진성이씨(신천파)편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1253	의성김씨 정와공가고문서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1254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기증
11255	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 I (C.1)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1256	울산 매곡동 신기유적III(C.1)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11257	울산 교동리 수남유적(C.1)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258	놀이와 장엄 두번째 응시-나를 보다	모란미술관	기증
11259	국제학논총 제11집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기증
11260	금강고고 제4집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11261	공주 단지리 유적(본문)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증
11262	공주 단지리 유적(사진)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증
11263	허벌과 제주 질그릇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264	박물관지 제12호(C,1~C,7)	충청대학박물관	기증
11265	불교문화연구 제4집	영취불교문화연구원	기증
11266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14집 - 김천 교동유적 I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기증
11267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15집 - 김천 교동유적 I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기증
11268	왕궁의 공방 I - 금속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11269	서울 청진 6지구 유적 I -지표·발굴조사-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기증
11270	서울 청진 6지구 유적 I -출토유물-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기증
11271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속원	기증
11272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속원	기증
11273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속원	기증
11274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속원	기증
11275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속원	기증
11276	중요무형문화재 제83-나호 이리향제줄풍류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속원	기증
11277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속원	기증
11278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속원	기증
11279	제주도 추는 곳	국립문화재연구소 / 도서출판 피아	기증
11280	대담 - 한국연극이면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도서출판 피아	기증
11281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C,1)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기증
11282	문화유적분포지도 -경산시-	경산시 /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11283	문화유적분포지도 -영양군-	영양군 /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기증
11284	늑도 패총과 분묘군	부산대학교박물관	기증
11285	김해 삼계동 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286	김해 봉황동 442-7번지 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기증
11287	전금관가야궁허지	부산대학교박물관	기증
11288	김해 봉황동 저습지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기증
11289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도록	서울대학교박물관	기증
11290	문화유적분포지도 -가평군-	가평군 /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11291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양시-	고양시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기증
11292	서애 류성룡 서세 400주년 추모다큐멘터리 나라를 구한 명재상 서애 류성룡	서애류성룡 서세 400주년 추모 사업 준비위원회	기증
11293	삼척의 불교미술	삼척시립박물관	기증
11294	한국상고사학보 제56호	한국상고사학회	기증
11295	왕궁리 발굴중간보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11296	실상사II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11297	고구려산성	고구려연구소	기증
11298	불교공예의 미	나라국립박물관	기증
11299	동아시아와 구주	학생사	기증
11300	환선미인	동화대학출판사	기증
11301	민족문화논총 제35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기증
11302	조선시대 선비와 머슴사이	사람박물관 얼굴	기증
11303	아름다운 지구촌 세계 인형전	지구촌민속박물관	기증
11304	경천사 십층석탑 I. 해체에서 복원까지(C.1)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11305	경천사 십층석탑 II. 연구논문(C.1)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11306	경천사 십층석탑 III. 부재별 상세자료(C.1)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11307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308	남양주 수석리토성 지표조사보고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남양주시	기증
11309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제7차 발굴조사보고서	부천시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기증
11310	부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부천시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기증
11311	문화유적분포지도 -남양주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기증
11312	안성시 죽산면 소재 석조문화재 실측조사보 고서	안성시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합)한빛토목	기증
11313	봉업사지 종합정비 학술용역보고서	안성시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기증
11314	문화유적분포지도 -부천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315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발굴조사보고서	부산박물관	기증
11316	문화유적분포지도 -안양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안양시	기증
11317	문화유적분포지도 -과천시-	(재)한백문화재연구원 / 과천시	기증
11318	인천 옥골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가칭)옥돌도시개발조합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19	인천 가정택지개발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대한주택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20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한국도로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 (주)한국해양과학기술	기증
11321	부평묘지공원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기증
11322	인천대 이전 도화동 도시개발사업지역 문화 재 지표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23	강화 초지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24	인천북부지역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25	인천 중구 덕교동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주)경화엔지니어링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26	김포 신곡 6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 조사보고서	(주)건일엔지니어링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27	검단공업지역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28	계양롯데 대중골프장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29	계양롯데 근린공원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30	경서 국민 임대주택단지조성 문화재 지표조 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31	영종역 주변 정비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주)동일기술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32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확대지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33	용현·학익구역(2-1블록)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주)건일엔지니어링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34	연평도항 외곽시설 준설토투기장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335	박물관지 8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증
11336	울산 서하리 서하유적(C.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기증
11337	울주 반곡리유적(C.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증
11338	울산 남창·합수유적(C.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기증
11339	울산 천궁동유적Ⅱ(C.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기증
11340	울주 외광리 취락유적(C.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기증
11341	울산 다운동 대골유적(C.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기증
11342	울주 구영리유적 -본문-(C.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기증
11343	울주 구영리유적 -사진-(C.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기증
11344	김포 대능리유적 -기포 수안산성 주변 이주단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주)서해측량설계공사	기증
11345	김포 문수산성 성곽(남벽) 발굴조사보고서	김포시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기증
11346	양주 회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기증
11347	박물관연구논집 12	부산박물관	기증
11348	부산박물관 기증유물도록Ⅲ, 오대육호 고문서	부산박물관	기증
11349	상하이 박물관 소장. 중국 고대 청동기·옥기	부산박물관	기증
11350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	부산박물관	기증
11351	평택 토진리 유적 평택 현곡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시·발굴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 경기지방공사	기증
11352	파주 당하리 유적 전원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 (주)금강주택	기증
11353	안성 신소현동유적 코아루아파트 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 (주)현우산업개발	기증
11354	용인 심곡서원	기전문화재연구원 / 용인시	기증
11355	고달사지Ⅱ	기전문화재연구원 / 여주군	기증
11356	화성 반월리 속반달이유적 신영통 현대타운 2,3단지 건설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 (주)두산산업개발	기증
11357	화성 봉담 동화리유적 봉담 택지개발지구내 시·발굴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358	여주 연양리 구석기유적 영진리버빌 아파트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 (주)영진씨엔아이	기증
11359	전통문화연구 제5집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기증
11360	궁남지	국립부여박물관	기증
11361	부여 논치 제사 유적	국립부여박물관	기증
11362	충주 승선사지	충청대학박물관 / 충주시	기증
11363	경주 서부동 255-21번지 유적 경주 감포 오류리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기증
11364	경주 건천 용명리 제철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기증
11365	경주 금장리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기증
11366	경주 동천동 792-3번지 유적 경주 인동리 636번지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기증
11367	경주 물천리 고려묘군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기증
11368	익산 울촌리 분구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기증
11369	익산 모현동 유적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기증
11370	익산 옹포 곱개나루 관광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기증
11371	김제 봉월리 기와요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기증
11372	진안 좌포리 유적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증
11373	남원 실상사 백장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남원시	기증
11374	익산 신동리 유적 5,6,7 지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기증
11375	정읍 신정동 유적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기증
11376	군산 여방리 고분군	한국도로공사 / 원광대학교박물관	기증
11377	마한·백제 문화 제16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기증
11378	마한·백제 문화 제17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기증
11379	마한·백제 문화 연구소의 어제와 오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기증
11380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창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기증
11381	아름다운 여성. 신사임당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382	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찰리사 이규원	국립제주박물관	기증
11383	풍자와 해학, 그 풍부한 표정들	하회동탈박물관	기증
11384	한양사람들의 멋과 풍류 바위글씨 편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1385	서울 하늘 땅 사람	서울역사박물관 / 고려대학교박물관	기증
11386	빼돌이 민화, 주글이 옹기	가회박물관 / 옹기민속박물관	기증
11387	풍납토성-잃어버린 왕도를 찾아서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1388	항해와 표류의 역사 국립제주박물관 편	솔출판사	기증
11389	금관가야와 신라	북천박물관	기증
11390	문묘제례악과 양주별산대놀이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기증
11391	포암 강세황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기증
11392	계명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	기증
11393	민화,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계명대학교박물관	기증
11394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보고 제137집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기증
11395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보고 제138집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기증
11396	한국의 소리, 세상을 깨우다	문화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기증
11397	한국의 길, 가슴을 흔들다	문화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기증
11398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부산근대역사관	기증
11399	전통문화연구 제5집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기증
11400	춘천 남양홍씨가 고문서, 고서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연구센터	기증
11401	미술사학지 제4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기증
11402	한독의약박물관	(재)한독제석재단	기증
11403	미술사학연구 254(C.1)	한국미술사학회	기증
11404	미사리 발굴 유물 도록	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1405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기증
11406	소군시문화재조사보고서 제219집	소군시교육위원회 / 후쿠오카대학교고고학 연구실	기증
11407	백제집락의 연구	후쿠오카대학인문학부	기증
11408		후쿠오카대학인문학부고고학연구실	기증
11409	후쿠오카대학교고고자 집성	후쿠오카대학인문학부고고학연구실	기증
11410	짧은 글·깊은 사연 문인 편지전	영인문학관	기증
11411	고문화 69(C.1, C.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한국박물관협회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412	울산 산업로 배면도로 연암 I.C. 개설구간 내 울산 연암동 유적	울산광역시 중앙건설본부 /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13	부산 금곡동 동원지	경남문화재연구원 / (주)디앤시홀딩스	기증
11414	창녕 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창녕 교리유적	창녕군 /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15	김해 대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김해 대성동·동상동 유적	김해시 /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16	고려대학교박물관 연보 2006	고려대학교박물관	기증
11417	고고학지 제15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기증
11418	영남고고학 42	영남고고학회	기증
11419	울진 외선미리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420	기증유물목록 I	국립춘천박물관	기증
11421	한국범종학회 창립학술대회 논문집(C.1)	(사)한국범종학회 / 진천종박물관	기증
11422	현대도자기특별전 도자, 재현과 변용	고려대학교박물관	기증
11423	제주민속조사보고서 1. 덕수리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24	제주민속조사보고서 2. 하도리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25	제주민속조사보고서 3. 김성원씨덕 생활재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26	제주의 민속문화 1. 제주어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27	제주의 민속문화 2. 제주의 무덤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28	제주의 민속문화 3. 제주의 옹기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29	제주의 민속문화 4. 제주의 꽃자왈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30	제주의 민속문화 5. 제주의 음식문화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31	제주의 민속문화 6. 제주인의 인생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32	2007교육백서 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33	소리 만남, 생각 그리고 추억	국립국악원 /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1434	생명을 담다	태영민속박물관	기증
11435	한국상고사학보 제57호	한국상고사학회	기증
11436	도자기에 살아 숨쉬는 동물 물, 땅, 하늘, 상상	해강도자미술관	기증
11437	도자기에 핀 꽃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강도자미술관	기증
11438	작가가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남포미술관	기증
11439	분청의 향기, 그 분으로 치장한 멋	엠티민속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440	명사들의 서화	국민대학교박물관	기증
11441	다시찾은 우리문화재. 선무공신 김시민	국립진주박물관	기증
11442	연보 2005	국립진주박물관	기증
11443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역사 사진전	목아박물관	기증
11444	SENSE&FEELING	마가미술관	기증
11445	경진. 고래 나루터	김재규 / 울산동구향토사연구회	기증
11446	문화재 연감 2007	문화재청	기증
11447	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III)	국립공주박물관	기증
11448	대구 상인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내 대구 상인동 171-1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49	대구봉무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구간내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0	대구 사월동 아파트 신축부지내 대구 사월동 400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1	가창-청도간 지방도 확장공사 구간내 달성 냉천리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2	김천 성내동 주차장 조성부지내 김천 성내동 고분군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3	상주 제2건설목 입체화시설공사부지내 상주 봉룡동 397-5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4	대구 서재리 아파트 신축부지내 달성 서재리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5	대구 월드컵경기장 진출입 교량설치구간내 대구 옥수동 364-3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6	대구 죽곡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달성 죽곡리 9-2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7	대구 동천유원지 도로확장 구간내 대구 효목동 1107-8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8	구미 국가산업단지(4단지) 조성사업부지내 구미 옥계동 317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59	중국 민화전. 무강의 민간연화	가회박물관	기증
11460	도서문화 제29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기증
11461	민족문화논총 제3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기증
11462	제왕개래 제6호	영남대학교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463	문화재와 함께 하는 사람들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기증
11464	주머니와 보자기	한상수자수박물관	기증
11465	충북 영동 성산 배씨 문중 기증 16·17 세기 출토복식	건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1466	사이언스터널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11467	그림속의 글	호암미술관	기증
11468	대구 월성동 아파트 신축부지내 대구 월성동 1261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69	대구 상인동 아파트 건설부지내 대구 상인동 152-1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70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경산 당곡리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71	대구 칠곡 4택지 개발사업지구내 대구 학정동 151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72	고령 쾌빈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내 고령 쾌빈리 433-11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73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경주 방내리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74	달성 가창-청도간 도로확장구간내 달성 옥분리 643-1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75	영남문화재연구원사 2000~2004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76	영남문화재연구 18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77	영남문화재연구 19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78	문물연구 제12호(C.1)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 한국문물연구원	기증
11479	서울대 치과대학별관 신축부지 유적 발굴조 사보고서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기증
11480	야외 고고학 제2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기증
11481	오천년 역사 고미술품전 소박한 아름다움 조상의 열(C.1)	고금당	기증
11482	참좋은이들(C.1)	꿈꾸는 생명나무	기증
11483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경산 속초리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484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경주 화천리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85	대구 월서 초등학교 신축부지내 대구 상인동 123-1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11486	선사에서 조선까지 한국의 칼	국립대구박물관	기증
11487	사진으로 보는 영양의 산촌마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기증
11488	옛 사람의 여행길	서울여자대학교박물관	기증
11489	또 하나의 도구 골각기	북천박물관	기증
11490	불상, 지혜와 자비의 몸	서울대학교박물관	기증
11491	간송문화 제73호	한국민족미술연구소	기증
11492	미술사학연구 255	한국미술사학회	기증
11493	그림보는 법	사비나미술관	기증
11494	2007 상설전	불교중앙박물관	기증
11495	한국민족문화 3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연구소	기증
11496	문화사학 제27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11497	초우 황수영박사 구순송축논집 고고학 미술사	초우 황수영박사 구순송축논집 발행위원회	기증
11498	우암 송시열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11499	제1회 중원고미술종합대전	(사)충북지회	기증
11500	연보 제10호 2006	경기도박물관	기증
11501	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1502	탐라문화 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기증
11503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기증
11504	연보 제10호 2006	경기도박물관	기증
11505	함안 구성리 유적(C.1)	함안박물관	기증
11506	함안 방어산 마애불(C.1)	함안군(함안박물관) / 우리문화재보존연구소	기증
11507	동물 문양전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11508	경희역사자료특별전 I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11509	대학역사전시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11510	형태와 색채의 양식	Tara ANTOUUS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511	여수 방답진성	순천국도유지건설사업소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512	고흥 성기리 기와가마(C.1)	고흥군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513	영광 법성진성	영광군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514	보성 정흥리-도촌리 분청사기요지	보성군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515	구례 봉북리유적(C.1)	구례군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516	순천 선암사	순천시 /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517	순천 성산리 대법유적(C.1)	한국철도시설공단 / (재)마한문화연구원	기증
11518	청주 성화동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대한주택공사	기증
11519	이천 도리리 골프장건설 예정부지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C.1, C.2, C.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주)딤플	기증
11520	용인 동백 동원로얄듀크 신축예정부지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C.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군인공제회	기증
11521	과천 주암동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국군 제1363부대	기증
11522	인천 원당동유적(I)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인천시 검단개발사업소	기증
11523	전통문화논총 5호	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1524	문화유적분포지도 -광명시-(C.1)	광명시 / 수원대학교박물관	기증
11525	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C.1)	수원대학교박물관	기증
11526	안동 조탑리사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527	고령 쾌빈리유적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11528	고고와 민속 제 10집(C.1)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11529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증
11530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증
11531	청록산수화 육일첩 4·5 책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1532	현풍-김천간 고속국도(제45호선)건설부지내 문화 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C.1) (C.2)	한국도로공사 /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기증
11533	영천 북안-고경간 도로확장구간 내 / 영천 신리리유적 (C.1) (C.2)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기증
11534	경북 청도군 풍각면 성곡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부지내 /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C.1) (C.2)	한국농촌공사 /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1535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남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부지내 /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C.1) (C.2)	한국농촌공사 /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기증
11536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야무진권역 농촌마을중 합개발사업부지내 /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서 (C.1) (C.2)	한국농촌공사 /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기증
11537	유일	해인사 정보 박물관	기증
11538	아산 갈매리(2구역) 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기증
11539	부여 마동공원 조성부지 / 동남리 172-2번지 일원 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부여군	기증
11540	금산 수당리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기증
11541	보령성곽 정밀지표조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보령시	기증
11542	-부여 개인주택 신축 부지- / 동남리 702번 지 유적 쌍북리 243-8번지유적(시굴)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기증
11543	금산 백령산성 / -1·2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금산군	기증
11544	부여 충화면 하산리유적 / 부여 동남리 216-17번지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부여군	기증
11545	계룡산	국립공주박물관	기증
11546	일본근대미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1547	창녕박물관 소장유물도록	창녕박물관	기증
11548	정신문화연구 107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증
11549	정신문화연구 10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증
11550	영남고고학 43	영남고고학회	기증

알 림

〈박물관 기요〉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투고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1. 투고원고는 역사학 일반,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나 논문집에 실린 바 없는 고유한 연구물이어야 합니다.
2. 투고원고의 매수 제한은 없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되도록 디스켓을 동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투고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박물관 정기 연구 발표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량이 많은 경우 편집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4. 그 밖에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 8005-2389~2390

FAX : 031) 8005-2391

〈박물관기요〉 22

2007년 12월 25일 인쇄

2007년 12월 30일 발행

발행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록 1968年 2月 27日 NO. 3-95

편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수지구 용인시 죽전동 126번지

(031) 8005-2389~2390, FAX : (031) 8005-2391

편집 新 陽 社 (02) 2275-0834, 4585

